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54-01

#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안상훈·김영미·최영준



보 건 복 지 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2010. 9.

- 책임연구원 :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사회복지연구소장)
- 공동연구원 : 김영미(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영준(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 정해식, 민기채, 노법래, 박중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바야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적 복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화된 복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복지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입된 복지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된 복지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적 확대의 유효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잔존하였다. 복지수요 및 복지프로그램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복지통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사실상 이미 복지통계의 양적인 수준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정부도 학계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지통계는 이론적 체계성의 미비,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proactive)인 통계생성의 결핍,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복지통계에의 적극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노정하고 있다. 요컨대, 현 시점에서 우리 복지통계의 발전방향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산된 복지지표들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는 기존의 물질주의적 양적 복지지표에 더하여, 욕구에 관한 태도나 인식 등을 포함한 질적 지표를 포괄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체계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예측가능한 복지수요를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는 다른 나라들과의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새로운 지표체계는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반영할 수 있고 정책성과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의 연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복지지표 체계와 지표들을 검토·정리하여 국제비교 가능하고 정책과 연계 가능한 복지지표체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는 이론적 근거를 가져야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OECD의 PSR(Pressure-State-Response) 모형의 적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립·형평성·건강·사회응집·지속가능성이라는 다섯 개의 정책목표를 세 가지 생애주기별로 배치하여, 각각 사회적 맥락·사회적 상황·복지노력이라는 분석틀 속에서 구성하는 복지지표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새로이 확보한 복지지표 체계들 속에 지금까지는 단순·나열식으로 제공되었던 기존 복지지표들을 배치함으로써, 미개발된 지표영역이 상당수 존재함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발되어야 할 복지지표를 전문가 조사를 통해 확보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하였다. 연구소장인 안상훈 교수의 책임 하에 동서대학교 김영미 교수, 고려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핵심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소의 정해식, 민기채, 노법래, 박종연 연구원이 자료정리와 최종편집을 성실하게 도왔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훌륭한 의견과 자문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주신 여러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연구계와 학계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본 연구팀을 믿고 새로운 분석적 시도를 수용한 보건복지부의 미래지향적 선택에 사의를 표한다.

노파심에 우리의 기원을 덧붙이자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지표체계의 틀거리가 무수히 사장되는 연구보고서의 무덤으로 직행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심 끝에 제안한 새로운 지표체계가 우리나라 복지수요의 측정 및 복지프로그램의 성과평가 개선과정에서 유용한 틀로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과 예산의 제약, 새로운 내용에 관한 이해, 설득, 그리고 정교화의 고단함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본 연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군데군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더 나은 연구 환경 속에서 작업하게 될 후속연구자들께서 채워주시리라 믿는다.

2010년 9월 관악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안상훈

- 제목 차례 -

요약	1
<b>제1장. 서론</b>	<b>17</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8
1) 연구내용	18
2) 연구방법	20
<b>제2장. 한국 복지통계지표 체계 검토</b>	<b>23</b>
1. 기존 복지통계지표 현황	23
2. 기존 복지통계지표 체계의 문제점	25
1) 제공기관별 분류기준의 상이성	25
2) 양적·객관적 지표에의 편중성	31
3) 통계자료의 낮은 활용성	34
4) 성과 측정 지표의 미비성	37
3. 복지정책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38
1) 지표의 대표성	38
2) 지표의 이용자 접근성	39
3) 지표의 업무 활용도	39
4) 지표의 정책 연계성	40
5) 지표 분류 체계의 적합성	41
4. 복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3
<b>제3장. 국외 복지통계지표 체계 검토</b>	<b>45</b>
1. 초기 사회지표 연구	46
2. 웰빙(well-being) 분석틀	47
1) Noll의 유럽 사회지표 분석틀	48
2) 호주의 웰빙 분석틀	52
3) 평가	53
3. EU 사회보호위원회의 접근	54
4. OECD의 사회지표 체계	55

5. 스웨덴의 사회지표 체계	59
6. 일본의 사회지표 체계	62
1) 일본통계조사 현황	62
2) 지표 정리 체계	64
7. 호주의 사회지표 체계	65
<b>제4장.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 구축</b>	<b>67</b>
1.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	67
1) 자립(self-sufficiency)	68
2) 형평성(equity)	69
3) 건강(health)	69
4) 사회응집(social cohesion)	70
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71
2. 한국의 복지지표 체계	73
1) 사회적 맥락 지표	74
2) 5가지 정책목표별 사회적 상황 & 복지노력 지표	76
<b>제5장 신규 복지지표</b>	<b>87</b>
1. 신규 복지지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87
1) 보건복지부 통계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87
2) 복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88
2. 신규 복지지표 제안	89
1) 자립 관련 신규 복지지표	89
2) 형평성 관련 신규지표	94
3) 건강 관련 신규 복지지표	97
4) 사회응집 관련 신규 복지지표	99
5) 지속가능성 관련 신규 복지지표	102
<b>제6장 결론: 정책과의 연계방안 및 향후과제</b>	<b>103</b>
1. 정책과의 연계방안	103
1) 복지지표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한 중복과 누락의 방지	103
2) 이론적 근거의 강조를 통한 정책관련 체계지속성의 확보	104
3)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성과의 객관화	105

4) 보고조사와 조사통계의 원자료를 활용한 지표생성의 비용절감-----	105
5) 정책 성과지표 개편 및 발굴시의 원칙으로 활용-----	106
2. 후속과제 및 연구에 관한 제언-----	107
1) 질적·주관적 측면의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107
2) PSR의 인과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비교지표로의 확장-----	109
3) 분야별 지표 세련화 작업의 지속과 대표성 있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110
<b>참고문헌-----</b>	<b>111</b>
<b>부록-----</b>	<b>115</b>

- 부록 차례 -

[부록 1] 국가통계포털 대상별 복지통계 지표 목록-----	115
[부록 2] 보건복지통계연보(2009년도) 제공 지표 목록-----	125
[부록 3] 복지지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담당자 의견수렴 설문지-----	147
[부록 4]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 구성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153
[부록 5] 유럽연합(EU) 사회보호위원회의 사회정책 분석틀-----	157
[부록 6] OECD Society at a glance(2001,2003,2005,2006,2009)에 포함된 사회지표들-----	185
[부록 7] 스웨덴 사회보험 관련 지표 목록-----	187
[부록 8] 스웨덴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지표 관련 보고서 목록-----	193
[부록 9] 호주의 사회지표 목록-----	195
[부록 10] 새로운 복지지표분류체계에 따른 복지지표현황(기존지표 및 신규지표)-----	217
[부록 11] 새로운 복지지표분류체계에 따른 통계연보 지표 현황(복지지표 중심)-----	225

- 표 차례 -

[표 1]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승인통계 현황(2010년 7월말 기준, 총 43종)	23
[표 2] 복지 관련 기관 승인통계 현황(2010년 7월말 기준, 총 16종)	24
[표 3]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분류기준(10개 분류)	26
[표 4]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분야별 통계 분류기준	28
[표 5] 분야별 e-나라지표 분류 및 내용	29
[표 6] 인구대상별 통계지표 분류기준	31
[표 7] 통계청 e-나라지표 복지 분야 지표	32
[표 8] 통계청 e-나라지표 보건 분야 지표	33
[표 9] 통계청 e-나라지표 여성/가족, 청소년 분야 지표	33
[표 10] 보건복지 100대 지표	35
[표 11] 국가통계포털 상에서 제공하는 통계들	36
[표 12] e-나라지표의 성격별 지표 체계	37
[표 13] 제공출처별 복지지표 분류체계	41
[표 14] 지표 분류 체계가 적합하다고 평가한 이유	42
[표 15] UN과 각국의 사회지표 분류체계	47
[표 16] Noll(2002)의 사회지표 분석틀	49
[표 17] 웰빙 분석틀에 포함된 14개 삶의 영역	49
[표 18] 삶의 영역에 대한 목표차원과 측정차원 : 노동시장과 노동조건	50
[표 19] 객관적 생활 조건의 향상 목표차원과 관련된 측정차원과 하위차원	51
[표 20] 실업과 불안정 고용 측정차원과 관련된 하위차원과 지표	51
[표 21] OECD가 제시한 사회지표 틀	56
[표 22] 스웨덴 복지 관련 지표분류 체계	61
[표 23] 일본의 사회지표관련 조사와 주요 조사내용	63
[표 24] 지표 정리의 예(개호보험 관련 지표)	64
[표 25] 호주의 사회지표 분류체계와 관련 조사통계	65
[표 26]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	72
[표 27]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지표	75
[표 28] 자립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77

[표 29] 자립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78
[표 30] 형평성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79
[표 31] 형평성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80
[표 32] 건강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82
[표 33] 건강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83
[표 34] 사회응집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84
[표 35] 사회응집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85
[표 36] 지속가능성 관련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 지표	86
[표 37] 공개 필요 보유 지표 및 신규 개발 필요 지표에 대한 응답 내용	87
[표 38] 자립 관련 신규 복지지표	90
[표 39] 형평성 관련 신규 복지지표	94
[표 40] 건강 관련 신규 복지지표	98
[표 41] 사회응집 관련 신규 복지지표	100
[표 42] 지속가능성 관련 신규 복지지표	102

- 그림 차례 -

[그림 1] 현재 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응답 결과	39
[그림 2] 현재 지표의 이용자 접근성에 대한 응답 결과	39
[그림 3] 현재 지표의 업무 활용도에 대한 응답 결과	40
[그림 4] 현재 지표의 정책 연계성에 대한 응답 결과	40
[그림 5] 지표 분류 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	42
[그림 6] 웰빙 지표 도출을 위한 5단계	49
[그림 7] 호주 통계청이 구상한 well-being 측정을 위한 단순화된 분석틀	53

# 요 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연구 필요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된 복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복지 재정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지통계는 그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임.
- 지금까지의 복지통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점들이 존재하고 있음. 첫째, 복지통계에 있어서 누락된 통계부분이 있거나 일부 중복된 통계가 존재하는 등의 체계성이 부족함. 둘째,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proactive)이기보다는 반응적이고 수동적인(reactive) 복지통계임. 셋째,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복지통계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함.
- 또한 기존의 통계자료들은 대부분 양적 측면에 대한 것이었으나, 태도 혹은 인식 등을 포함한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삶의 질(quality of life), 복지, 웰빙(well-being)과 같은 개념들의 중심적 측면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주관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질적인 복지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한국의 복지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복지지표체계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산된 복지지표들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한편, 국제비교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함. 또한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을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 가능성을 담보해야만 함.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 관련 조사자료,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정리하여 국제비교 가능하고 정책과 연계 가능한 복지지표체계를 발굴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 연구내용

- 첫째, 국내 복지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는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함.
- 둘째, 이론적 근거를 가진 새로운 복지지표체계를 발굴함.
- 셋째, 국제적으로 논의 및 사용되고 있는 복지통계 중 비교 가능한 복지통계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여 미래형 복지통계 지표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성함.

- 연구대상 및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 첫째, 복지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지표체계를 발굴함. 둘째, 연구시간의 제약으로, 주로 양적지표를 중심으로 체계화를 시도할 것임. 셋째, 국내 지표를 중심으로 함.

####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기존의 복지지표 체계와 지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함. OECD, EU, UN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해외 문헌들을 함께 검토함.
- 국제기구(OECD) 사회정책 및 사회통계 관계자 회의 및 자문 : OECD의 사회정책 및 사회통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지표 들의 적합성, 이 틀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이론적, 현실적 이슈 등에 관한 논의를 함.
- 관련 전문가 회의 및 델파이 조사 :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틀로 적합한지, 추가 혹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15명 내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함. 또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복지지표의 접근성과 활용도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를 실시함.
- 보건복지부 부서별 통계 담당자 의견 조사 :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의 기존 복지통계 및 지표에 대한 평가, 신규 개발되어야 하는 복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함.

## 제2장. 한국 복지통계지표 체계 검토

### 1. 기존 복지통계지표 현황

- 보건복지부 소관 승인통계 현황 : 보고통계 17종, 조사통계 24종, 가공통계 2종, 총 43종임.
-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관할하고 있는 통계는 16종. e-나라지표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된 비승인 통계들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복지통계가 존재.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타부처 역시 복지통계 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2. 기존 복지통계지표 체계의 문제점

### □ 제공기관별 분류기준의 상이성

- 기존 복지통계지표들은 분류기준, 제공기관에 따라 체계와 내용이 상이함.
- 대체로 복지 관련 사업(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분류기준과 복지사업의 대상(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부랑자,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한 분류기준이 주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분류기준은 이용의 편의성은 있으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함. 체계적으로 현재의 복지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함.

### □ 양적·객관적 지표에의 편중성

- 객관적인 현황을 제시하는 지표들이 중심임. 대부분 보고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지표들임.
-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복지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인 지표들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함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한 지표들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통계자료의 낮은 활용성

- 복지 분야에서 많은 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기존 통계들에서 추출, 제공하는 지표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음. 복지 관련 통계지표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은 주로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통계청의 e-나라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임.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 및 기관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매우 다양함.
- 그러나 한국의 복지 상황, 복지제도 발전 상황을 보여주기에는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음.
-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은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유용함.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사통계를 토대로 복지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성과 측정 지표의 미비성

- 기존의 복지지표들은 정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심이고,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너무 부족한 상황임.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지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정책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가, 마지막으로 정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소수에 불과함.
- 보다 큰 문제는 위와 같은 구분이 임의적이라는 것임. 이론적 근거를 가진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

### 3. 복지정책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 설문은 보건복지부의 각 과에서 통계지표에 가장 업무 관련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됨. 직접 설문지를 보내고 수합하는 방식을 취함. 총 25개 부서 26명의 담당자가 응답함.

#### 지표의 대표성

- 보건복지통계연보와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이 한국의 복지현황을 대표성 있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고, 70%가 '그렇다'고 대답해 78%의 응답자가 현 지표의 대표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지표의 이용자 접근성

- 보건복지통계연보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e나라지표들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없었음.

#### 지표의 업무 활용도

- 설문지와 함께 제공된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표들이 실제 업무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74%가 업무 활용도가 높다고 응답함.

#### 지표의 정책 연계성

- 각 부서 소관의 지표들이 정책과 충분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1%의 응답자가 현재 지표의 정책 연계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었음.

#### 지표 분류 체계의 적합성

- 복지지표 체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현행 복지지표 분류체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물음. 통계청의 e나라지표,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의 정책통계포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보건복지지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표 분류 방식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음.

- 조사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통계청의 e나라지표의 분류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 가운데서 41%를 차지함. 다음으로 33%의 응답자들이 보건복지 통계연보의 지표 분류방식이 적합하다고 응답함. 보건복지부의 정책통계포털과 보건사회 연구원의 한국의 보건복지지표가 각각 15%와 7%로 적합하다고 답함. 4%는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함.
- 통계청의 e나라지표의 경우 이용자 편리성,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과의 일치성, 지표의 높은 세분화 수준, 신규 지표 개발의 용이성, 지표 체계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 선택이유였음.

#### 4. 복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델파이방식의 자문은 2010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정신보건, 의료, 빈곤, 사회보장, 사회지표 등 각 복지 영역의 전문가 14명의 전문가들이 응함.
- 전문가들은 통계청 e-나라지표와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연보를 골고루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e-나라지표를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연구자들의 경우, 지표 검색의 용이함과 높은 접근성, 활용도를 그 이유로 꼽음. 용어 정리나 지표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 역시 e-나라지표의 장점으로 꼽음.
- 하지만 전문가가 사용하기에는 지표의 양적·질적 충분성이 낮아 주로 연구나 강의에 필요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고 응답함.
- 전문가들은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서베이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하여 직접 필요한 지표 값을 계산하거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연금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공단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혹은 연구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산출 통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비교통계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직접 OECD, EU, ILO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지표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문가들도 지적했듯이,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정확하고 다양한 지표를 생성하는 것, 국가비교가 가능한 다양한 지표들을 생성하는 것,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의 복지지표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제3장 국외 복지통계지표 체계 검토

### 1. 초기 사회지표 연구

- 1960년대에 경제중심의 정책 및 통계지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됨. 이를 기점으로 1970년대에는 다양하고 심도 깊은 사회지표가 연구를 통하여 제안됨.

- 사회지표의 목적을 '사회변화를 감시하는 것'과 '복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Noll, 1996).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지표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계제도가 각국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전됨.
-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80년대 초반 이래로 상당히 줄어들음. 서구의 경제위기, 보수주의 이념의 강화, 그리고 경제이론에 비교될 만한 사회지표에 대한 이론적 분석들의 부재, 규범적 판단에 대한 일치된 방법의 부재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됨.

## 2. 웰빙(well-being) 분석들

- 1980년대와 90년대는 사회지표나 복지지표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든 시기임. 반면 최근에 들어서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60년대와 유사하게 경제지표에 대한 대안적 지표 및 분석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행복이나 삶의 질, 혹은 웰빙과 같은 지표들이 연구되고 제안됨.

### □ Noll의 유럽 사회지표 분석들과 호주의 웰빙 분석들

- 두 분석들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대한 총체적인 이론적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정책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음.
- 위의 두 접근이 국가의 복지지표로 차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형과 분석들의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EU 사회보호위원회의 접근

- 비록 제한된 정책 영역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지표들이 연령, 성,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더 구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OECD와 달리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강조가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 분석들은 사회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정책들을 이해하기에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초점이 가 있으며, 한 정책 내의 지표구성은 잘 발전된 반면 대영역의 구분에 대한 정당성이 거의 설명되어 있지 않은 단점을 보이고 있음.

#### 4. OECD의 사회지표 체계

- OECD는 2001년 'Society at a Glance'를 출판하면서부터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함. 첫째, 삶의 영역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 출발하지 않고, 'PSR(Pressure - State - Response)'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PSR'은 새로운 사회지표에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그리고 사회적 반응(Societal response)으로 재구성됨. 둘째, PSR이 한 축을 이루고 다른 한 축은 사회정책의 네 가지 목표와 관련됨. 네 가지 목표는 자립, 형평성, 건강, 그리고 사회응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간략하게 각각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음.
- 이 분석틀을 받아들이기 전에 몇 가지 논의과정이 필요함. 첫째, 이 분석틀은 한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둘째, 보건의 경우 자립이나 형평성 등과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개념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셋째, 사회응집은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본 분석틀은 최근 사회정책 논의에서 핵심적 이슈 중 하나인 정책의 재정적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음.

#### 5. 스웨덴의 사회지표 체계

- 스웨덴은 분산형 통계생산체계를 갖고 있음. 공식적으로 스웨덴은 1994년 7월 1일부터 중앙 통계청(Statistics Sweden)에서 생산되던 통계의 상당부분을 관련부처로 이전함으로써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함. 통계개혁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와 더욱 관련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시스템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 통계생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음. 그러나 여전히 스웨덴 통계청은 다양한 분야의 통계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을 갖고 있음.
- 분산형 제도의 도입 이후에 통계청과 타부처간의 조정(coordination)에 일부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서 2001년 공식통계위원회(The Council for Official Statistics)를 도입하여 조정역할을 하게 하였음.
- 복지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세 정부부처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통계지표의 생산은 각 부처들이 책임지고 있으나, 통계지표의 제공은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스웨덴 통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성별, 연령별, 출생지별, 연도별·월별, 지역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음. 이는 성별, 지역별로 구분된 통계가 부족하여 그 필요성과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6. 일본의 사회지표 체계

- 한국과 유사한 분산형 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최근 2009년 통계법의 개정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품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려 하고 있음. 이 법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통계에 대한 내무부의 조정역할이며, 이를 통해서 통계자료에 대한 품질향상, (사용자/생산자에 대한) 규제 및 중복방지 등을 시도하고 있음.
- 복지관련 통계는 대부분 보건노동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노동복지부 내에 통계정보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지방정부에도 각각 통계부처가 있어서 각각의 통계부처에서 생산된 것이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전달되고 있음.

## 7. 호주의 사회지표 체계

- 통계 및 지표의 생산체계를 살펴보면, 분산형인 스웨덴과 달리 집중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즉, 통계생산 및 기타 통계 관련 서비스는 재무부 소속 중앙 통계청인 호주 통계청(ABS)에 의해 수행됨. 그리고 국가통계승인제도를 도입해 통계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조사 설계와 조사과정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있음.
- 앞서 스웨덴의 복지지표들은 사회보장제도들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중심이었던 반면, 호주의 사회지표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 웰빙과 관련된 지표들이 중심이고, 주관적인 인식 관련 지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

## 제4장. 새로운 복지 지표 체계 구축

### 1. 새로운 복지 지표 분석틀

[요약-표 1] OECD가 제시한 사회 지표 틀

정책목표	자립 측면 <i>Self-sufficiency</i>	형평성 측면 <i>Equity</i>	건강 측면 <i>Health</i>	사회응집 측면 <i>Social cohesion</i>
사회적 맥락 <i>Social Context</i>				
사회적 상황 <i>Social status</i>				
사회적 반응 <i>Social responses</i>				

출처 :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 기본적으로 OECD의 사회 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EU 사회보호위원회의 분석틀을 참조하여 새로운 복지 지표 통계 분석틀을 제안함. 새로운 분석틀은 1) 사회 지표의 두 가지 목표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감시 기능과 복지 측정이라는 두 목표를 충실히 따르며, 2) 현재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 변화를 제안하며, 3) 물질적 요인과 탈물질적 (non-monetary) 요인,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4) 비교 가능한 분석틀과 지표들을 제안함.
- OECD의 분석틀이 한 국가 내의 복지 통계 지표가 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단점들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분석틀을 세 가지 생애 주기로 나누었음. 세 가지 생애 주기는 아동 청소년기(0-24세), 성인(25-64세), 그리고 노인(65세 이상)으로 구분됨. 또한, OECD가 제시한 네 가지 정책적 목표에 더하여 EU의 분석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추가함.
- 분석틀에는 OECD의 PSR 모델이 그대로 차용됨. 거시적 맥락을 보여주는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정책을 촉진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보여주는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이 한 축으로 사용됨. 사회 정책의 다섯 가지 목표 역시 OECD의 정의에 기반하고 있음.
- 분석틀은 3가지 중요한 기준 축을 가짐. 첫 번째는 5가지 정책 목표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상황과 복지 노력의 구분이고, 세 번째는 핵심 복지 지표와 생애 주기별 복지 지표의 구분임

## 2. 한국의 복지지표 체계

[요약-표 2]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

		정책목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 응집	지속 가능성
핵심 복지지표		사회적 맥락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생애 주기 별 복지 지 표	아동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성인기 (25-64세)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노년기 (65세 이상)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참고 : 위의 표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에 관련 지표들이 배치될 것임.

- 먼저, 현재 e-나라지표,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지표들을 각 칸(cell)에 배치함. 이 작업은 현재 일정한 기준 없이 열거, 나열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지표들을 정책목표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맥락-사회적 상황-복지노력'이라는 일련의 인과 논리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기존 복지지표들을 체계화하고자 함. 두 번째 단계는 추가되어야 할 지표들을 각 칸(cell)에 배치하는 작업이며, 신규지표 개발과 연결됨.
- 하위 분류기준을 설정하는 주요 원칙으로 2가지를 고려함. 첫째, 기존 복지지표 체계의 분류기준을 적극 활용함. 둘째, 지표들을 포괄하되 최대한 적은 수의 분류기준을 적용함.
-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은 탐색적 시도이지, 완결된 것이 아님. 이 분석틀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복지지표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이고,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임. 따라서 이 분석틀 속에 모든 복지지표들을 배치하고자 하기보다는(이는 가능하지도 않다), 각 정책목표와 인과 논리 틀에 맞는 적절하고 대표적인 지표들을 배치하고자 함. 지표를 배치하는 작업은 여러 복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짐.

## 제5장 신규 복지지표

### 1. 신규 복지지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 □ 보건복지부 통계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 신규 개발 필요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동태적 현황, 전국 아동 학대 현황, 보건의료인력 보수 통계, 보건의료기관 수입 및 지출 통계가 제안됨.

#### □ 복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자립영역에서 일가족 양립 현황 통계, 청소년 진로·노동 현황 통계, 건강영역에서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아동 현황 및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통계, 정신보건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건강보험 사각지대 통계, 사회응집영역에서 이주·다문화 가족 아동에 관한 통계, 청소년 인권·복지, 활동·문화가 제안됨

### 2. 신규 복지지표 제안

- 보건복지부 통계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와 복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각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복지지표들을 토대로 하여 새로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을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에 배치함.
- 자립 관련 신규 복지지표 33개, 형평성 관련 신규 복지지표 33개, 건강 관련 신규 복지지표 17개, 사회응집 관련 신규 복지지표 31개, 지속가능성 관련 신규 복지지표 1개를 배치함.

## 제6장 결론: 정책과의 연계방안 및 향후 과제

### 1. 정책과의 연계방안

#### □ 복지지표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한 중복과 누락의 방지

- 기존 복지지표 체계를 검토한 결과, 사업별 혹은 대상 군별로 지표의 분류기준이 혼재하는 등 주로 지표별 관리주체로서의 부처별 행정부서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지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외국 일부국가의 경우, 통계청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지표 전반을 관련 부처와의 협의 하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추후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도 실제 항목 설정 및 개별지표의 관리 등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부처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함.

□ 이론적 근거의 강조를 통한 정책관련 체계지속성의 확보

- 기존 복지지표체계가 부처별로 업무 혹은 대상자 중심의 편의적 분류를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복지지표체계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work)과 그에 따른 지표의 체계화는 결국 정책의 목표와 수단사이의 연결고리를 명시적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정책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부가이득은 원인과 결과 혹은 상황과 노력을 이론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책성과 홍보의 견지에서 언론과 국민을 설득하는데 더욱 용이한 논리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임. 또한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재구조화된 지표체계는 혹여 부처의 업무가 조정되거나 동일한 욕구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다른 수단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지속가능함.

□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성과의 객관화

- 기존 복지지표 체계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복지통계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함에 따라서 한국의 복지발전을 측정하고 논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정책수행 및 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정책성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 이용자 중심의 가공통계의 생산이 필요한 상황임.
- 제안하는 분석틀은 거의 그대로 추후 OECD(혹은 EU)의 체계로 결과할 것이며, 이는 우리 복지지표 체계화를 선제적으로 재편함을 의미함. 정책적 견지에서 미래지향적인 개혁일 것이며, 비용효과적인 제안일 것임.

□ 보고조사와 조사통계의 원자료를 활용한 지표생성의 비용절감

- 신규지표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존 통계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사실상 기존 관련 연구들의 지표화 방안들에서는 기존 원 자료(raw data)를 추가 분석한 2차 가공통계를 실제 정책운영 과정에 반영시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음. 그 결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복지통계가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도구가 되지 못하여 왔음.
- 신규지표들의 경우, 일단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원자료의 가공에서 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건·복지 관련 패널 등이 상당수 이루어졌고, 수많은 보고·조사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자료를 적극적으로 2차가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상황임. 요컨대, 기존의 조사들에 대한 예산집행의 조건으로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지표들에 대한 가공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proactive) 그리고 정책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복지통계의 새로운 체계화가 가능할 것임.

#### □ 정책 성과지표 개편 및 발굴시의 원칙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의 정책성과지표는 430여개인데, 부내 개별 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것들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농후함. 물론 각 과가 해당분야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유효한 성과지표 발굴방안일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와 관련한 대청와대·대국회·대언론·대국민 메시지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체계를 발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음.
- 이론적으로 정당한 분석틀은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연계될 부분이 많음. 첫째, 성과의 '목적'에 관한 우선순위를 이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둘째, (가칭) '복지지표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활용할 경우, 본 보고서의 이론적 체계의 세부적 지표설정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복지정책의 목적'들이 선별되고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임.

## 2. 후속과제 및 연구에 관한 제언

#### □ 질적·주관적 측면의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OECD나 EU, 스티글리츠위원회 등 주요 외국 싱크탱크들에서는 태도 혹은 인식 등을 포함한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더욱 더 강조하고 있음. 기존의 지표들이 경제적 생산이나 물질적인 측면의 복지와 관련되었다면, 이제 삶의 질(quality of life), 복지, well-being을 구성하는 주관적 차원을 포괄하는 새로운 복지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새로이 제안하는 복지통계 지표체계에서도 국민 혹은 복지인구의 경제생활, 소득수준, 복지수급 여부와 같은 객관지표를 넘어서서 사회·심리적 상태,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주관지표들을 대폭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욕구와 관련된 태도와 인식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총량자료 뿐 아니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미시자료를 통해 복지제도가 개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친복지·반복지의 균열지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며,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루어질 욕구,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회조사는 매년 30여 개국에서 표준화된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이나 국제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tudy)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한 해의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만으로는 정책변화에 따른 복지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움. 한국의 복지제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전반의 가치도 변화하고 있어, 패널이 아닌 웨이브의 방식으로라도 적어도 매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PSR의 인과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비교지표로의 확장

- 우리나라에서는 SOCX 등에 연동되는 OECD에 대한 객관적 국가복지지표들 보고하고 있음. SOCX 등의 OECD 지표들은 주로 지출측면에만 치중되어 있음.
- 제안할 수 있는 비교지표자료는 현재 존재하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계량적 비교자료 중 가장 최신 자료이자 널리 이용되는 데이터셋인 '비교 복지국가 데이터셋'(Comparative Welfare State Dataset: CWSD)은 1994년 Huber, Stephens와 Ragin에 의해 「비교 관점에서 바라 본 복지국가 : 결정요인, 특징 및 결과(The Welfare St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Determinants, Characteristics and Outcome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이후 2004년 4월에 Stephens, Brady, Beckfield가 업데이트 한 바 있음.
- CWSD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8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변수들이 2000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내용상으로는 크게 ①사회지출 및 수입 관련 자료, ②노동시장 관련 자료, ③인구학적 자료, ④거시경제 자료, ⑤정치 관련 자료, ⑥임금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기존의 변수들을 보다 세분화시키고, 복지국가와 관련된 연구에 필수적이거나 그동안 CWSD에서 담고 있지 않던 변수들을 새롭게 수집하거나 관련 데이터셋을 통합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임.

□ 분야별 지표 세련화 작업의 지속과 대표성 있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 생애주기별 지표선정 및 신규지표개발까지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기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완성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 향후 본 보고서에 틀에 맞추어 각 부문별 지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세련화 하는 작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대표성 있는 통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위원을 선정하는 문제임. 복지지표의 내용을 확정하는 문제는 사실상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자 규범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위원의 면면에 대해 관계 혹은 학계에서 모두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기 때문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컨대 사회복지학회 등에 위원회 구성 중 상당부분을 위임 방식 등도 위원선정의 대표성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된 복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복지 재정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 증가로 인해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지통계는 그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의 영향 속에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형태로 도입 및 확장하였다. 하지만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이 깊이 있고 다변화되는 복지욕구들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들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복지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1997-8년 경제위기 때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생산하는 패널자료가 전혀 없었고, 복지통계도 거의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학계는 필수적인 복지통계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복지통계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기존 통계청에서 진행해 온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가계조사', '생활시간조사'를 포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1998년부터 실시),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06년부터 실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2007년부터 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06년부터 실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2006년부터 실시), '한국의료패널조사'(2008년부터 실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년부터 실시), 보건복지부의 '가족실태조사'(2005년부터 실시), '노인실태조사'(2004년부터 실시) 등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서 복지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복지통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복지통계에 있어서 누락된 통계부분이 있거나 일부 중복된 통계가 존재하는 등의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복지'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자료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되기보다는 분산적이고 부분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 자료(raw data)를 추가 분석한 2차 가공통계의 부족으로 인해 통계조사 자료결과를 실제 정책운영 과정에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복지통계가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도구가 되지 못하였다.

둘째,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proactive)이기보다는 반응적이고 수동적인(reactive) 복지통계

라고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복지욕구와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셋째,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복지통계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함에 따라서 한국의 복지발전을 측정하고 논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정책수행 및 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 이용자 중심의 가공통계의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지표를 포함한 사회지표란,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로, 양적·질적 측면 모두를 포괄한다. 기존의 통계자료들은 대부분 양적 측면에 대한 것이었으나, 태도 혹은 인식 등을 포함한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양적 복지지표들이 경제적 생산이나 물질적인 측면의 복지와 관련되었다면, 이제 삶의 질(quality of life), 복지, 웰빙(well-being)과 같은 개념들의 중심적 측면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주관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질적인 복지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국민 혹은 복지인구의 경제생활, 소득수준, 복지수급 여부를 넘어 사회·심리적 상태,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지표들이 필요한 것이다.

양적·질적 양측을 포괄하는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OECD와 EU 등 국제기구들은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 생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체계적인 복지지표 체계의 구축과 통계자료의 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의 복지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복지지표체계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산된 복지지표들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한편, 국제비교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을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 가능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 관련 조사자료,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정리하여 국제비교 가능하고 정책과 연계 가능한 복지지표체계를 발굴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복지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복지지표들을 넘어 체계적이고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복지지표 체계를 발굴함으로써, 현재의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내 기존 복지지표 체계를 검토하고 정리할 것이

다. 국내에서 복지지표는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e-나라지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등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한 곳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제공기관에 따라 그 체계와 내용이 상이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복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내 복지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는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 근거를 가진 새로운 복지지표체계를 발굴할 것이다. 기존의 복지지표 및 그에 대한 연구들은 이론적 기반이 전무했다.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나름대로의 기준들(대상인구집단, 제도, 주제 등)은 분명 있었으나, 정밀한 이론적 근거를 결여한 채 작성자의 편의에 따라 분류되곤 하였다. 그리고 사회문제 혹은 욕구(need)를 확인하는 지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response) 혹은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와 같이 복지지표체계에서 인과관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도 거의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의 복지지표는 우리 사회의 복지발전과 삶의 질의 수준을 확인하고, 복지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복지통계에 대한 뚜렷한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work)을 새로이 작성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복지통계를 재구조화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으로 논의 및 사용되고 있는 복지통계 중 비교 가능한 복지통계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여 미래형 복지통계 지표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성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 가능한 통계로서 OECD와 유럽연합에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사회지표들을 주목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서 OECD는 사회/복지통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비교 가능한 복지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대상으로 유럽 국가들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되는데, 우리의 복지국가 체제가 영미형보다는 유럽형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해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복지’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서는 ‘삶의 질’의 개념까지 확대한 매우 광범위한 범주에서 파악하기도 하고,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한정하여 파악하기도 한다. 따라서, 복지지표 체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인적·물적·시간적 제약 속에서 본 연구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및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복지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지표체계를 발굴할 것이다. 광의(廣義)의 복지개념으로 보자면, 보건과 노동시장 및 고용지표들 모두 포함해야겠지만, 연구기간의 한계 상, 이들은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꼭 필요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하지만 보건지표의 경우, 복지지표와 함께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고, 한국에서 보건 영역은 보건복지부라는 행정부처 하에서 복지 영역과 함께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와 연관성이 높고 중요도가 높은 보건지표들을 중심으로 연구에 포함할 것이다. 보건지표 체계화에 관한 연구

는 이미 상당 수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성과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시간의 제약으로, 주로 양적지표를 중심으로 체계화를 시도할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복지 조사자료, 지표들은 양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우선 기존의 양적 지표들을 정리하고 통합·연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질적 지표의 경우,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이 있는지 검토한 후,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지표의 형태로 제안할 것이다. 셋째, 국내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 지표 생산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국외 자료의 경우, 국내 지표를 비교 가능한 지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즉 동향 파악의 견지에서 활용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 ○ 국내외 문헌연구

한국의 복지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새로운 복지 지표 체계를 발굴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복지 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와 고찰이 필요하다.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기존의 복지 지표 체계와 지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 지표 체계를 발굴하기 위해 OECD, EU, UN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해외 문헌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 ○ 국제기구(OECD) 사회정책 및 사회통계 관계자 회의 및 자문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복지 지표 체계를 발굴하는 것이다. 현재 복지 지표를 비롯한 사회 지표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OECD와 EU 등 국제기구들은 국제비교 가능한 대안적인 사회 지표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 지표 체계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동향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 사회정책 및 사회통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를 통해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 지표 틀의 적합성, 이 틀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이론적, 현실적 이슈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 ○ 관련 전문가 회의 및 델파이 조사

새로운 복지 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문제는 현재 여러 국제기구, 국가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지표 틀의 적합성이나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나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새로운 복지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한국의 복지지표와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탐색적 차원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과제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틀로 적합한지, 추가 혹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15명 내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delphi)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복지지표의 접근성과 활용도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복지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복지통계 및 지표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복지통계 혹은 지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복지통계 관련 수요를 묻는 조사를 통해 현재 복지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 ○ 보건복지부 부서별 통계 담당자 의견 조사

이 연구는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현행 복지통계 및 지표의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지표체계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고민하면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의 기존 복지통계 및 지표에 대한 평가, 신규 개발되어야 하는 복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제2장. 한국 복지통계지표 체계 검토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를 발굴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기존 복지통계 지표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 1. 기존 복지통계지표 현황

‘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복지지표의 범위와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생산, 제공되고 있는 공식적인 복지통계지표들은 통계청, 보건복지부, 관련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기관이 주요 제공주체가 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승인통계 현황은 보고통계 17종, 조사통계 24종, 가공통계 2종, 총 43종으로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승인통계 현황(2010년 7월말 기준, 총 43종)

보고통계 (17)	복지(10)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노인학대현황, 등록장애인현황,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장애수당수급자현황, 학대아동보호현황
	보건(6)	결핵관리현황,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법정전염병발생보고,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암등록통계, 한센병관리사업실적
	사회(1)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조사통계 (24)	복지(8)	노인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사회복지서비스산업실태조사, 아동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지정통계),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최저생계비계측조사
	보건(15)	국민건강영양조사(지정통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선천성이상아통계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의료기기, 화장품제조 유통 실태 조사,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 인수공통전염병위험군의감염실태조사, 전국장내기생충실태조사, 정신질환자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 환자조사, 흡연실태조사
	인구(1)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가공통계 (2)	복지(1)	한국의사회복지지출
	보건(1)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관할하고 있는 통계 16종(표2에 제시)까지 포함하면 59종에 달한다. 여기에서 보고통계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 등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를 말하고, 조사통계란 국가 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자체 또는 위탁조사를 통해 생산한 통계를 말한다. 전체 59종의 통계 중에서 조사통계는 35개로 전체 통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조사통계 실시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e-나라지표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된 비승인 통계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복지통계가 존재할 것이다.<sup>1)</sup>

[표 2] 복지 관련 기관 승인통계 현황(2010년 7월말 기준, 총 16종)

한국노동연구원(2)	조사통계	복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고용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3)	조사통계	보건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복지	한국복지패널조사
		보건	한국의료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1)	조사통계	사회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	조사통계	사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4)	보고통계	보건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건강보험통계
	조사통계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국민연금공단(2)	조사통계	복지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보고통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3)	조사통계	고용	국민연금통계
			사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보고통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구인구직및취업동향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또한 복지지표의 주요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나, 복지지표의 개념 정의를 확대한다면,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타 부처 역시 복지통계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010년 3월, 기존의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해 오던 청소년, 가족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전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오던 가족

1) 승인 통계 이외의 지표 목록은 부록을 참조.

실태조사,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측정,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조사,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로 이전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지원현황, 가정폭력실태조사, 성폭력실태조사는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 상황이나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 현황 관련 지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들이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 역시 고용과 관련된 복지 현황과 지원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특수교육실태조사, 사교육의식조사, 학생건강검사통계보고 등의 조사에서 복지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사망원인통계 등은 인구 상황과 관련된 복지 상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 상황을,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사교육비조사 등은 전반적인 국민의 복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국의 복지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응하는 복지제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사회통계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통계조사들은 한국의 복지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사회통계조사들의 결과값들은 지표로 생성되어 통계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현재의 복지통계지표는 체계성, 대표성, 양적·질적 적절성, 충분성, 이용자 접근성, 국제비교 가능성 등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다음의 2절에서는 기존 복지통계지표 체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2. 기존 복지통계지표 체계의 문제점

위의 [표 1]과 [표 2]에 제시된 보고통계, 조사통계들을 토대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복지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복지지표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kosis.kr)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최근의 복지통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통계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다.

### 1) 제공기관별 분류기준의 상이성

기존 복지통계지표들은 분류기준, 제공기관에 따라 체계와 내용이 상이하다. 보건복지 관련 통계가 한 곳에서 통합·제공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통계청 및 각종 공단 등 각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다. 복지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통계연보,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kosis) 등은 어떤 분류기준체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통계연보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10가지 분류기준(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경, 재정 경제, 국제통계)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분류기준(10개 분류)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인구</li> <li>• 출생, 사망</li> <li>• 결혼, 이혼</li> </ul>	공공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li> <li>• 의료급여</li> <li>• 소득분배</li> </ul>
국민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영양</li> <li>• 질병 및 사망원인</li> <li>• 보건의식행태</li> <li>• 보건사업</li> </ul>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연금</li> <li>• 국민연금</li> <li>• 기초노령연금</li> <li>• 건강보험</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li> <li>• 산재보험</li> <li>• 고용보험</li> </ul>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인력</li> <li>• 보건의료시설</li> </ul>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상태</li> <li>• 주택 및 가구</li> <li>• 공중위생</li> </ul>
보건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li> <li>•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li> <li>• 보건의료분야 R&amp;D 사업</li> </ul>	재정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예산</li> <li>• 국민경제</li> </ul>
사회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인력 및 시설</li> <li>• 장애인복지</li> <li>• 보육</li> <li>• 아동복지</li> <li>• 청소년</li> <li>• 여성 및 가족</li> <li>• 노인복지 및 기타</li> </ul>	국제통계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먼저 전반적인 인구구조, 가족구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 관련 지표들, 경제·주거·위생 등 ‘생활환경’ 관련 지표들, 전반적인 재정 경제 상황과 관련된 지표들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복지 지표와 비교 가능한 ‘국제통계’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는 크게 ‘보건’ 지표와 ‘복지’ 지표로 구분되는데, 보건 지표에는 전반적인 국민건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건강’ 지표들과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에 관한 지표

들, 보건산업과 관련된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복지지표들은 주요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세부 제도 기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주요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은 각 부서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일반, 보건, 보험, 기초생활·장애, 가족·보육, 아동·청소년, 노인으로 구분하여 주로 업무참고자료, 설명자료, 백서 등 문서 형태의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2010년 7월 13일부터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편하면서 분야별 통계를 크게 '복지통계', '보건통계' 및 '일반통계'로 구분하였다. 복지통계는 다시 아래의 [표 4]와 같이 복지정책, 연금, 사회서비스, 인구아동, 노인, 보육, 장애인 7가지 분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sup>. 앞의 3가지 기준은 사업 중심, 뒤의 4가지 기준은 인구대상 중심의 기준으로 두 가지 기준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7가지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승인통계들을 배치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표 일부는 아직 DB 구축 중에 있으며, 최신자료는 각 분류의 '최신자료'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

[표 4]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분야별 통계 분류기준

복지통계	복지정책(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현황, 최저생계비계측조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연금(1)	경로연금 수급자 현황
	사회서비스(3)	사회복지서비스산업실태조사,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아동 발달분야사회복지서비스수요조사
	인구아동(7)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국내입양현황보고, 아동 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현황보고,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학대아동 보호현황
	노인(3)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노인실태조사, 노인학대현황
	보육(2)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보육실태조사
	장애인(6)	등록장애인현황,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및종사자현황보고,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보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현황
보건통계	보건의료(5)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의료기관실태보고,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약통계, 환자조사
	건강보험	(통계 DB 구축 중)
	한의학	(통계 DB 구축 중)
	건강정책(10)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구강보건사업현황보고,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선천성이상아통계조사, 영아사망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특수환자조사(모성사망조사), 흡연실태조사
	질병정책(10)	결핵관리현황, 법정전염병발생현황, 성병관리사업실적, 암등록통계, 전국장내기생충실태조사,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 한센병관리사업실적
	보건산업	(통계 DB 구축 중)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 (2010. 7월말 기준)

이와 함께 보건복지 각 분야별 100여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상태 및 행태, 질병·장애, 보건의료,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일반,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역시 인구대상 기준과 제도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 통계청 e-나라지표

다음으로 통계청 홈페이지 상에서 한국의 주요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는 e-나라지표에서는 사회지표 범주 안에서 복지 관련 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다. 사회지표는 아래의 [표 5]와 같이 복지, 보건, 여성/가족, 청소년, 보훈, 노동, 교육, 환경, 경찰, 해양경찰, 재난안전 11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좁은 범위에서의 복지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복지’ 분야이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면, 여성/가족, 청소년, 보건, 보훈까지, 더욱 광범위하게 복지 개념을 정의한다면, 노동, 교육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분야별 e-나라지표 분류 및 내용

복지	복지 일반	보훈	보훈일반
	노인복지		보훈복지
	장애인복지	노동	사업체
	아동복지		임금
	연금/건강보험		고용
저출산/고령화	노동보험		
보건	보건일반	교육	노사관계
	식품		산업재해
	질병	교육/인적자원 일반	교육경쟁력
	건강증진		유아교육
보건산업	초중등교육		
여성/가족	여성일반	환경	특수교육
	가족		고등교육
	보육		평생교육
	양성평등		
청소년	여성권익	경찰	
	청소년 일반	해양경찰	
	청소년 보호	재난안전	
	청소년 활동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복지’ 분야는 다시 복지 일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연금/건강보험, 저출산/고령화로 구분된다. 이 하위 분류기준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이라는 복지대상 기준과 연금, 건강보험이라는 복지제도 기준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당면 시급한 정책과제 기준 3가지가 뒤섞여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부조 수급 현황이나 빈곤율 등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지표들은 ‘복지일반’이라는 모호한 기준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복지대상인 여성, 청소년은 별도의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회’ 분야에 포함된 11개 하위 분류기준이 어떤 근거로 구분되어 있는지 모호하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는 e-나라지표의 개별 지

표들을 각 사업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이다. 이러한 부처 중심의 지표 분류체계는 지표의 행정적 관리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논리적 근거를 가진 일관된 분류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

#### ○ 국가통계포털(kosis.kr)

마지막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kr)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통계,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별로 인구·가구, 고용·노동·임금, 물가·가계, 보건·사회·복지, 환경, 농림어업,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경기·기업경영, 국민계정·지역계정·국가자산, 재정·금융·보험, 무역·외환·국제수지, 교육·문화·과학, 행정 16개 주제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보건·사회·복지’이다. 국가통계포털의 경우, 특정한 근거를 가지고 통계들을 분류하기보다는 보건, 사회, 복지와 관련된 보고 및 조사통계들을 열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주제별 통계와 함께 ‘대상별 통계’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생, 노인, 여성, 환자, 장애인, 외국인 9가지 인구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련 통계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통계지표 목록은 부록 1 참고). 인구집단별로 필요한 지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영유아·아동·청소년·학생의 경우,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구집단별 하위분류 기준 역시 각 인구집단별 욕구(need) 혹은 문제, 관련 복지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표들을 사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 강하다.

[표 6] 인구대상별 통계지표 분류기준

영유아	영유아인구현황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여성가구주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		가사분담 현황
아동	아동취학 및 학업(비용)	환자	암
	아동복지 및 상담		정신질환
	아동입양		전염병 및 기타
청소년	청소년흡연	장애인	환자 일반현황
	청소년 문화활동		장애인 현황
	청소년 고민		장애인 복지
학생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외국인	시각장애인
	학교생활		외국인 현황
	생활시간 활용(일반인 포함)		외국인과의 혼인
	교육비 지출 및 교육시설		외국인 사업 현황
노인	신체검사 현황		
	고령자(노인) 현황		
	노인소득		
	노인복지		
	노인문제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현재 한국의 보건복지 관련 통계는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한 분류기준 체계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복지 관련 사업(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분류기준과 복지사업의 대상(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부랑자,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한 분류기준이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이용의 편의성은 있으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현재의 복지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의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2) 양적·객관적 지표에의 편중성

객관적인 현황을 제시하는 지표들이 중심이다. 현재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의 e-나라지표 등에 제시된 복지지표들은 상당수 보고통계에 기반하고 있다. 아래의 [표 7], [표 8], [표 9]는 통계청 e-나라지표에 제시된 복지 분야, 보건 분야,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지표들이다.

[표 7] 통계청 e-나라지표 복지 분야 지표

분류기준	해당 지표
복지일반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의료급여 수급 현황, 사회복지 지출규모,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후원(기부)인구,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국민영양 현황, 소득 분배(Gini계수)
노인복지	노인 취업률 현황, 노후준비방법,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일자리 및 노후 생활 현황
장애인복지	장애인 현황, 장애인 시설 및 사업현황,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
아동복지	아동 안전사고 현황, 국내입양아수 및 입양비용, 아동급식지원 현황, 학대 아동 보호 건수, 요보호아동현황
연금/건강보험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국민연금 재정현황, 공적연금 수급률
저출산고령화	노년부양비, 합계출산율

각 분류기준에 포함된 복지지표들은 대부분 보고통계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지표들이다.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sup>3)</sup>,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sup>4)</sup> 2개 지표만이 주관적 지표들이고, 나머지 지표들은 객관적인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현재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복지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인 지표들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래 제시된 보건 분야, 여성/가족, 청소년 분야 지표들은 모두 객관적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3) 15세 이상 인구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의 수준이 증가, 감소, 동일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장래소득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여 소득관련 정책자료 및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조사되고, 2007년 ~ 2009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참고).

4)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가 생각하는 생활 주변에서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표로 향후 가장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파악하여 사회복지정책 및 연구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조사되고, 2007년 ~ 2009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참고).

[표 8] 통계청 e-나라지표 보건 분야 지표

분류기준	해당 지표
보건일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영아/모성 사망, 의료인력 및 병상수 추이, GDP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뇌사자 장기기증 현황, 헌혈인구 및 개인 헌혈 비율
식품	식품검사 부적합률[국산, 수입]
질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수검률,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만성질환 현황,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수, 암 발생 및 사망 현황, 정신질환 유병률
건강증진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비만도 및 규칙적 중등도 운동실천율, 음주 및 흡연현황
보건산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실적

[표 9] 통계청 e-나라지표 여성/가족, 청소년 분야 지표

분류1	분류2	해당 지표
여성/가족	여성일반	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가족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가족의 형태별 분포, 국제결혼 현황,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한부모 가구 비율, 모자보호시설수 및 생활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및 이용자 현황,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시간량,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보육	보육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장애아전담, 통합시설현황
	양성평등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UNDP 남녀평등지수,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UNDP 여성권한척도
	여성권익	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청소년	청소년일반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청소년보호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대상현황,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약물경험 실태, 청소년 가출실태, 1388 청소년 전화 접수현황
	청소년활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근거로 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도 수혜자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평가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함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한 지표들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통계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조사통계들 속에서는 객관적인 현황을 제시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지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종 조사통계들 내에 있는 주관적 지표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통계자료의 낮은 활용성

현재 복지 분야에서 많은 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기존 통계들에서 추출, 제공하는 지표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 현재 복지 관련 통계지표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은 주로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통계청의 e-나라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이다.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 및 기관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매우 다양하다.

#### ○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 e-나라지표는 지표의 의미, 용어 및 작성기준에 대한 메타 정보 제공, 단순 수치정보 제공을 넘어 분야별 분석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위의 [표 7], [표 8],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지표수도 매우 한계적이다. 복지 분야 지표 28개, 보건 분야 지표 17개, 여성/가족 분야 지표 23개, 청소년 분야 8개 지표로 총 76개에 불과하다. 물론 대표적인 지표들만을 추출하여 제시했다는 점이 고려될 수는 있으나, 한국의 복지 상황, 복지제도 발전 상황을 보여주기에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은 2010년 7월 13일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편하기 이전까지 총 14개의 복지통계, 16개의 보건통계에서 현황 중심의 객관적 지표들만 제시하는데 그쳐 통계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승인통계를 복지 분야 27개, 보건 분야 25개로 재편성하였다. 그러나 각 분야의 통계 DB는 현재 구축 중에 있어 메타정보, 관련 분석내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 통계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주요 100대 지표를 선별 수록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출처, 지표의 의미 등 세부 정보가 없어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

[표 10] 보건복지 100대 지표

분류기준	해당 지표
노인복지	노인인구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노인의 경제 활동참가율,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 노인복지시설수, 정부지원 노인 일자리수, 노인 1인당 진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65세 이상 1인가구, 치매노인수 및 치매유병률, 화장률 추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수급률
아동복지	보육시설수 및 이용아동수, 취약(특수)보육 시설수, 보육료 지원 아동수, 요보호 아동 발생인원, 아동급식대상자수,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수, 입양 아동수 및 국내입양 비율, 학대 피해아동 보호건수, 실종 아동 및 장애인 발생 건수
장애인복지	등록장애인수 및 장애인 출현율, 장애수당 수급자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수 및 입소인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수, 장애인 생활시설수 및 입소인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사회복지 일반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 규모,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건수, 최저생계비, 사회복지시설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 및 일자리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참여율, 기업의 사회공헌 규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 의료급여수급자수 및 수급률, 긴급복지지원 건수 및 지원액, 자활사업 참여자수(복지부+노동부)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	국민연금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수, 국민연금 기금운용액, 건강보험 가입자수,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건강보험료(1인당 월평균), 지역보험료 징수율, 1인당 입내원일수(건강보험), 3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체납률, 건강보험 재정수지(당기수지, 누적수지), 의사상자수
건강상태 및 행태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비, 주요 사망원인, 만성질환 사망률, 암 사망률, 암발생자의 5년 생존율,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비만율(20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 흡연율(19세 이상)
질병·장애	만성질환 유병률(30세 이상), 암 유병률(의사진단 유병률, 30세 이상), 자살자수 및 자살사망률, 마약류 사범수, 결핵 신환자수, 헌혈인구 및 헌혈률, HIV감염인 및 AIDS 환자수, 유병률, 평균 유병일수, 평균 외병일수, 외래 다발생 질환, 입원 다발생 질환
보건의료	의료인 총수 및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수, 병상당 인구수, 의사 1인당 인구수, 치과 의사 1인당 인구수, 의료기관수(의료기관종별), 병상수(의료기관종별), 공공의료기관수, 건강검진율, 암 검진 수진율, 뇌사장기기증자수 및 장기이식 건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국민의료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 국민1인당 의료비 지출, GDP 대비 제약산업 비중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홈페이지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는 현재 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는 자료이다. 앞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경, 재정경제, 국제통계로 구분하여 300여개의 지표들을 수록하여(상세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보고서 형태로 발간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자료마당에 전자파일(엑셀 및 pdf)로 제공되고 있다.

○ 국가통계포털(kosis.kr)

국가통계포털은 가장 많은 복지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복지지표보다는 많은 통계들의 결과값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 11]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복지, 보건, 사회 분야 통계들이다.

[표 11] 국가통계포털 상에서 제공하는 통계들

분류기준		관련 통계
복지	보고통계	경로연금 지급현황, 국내입양현황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등록장애인현황,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 보훈대상자현황, 보훈보상금지급현황,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현황,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상황보고,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 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장애수당수급자현황,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및종사자현황보고, 현충시설현황
	조사통계	국가유공자 등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조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보건	보고통계	건강보험통계,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주요수술통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학생건강검사통계보고, 결핵관리현황,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구강보건사업현황보고, 군병원의래및입원환자현황, 군사망사고현황, 법정전염병발생보고,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성병관리사업실적, 암등록통계, 의료기관실태보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현황
	조사통계	국민체력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영아사망조사, 환자조사, 흡연실태조사
사회	조사통계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조사, 성문화실태조사, 사회조사, 농촌생활지표조사, 생활시간조사,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복지 분야의 경우, 보고통계들은 상당수 지표로 제공되고 있으나 조사통계들은 지표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통계들의 경우 조사통계 설문에 포함된 질문들에 대한 개별 응답결과들이 모두 열거되어 있다. 그 결과, 17개 보고통계와 9개 조사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값들은 총 4,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충분히 지표로 만들어지지 않고 열거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은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유용하다. 따라서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사통계를 토대로 복지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4) 성과 측정 지표의 미비성

기존의 복지지표들은 정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심이고,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는 각 지표들을 성격별로 정책수립 기초, 정책상황 점검, 정책성과 측정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중복 허용)<sup>5)</sup>. 현재 보건복지부에 서 담당하는 43개 지표들을 성격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e-나라지표의 성격별 지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립 기초 관련(3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공적연금 수급률, 국내입양아수 및 입양비율, 노인복지시설 현황, 아동 안전사고 현황, 장애인 현황,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합계출산율 등</li> </ul> </li> <li>○ 정책상황 점검 지표(1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노년부양비, 만성질환 현황,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영아/모성 사망, 의료급여 수급현황 등</li> </ul> </li> <li>○ 정책성과 측정 지표(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노인 취업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실적,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등</li> </ul> </li> </ul>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지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정책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가, 마지막으로 정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복지지표를 가지고 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많은 한계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역시 절대적인 수는 적은 상황이다. 예컨대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 및 다문화 관련 통계의 경우, 고작 '국제결혼 현황' 지표 1개가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관련 지표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정확한 현실 통계지표에 근거한 연구

5) 연구 진행과정에서 통계청에 성격별 지표 구분의 기준과 근거에 대해 문의하였다. 구체적인 구분 근거가 없으며, 조만간 성격별 지표구분체계를 삭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는 성격별 지표구분체계가 삭제된 상황이다.

및 정책 수립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위와 같은 구분이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론적 근거를 가진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어떠한 사회지표를 ‘원인-정책과정-결과’라는 일련의 인과과정에 따른 틀에 꼭 들어맞게 배치하는 것은 어렵고, 어떠한 사회상황을 두고 원인 혹은 결과로 정확히 연결하는 작업이 매우 힘든 작업이긴 하나, 어떠한 이론적 근거 없이 임의로 지표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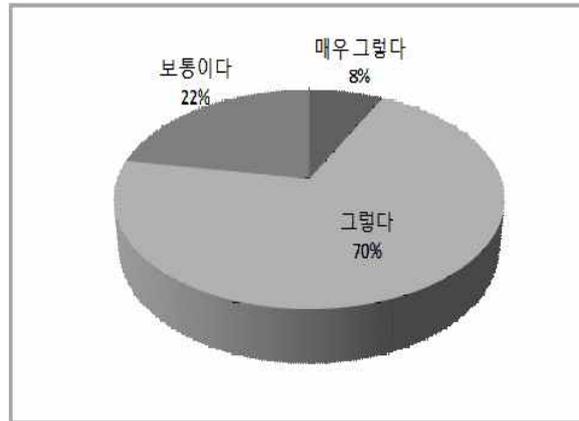
### 3. 복지정책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이 연구는 새로운 복지 지표 체계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현행 복지통계 및 지표의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지표체계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고민하면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의 기존 복지통계 및 지표에 대한 평가, 신규 개발되어야 하는 복지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보건복지부의 각 과에서 통계지표에 가장 업무 관련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 정책담당관실을 통해 각 과에 설문지를 보낸 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애초에 e-mail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회신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여 직접 설문지를 보내고 수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총 25개 부서 26명의 담당자가 응답하였다.

먼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 지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통계연보와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보건지표들 중, 보건복지부 각 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지표들(부록 3 참조)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현재 지표들의 대표성, 이용자 접근성, 업무 활용도,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질문하였다.

#### 1) 지표의 대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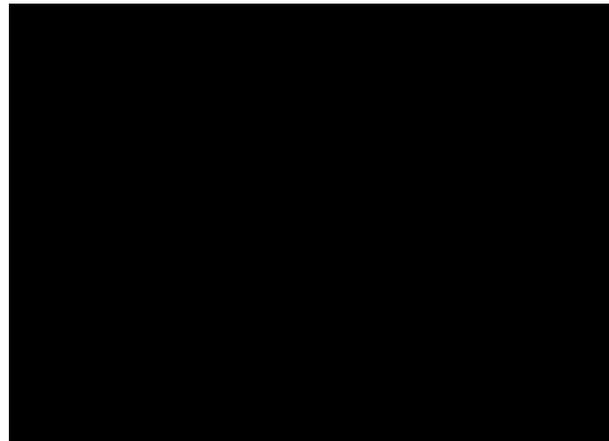
먼저, 보건복지통계연보와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이 한국의 복지현황을 대표성 있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응답자 중 8%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고, 70%가 ‘그렇다’고 대답해 78%의 응답자가 현 지표의 대표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나머지 22%, 대표성이 높지 않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보건복지부 각 과의 지표 담당자들의 자체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현재 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응답 결과

### 2) 지표의 이용자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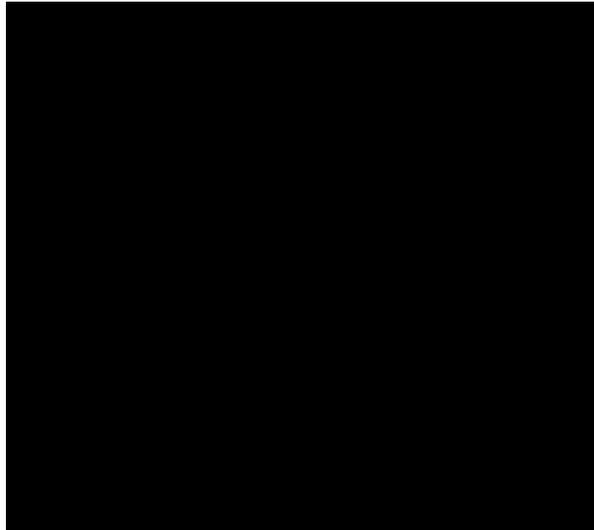
다음으로, 보건복지통계연보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e나라지표들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없었다.



[그림 2] 현재 지표의 이용자 접근성에 대한 응답 결과

### 3) 지표의 업무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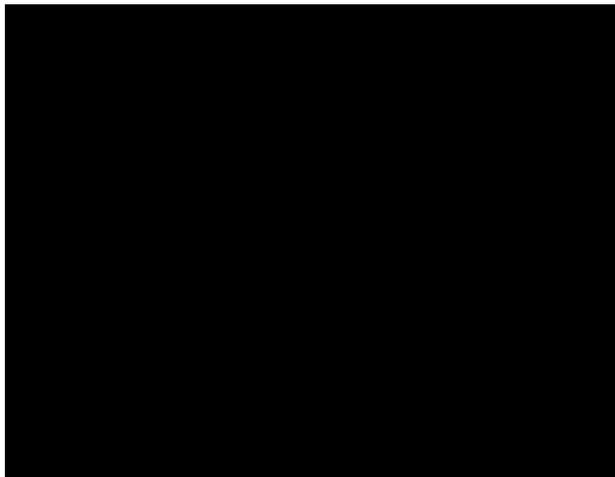
설문지와 함께 제공된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표들이 실제 업무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림 3]과 같이 응답자들의 74%가 업무 활용도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15%는 업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답했다. 나머지 26%의 응답자들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업무 활용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다.



[그림 3] 현재 지표의 업무 활용도에 대한 응답 결과

#### 4) 지표의 정책 연계성

각 부서 소관의 지표들이 정책과 충분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림 4]와 같이 81%의 응답자가 현재 지표의 정책 연계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설문 결과 드러났다. 나머지 19%의 응답은 현재 지표의 정책 연계성이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차지했으며 정책 연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없었다.



[그림 4] 현재 지표의 정책 연계성에 대한 응답 결과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통계, 지표 담당자들은 현행 지표들의 대표성, 이용자 접근성, 업무 활용도,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표 분류 체계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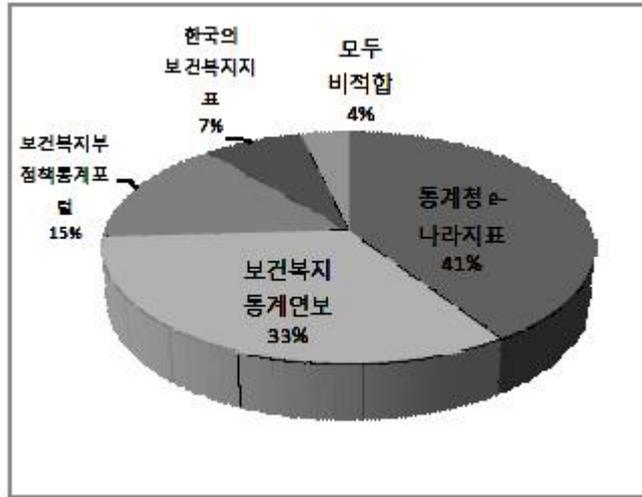
다음으로 복지지표 체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현행 복지지표 분류체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의 정책통계포털<sup>6)</sup>,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보건복지지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표 분류 방식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표 13] 제공출처별 복지지표 분류체계

제공출처	분류기준
보건복지통계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인력및시설,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경, 재정 경제, 국제통계</li> </ul>
보건복지부 정책통계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일반, 보건, 보험, 기초생활·장애, 가족·보육, 아동·청소년, 노인</li> </ul>
통계청 e-나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 일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연금/건강보험, 저출산/고령화</li> </ul> </li> <li>보건 - 보건일반, 식품, 질병, 건강증진, 보건산업</li> <li>여성/가족 - 여성일반, 가족, 보육, 양성평등, 여성권익</li> <li>청소년 - 청소년일반, 청소년보호, 청소년활동</li> </ul>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자복지, 아동복지, 기타</li> </ul> </li> <li>공적부조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국가보훈</li> <li>사회보험 -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li> <li>보건복지재정 - 보건복지예산, 국민의료비</li> </ul>

조사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은 [그림 5]와 같이 통계청의 e나라지표의 분류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 가운데서 4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3%의 응답자들이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지표 분류방식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통계포털과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보건복지지표가 각각 15%와 7%로 적합하다고 답했다. 4%는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6) 이 분류들은 2010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을 개편하기 이전, 부서별 통계의 분류체계이다. 예산·일반, 보건, 보험, 기초생활·장애, 가족·보육, 아동·청소년, 노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부서별 통계를 손쉽게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게시판 형식으로 복지통계 문서들을 게시해두고 있다. 주로 업무참고자료, 설명자료, 백서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그림 5] 지표 분류 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

각 지표분류체계가 적합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아래의 [표 1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4] 지표 분류 체계가 적합하다고 평가한 이유

지표 제공 출처	지표 분류 적합성 판단 이유
통계청 e나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편리성 높음</li> <li>•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과의 일치성</li> <li>• 세분화 수준이 높음</li> <li>• 신규 지표 개발 용이</li> <li>• 이해하기 쉬움</li> </ul>
보건복지통계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과의 일치성</li> <li>• 매년 다양한 지표 업데이트</li> <li>• 포괄성이 높음</li> <li>• 이용자 편리성</li> <li>• 업무활용도 높음</li> </ul>
보건복지부 정책통계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활용도 높음</li> <li>• 이용상 편이성</li> </ul>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개념과의 적합성</li> <li>• 분류 수준간의 체계성이 높음</li> </ul>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표의 분류 체계가 적합하다고 선택한 통계청의 e나라지표의 경우 이용자 편리성,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과의 일치성, 지표의 높은 세분화 수준, 신규 지표 개발의 용이성, 지표 체계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 선택이유로 나왔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과의 일치성, 정기적 업데이트, 넓은 포괄성, 이용자 편리성, 업무활동도가 높다는 점 등이 지표 분류의 적합성 이유로 나타났다.<sup>7)</sup>

#### 4. 복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복지지표를 생산, 관리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실제 복지통계와 지표들을 연구에 활용하는 복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복지지표의 접근성과 활용도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복지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복지통계 및 지표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복지통계 혹은 지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복지통계 관련 수요를 묻는 조사를 통해 현재 복지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방식의 자문은 2010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정신보건, 의료, 빈곤, 사회보장, 사회지표 등 각 복지 영역의 전문가 15명의 전문가들이 응하였다.

복지 전문가들이 연구, 강의를 수행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복지지표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들은 통계청 e-나라지표와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연보를 골고루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선호가 달랐다. e-나라지표를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연구자들의 경우, 지표 검색의 용이함과 높은 접근성, 활용도를 그 이유로 꼽았다. 용어 정리나 지표와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 역시 e-나라지표의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가 사용하기에는 지표의 양적·질적 충분성이 낮아 주로 연구나 강의에 필요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별·연령별 등의 지표 분류기준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기 불편하고, 국가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표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국가통계포털의 경우,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연구자들은 최근 개편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고, 비교적 많은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연구자들은 그 이유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산발적인 나열식으로 지표를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로 서베이(survey)를 통해 나타난 결과값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조사별로 중복되는 지표들도 있고 대표성이 낮은 지표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고 지적하였다.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활용도나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것에 비해 취약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리고 각 연구기관이나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월별 최신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반면, 보건복지연보는 1년을 단위로 발간되어 발간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다.

7) 통계청 e-나라지표와 보건복지부 정책통계포털의 경우,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편리하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보건복지통계연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보건복지지표의 경우, 보고서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공되어 쉽게 볼 수 있는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그렇지 않아 그 분류체계가 익숙하지 않아 이런 응답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앞서 기존의 복지통계지표 체계를 검토하면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전문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런 한계로 인해 복지 전문가들은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서베이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하여 직접 필요한 지표 값을 계산하거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연금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나 공단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혹은 연구논문에서 수록되어 있는 산출 통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비교통계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직접 OECD, EU, ILO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지표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지적했듯이, 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정확하고 다양한 지표를 생성하는 것, 국가비교가 가능한 다양한 지표를 생성하는 것,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의 복지지표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제3장 국외 복지통계지표 체계 검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복지지표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단일국가 내의 흐름과 국제적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흐름은 1960년대부터 서구에서 진행되어 왔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회지표'는 한국의 복지지표 구성에도 큰 영향을 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통계 분석틀이나 사회지표 분석틀 중 사회현상의 인과관계를 보여주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도 발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복지지표와 관련된 다양한 흐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복지지표 개발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논의 및 사용되고 있는 복지통계 중 비교 가능한 통계로서 OECD와 유럽연합에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사회지표들을 주목하여 검토할 것이다. 여타 국제기구에 비해서 OECD는 사회/복지통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비교 가능한 복지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정책 친화적이면서 비교 가능한 사회적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연금이나 보건 등 복지정책 관련 지표들은 각 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서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대상으로 유럽 국가들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비교 가능한 복지통계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 유럽연합과 함께 스웨덴, 호주, 일본의 복지통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스웨덴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 복지국가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복지통계 구축에서 선진적인 국가라고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선진적인 복지통계지표 체계뿐만 아니라, 이주 관련 지표 등 다양한 신규 복지지표 개발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호주는 통계청 주도 하에 '웰빙(well-being)' 개념으로 한 국가의 사회지표를 재정립하고 발전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를 한 국가이다. 인구, 가족, 보건, 근로,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포함하고자 시도하였다. '복지'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보고 지표 구성을 시도하는 틀이라 본 연구의 분석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복지통계 분류기준이나 신규지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일본의 경우, OECD 국가 중 한국과 가장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앞서 경험한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복지통계는 한국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1. 초기 사회지표 연구

1960년대에 경제중심의 정책 및 통계지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1970년대에는 다양하고 심도 깊은 사회지표가 연구를 통하여 제안되었다. Noll(1996)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프로그램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감당했으며, 결과적으로 '복지(welfare)'를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agenda)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지속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출판물들이 다량 생산되었다. Sheldon과 Freeman(1970:97)은 이러한 사회지표 연구들을 '새로운 운동(a new social movement)'이라고 일컫기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당연히 등치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Parke and Seidman, 1978:1).

초기 연구들은 사회지표의 목적을 '사회변화를 감시하는 것'과 '복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Noll, 1996). 실제로 이러한 두 목적에 따라서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는 사회지표를 구성하였지만, 모든 국가가 같은 사회지표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UN(1975)은 사회지표에 대한 보고서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수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서 사회지표도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륙유럽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자원적(resource) 개념을 사용하고 발전시켜온 데 반하여 미국은 주관적 안녕이나 삶의 질 등을 핵심 개념으로 발전시켜왔다(Noll, 2002).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지표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계제도가 각국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전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70년도에, 프랑스는 1973년도에, 네덜란드는 1974년도에 각각 이러한 사회지표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제기구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World Bank가 1978년에 그리고 OECD는 1986년도에 정식으로 이를 도입하였다. 다음의 [표 15]은 UN이 1978년에 제시한 사회지표 분류체계와 각 국의 분류체계와의 유사성을 잘 보여준다.

[표 15] UN과 각국의 사회지표 분류체계

UN (1978)	노르웨이	독일	대만
인구	인구	인구	인구
가족 구성, 가족 및 가구	-	-	가족
학습 및 교육 서비스	교육	교육	교육 및 연구
소득활동 및 소득활동	고용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	고용
소득, 소비 및 재산 분포	소득 및 소비	소득 및 소비 분포 / 소비 및 공급	소득 및 지출
사회 보장 및 사회 서비스	돌봄	복지 측정	사회 보장
건강, 의료 서비스 및 영양	건강	건강	건강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	주거	주거 및 생활환경
공공 질서 및 안전	범죄	공공 안전 및 범죄	공공 안전
시간 사용	-	-	-
여가 및 문화	여가 시간 및 문화 참여	여가 및 대중매체 이용	문화 및 여가
사회 계층 및 사회 이동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관적 계급 인식	-
-	사회 참여	참여	사회 참여
-	-	교통 / 환경	교통

출처: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이희길·심수진, 2009), 저자 재구성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80년대 초반 이래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Cobb와 Rixford(1998:11)는 1970년대에 나타난 서구의 경제위기, 보수주의 이념의 강화, 그리고 경제 이론에 비교될 만한 사회지표에 대한 이론적 분석들의 부재, 규범적 판단에 대한 일치된 방법의 부재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경제위기나 보수주의의 등장은 영미권을 위시한 서구국가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들의 부족은 중요한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맥락, 원인, 혹은 효과 등에 대한 구분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 앞선 표에서 보았던 범주의 구분 역시 특정한 분석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회지표는 기술적(descriptive) 차원에 머물렀으며, 정책의 효과나 어떠한 것이 정책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좋고 혹은 나쁘가'(Sheldon and Freeman, 1970)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지표의 등장은 다차원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였으나 그 한계도 분명히 드러내었다.

## 2. 웰빙(well-being) 분석틀

1980년대와 90년대는 사회지표나 복지지표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든 시기로 분류가 된다. 반면 최근에 들어서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60년대와 유사하게 경제지표에 대한 대안적 지표 및 분석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비록 1990년에 UNDP의 인간

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같이 대안적 지표들이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경제성장은 정부와 각국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La Porta et al, 1999).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행복이나 삶의 질, 혹은 웰빙과 같은 지표들이 연구되고 제안되어왔다. Osberg and Sharpe(2001)의 'Index of Economic Well-being',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삶의 질 지표<sup>8)</sup>, 그리고 'World Database of Happiness'<sup>9)</sup> 등의 발전은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해준다. 이에 더하여, 2008년 프랑스 정부는 'The Stiglitz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를 설치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대안적 지표를 모색하게 하였다. 특히, 생산보다 웰빙이 중요하다는 기조아래 이 위원회는 활동하였으며, 웰빙의 개념과 분석틀에 대한 보고서를 생산하였다. Stiglitz(2009)는 이러한 흐름이 경제성장 지표와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느껴지는 상당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웰빙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사회지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건강, 교육, 관계, 근로 등 이미 사회지표에서 다루었던 영역들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 접근에서는 보다 이론에 기반한 체계적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웰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한 국가의 웰빙 수준을 비교적 관점에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반면 일부 연구들은 한 국가 내 웰빙의 총합을 넘어 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집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후자의 연구들 중 두 분석틀을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 1) Noll의 유럽 사회지표 분석틀

첫 번째는 Noll(2002)의 유럽차원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이론에 충실히 기반을 둔과 동시에 방법론적으로 효과적인 분석틀을 유럽의 정책결정가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복지, 사회적 응집, 삶의 질, 그리고 사회의 질 등의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사회지표의 목적과 두 차원의 웰빙을 기준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 개념적 웰빙 분석틀에 전통적인 사회지표를 결합하여 인구영역부터 공공안전 및 범죄 영역까지 14가지의 삶의 영역을 동시에 지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가지 삶의 영역에는 다음의 영역들이 포함된다(표 17).

8) [http://www.economist.com/media/pdf/quality\\_of\\_life.pdf](http://www.economist.com/media/pdf/quality_of_life.pdf)

9) <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표 16] Noll(2002)의 사회지표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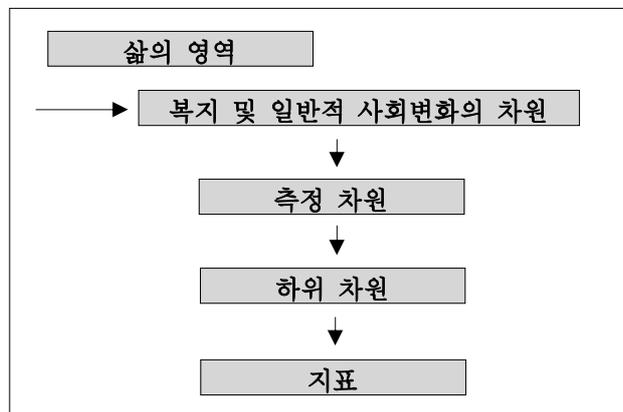
	복지 측정	사회변화
개인 수준	<b>삶의 질</b> - 생활 조건 - 안녕	<b>가치와 태도</b> - 탈물질주의 - 젠더 역할 - 정당 선호도 등
사회 수준	<b>사회의 질</b> <b>지속성</b> -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보호 <b>사회통합</b> - 불균형, 불평등, 배제의 감소 - 결속 강화	<b>사회 구조</b> - 인구학적 - 사회계급 - 고용 등

출처: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Noll, 2002)

[표 17] 웰빙 분석틀에 포함된 14개 삶의 영역

○ 인구	○ 노동시장과 노동조건
○ 가구와 가족	○ 소득, 생활수준, 소비행태
○ 주거	○ 건강
○ 교통	○ 환경
○ 여가, 미디어, 문화	○ 사회보장
○ 사회적, 정치적 참여와 통합	○ 공공 안전과 범죄
○ 교육과 직업훈련	○ 전체 생활 형편(Total Life Situation)

또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아래의 [그림 6]과 같이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 가는 다섯 단계(1) 삶의 영역(life domain) → 2) 목적 차원(goal dimension) → 3) 측정 차원(measurement dimension) → 4) 하위차원(sub-dimension) → 5) 지수 (indicators))를 설정하였다(Noll, 2002).



[그림 6] 웰빙 지표 도출을 위한 5단계

예를 들어 삶의 영역이 '노동시장'이라면, 그 아래 7개의 목적차원이 있으며, 각각의 목적차원에는 5개의 측정차원이 존재하고, 각 측정차원에는 2-4개의 하위 차원이, 각 하위차원에는 다양한 수의 지표들이 존재하게 된다. [표 18]은 '노동시장과 노동조건' 삶의 영역의 목표차원과 측정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표 18] 삶의 영역에 대한 목표차원과 측정차원 : 노동시장과 노동조건

삶의 영역 : 노동 시장과 노동 조건	
목표 차원	측정 차원
객관적 생활 조건의 개선	- 노동시장 : 기회와 위험 - 고용 수준 - 노동 조건 - 이동성 - 실업
주관적 안녕의 강화	- 개인적 고용 상황의 평가
불균형과 불평등의 감소	- 고용 기회의 지역적 불균형 - 고용 기회의 성 불평등 -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의 불평등 - 사회적 배제 : 장기간 실업
사회적 연결과 결속의 강화 - 사회적 자본	- 의사결정에서 노동자의 참여 - 노동조합과 전문조직 - 유럽의 특정 관심사 - 이주 노동자의 교환
인적 자본의 보호	- 산업 재해와 직업병 - 추가 훈련 조치
자연 자본의 보호	- 경제에 의한 천연 자원의 소비 - 경제에 의한 환경 오염
사회 구조 사회경제적 구조 가치와 태도	- 실업 상태 - 직업 구조 - 부문 구조 - 노동 지향(orientation)

7가지 목표차원들 중에서 '객관적 생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선택하고, 이것의 5가지 측정 차원별 하위 차원을 아래의 [표 19]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표 19] 객관적 생활 조건의 향상 목표차원과 관련된 측정차원과 하위차원

측정 차원	하위 차원
노동시장: 기회와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기회</li> <li>• 실업 위협</li> </ul>
고용: 잠재성과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의 잠재성</li> <li>• 노동력 참여</li> <li>• 고용 수준</li> </ul>
노동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시간</li> <li>• 소득</li> <li>• 노동 환경과 직업 만족도</li> </ul>
이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평적 직업 이동성</li> <li>• 승진 기회</li> <li>• 직업 관련 지리적 이동성</li> </ul>
실업과 불완전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 수준</li> <li>• 실업 기간</li> <li>• 실업자의 생계</li> <li>• 실업 수준</li> </ul>

출처: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Noll, 2002)

5가지 측정 차원들 중에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라는 측정차원을 선택하고, 이것의 4가지 하위차원별 지표들은 아래의 [표 2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0] 실업과 불안정 고용 측정차원과 관련된 하위차원과 지표

측정 차원	하위 차원	지표
실업과 불안정 고용	실업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실업률</li> <li>- 총 청년 실업률</li> <li>- 노동가능인구의 총 실업률</li> <li>- 구직자(Persons seeking employment)</li> <li>- 비실망 실업자(Persons willing to work)</li> <li>- 노동력이 현재 없는 실망 실업자</li> </ul>
	실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 평균 기간</li> <li>- 장기 실업</li> <li>- 단기 실업</li> </ul>
	실업자 생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대체율</li> </ul>
	불안정 고용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시간 증가의 선호</li> <li>-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li> <li>- 단기간 노동자</li> <li>- 보이는/보이지 않는 불안정 고용</li> </ul>

출처: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Noll,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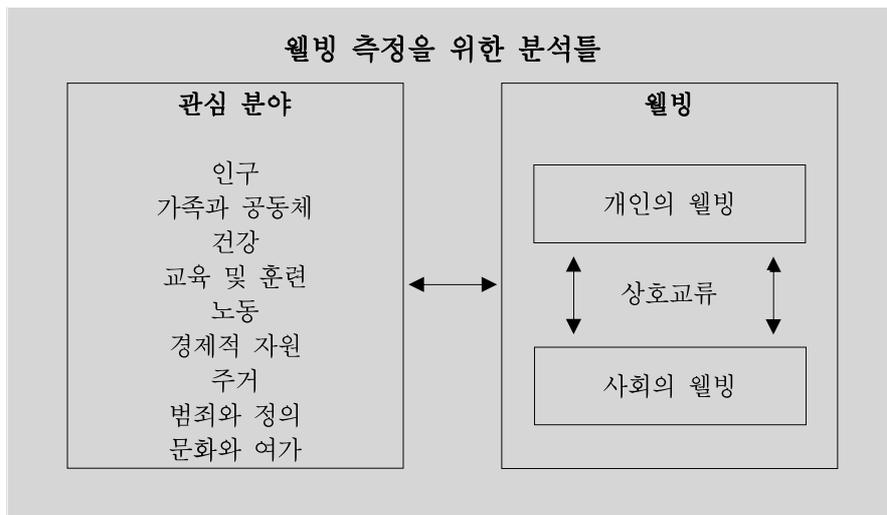
Noll(2002)의 연구는 이론에 충실히 기반하고 있고 각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있다는 장점이 있고, 각 개념에 대한 5단계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표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지난 1세대 사회지표 연구들의 일부 단점을 보완하고 일국의 복지지표 설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들도 동시에 발견된다. 첫째, 인구영역으로 시작하는 삶의 영역은 여전히 사회현상에 대한 인과 관계적 접근을 가능하지 않게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맥락, 원인, 결과가 혼재된 분석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각각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위의 표를 중심으로 분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삶의 영역 중 하나인 '소득과 소비'의 경우 개인수준/사회수준의 웰빙, 그리고 복지측정이나 사회적 변화에 잘 맞추어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영역 중 인구, 가구 등은 사회적 변화에는 적당하나 복지측정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보장과 같은 영역은 복지측정에는 적당하나 사회적 변화에는 적당한 하위차원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의 분석틀이 각 삶의 영역을 분해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틀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 2) 호주의 웰빙 분석틀

두 번째 분석틀은 호주 정부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는 웰빙 분석틀이다. 이 분석틀은 웰빙이라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사회지표를 재정립하고 발전시키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이다. 이 분석틀은 Noll(2002)과 같이 인구, 가족, 보건, 근로, 교육 등 기존의 사회지표 틀의 영역을 그대로 가져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ABS, 2001). 또한 개인의 웰빙과 사회의 웰빙을 Noll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인과 사회 사이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핵심적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림 7] 호주 통계청이 구상한 well-being 측정을 위한 단순화된 분석틀

하지만 NoII이 14개 삶의 영역을 다섯 차원으로 구분하여 지수화를 시도한 것과 달리 호주정부의 분석틀은 9개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다른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9개의 삶의 영역은 인구, 가족과 공동체, 건강, 교육·훈련, 노동, 경제적 자원, 주거, 범죄와 정의, 문화와 여가이다. 전체 분석틀과 함께 9개의 분석틀이 각 영역의 주요개념과 사회적 이슈, 그리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각 영역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ABS(2001:4)는 적절한 사회지표를 선정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정부에게 사회적 이슈를 알리고 특정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를 정부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복잡하고 다양한 분석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실제로 호주 통계청은 'Australia Social Trend'를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있지만, 본 분석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통계는 아직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 3) 평가

위의 두 분석틀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대한 총체적인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Stiglitz(2009)가 언급한 바와 같이 웰빙은 경제 영역부터 사회-정치적 영역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개인과 사회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정책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두 접근이 국가의 복지지표로 차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형과 분석틀의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EU 사회보호위원회의 접근

OECD를 제외하고 복지관련 통계에 주목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적 이슈에 높은 비중의 관심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유럽의 공통된 사회지표에 관해서 학문적 프로젝트 및 자체 사회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의 노력이 진행되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서 결과물이 발표되었다. 이 지표 개발의 목표는 현 유럽의 사회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중심(problem-oriented)의 사회지표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Kraus, 2009).

이미 Eurostat을 통하여 일부 비교 가능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노동시장 관련지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복지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심층적인 지표들은 부재한 상태이다(Noll, 2002). 이에 사회보호위원회에서는 2006년 사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공통지표들과 분석틀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2008년에 수정 보완되었다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8). 이 지표들의 목표는 공통지표들을 개발하여 각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이 상호 좋은 정책들을 배우고 공통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2006년에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연금, 보건, 그리고 장기요양에 대한 지표들을 일차로 발표하였으며, 2008년에는 유럽연합 개국의 동의를 얻은 일부 항목에 대해 완성된 지수들을 발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8). 이 분석틀은 1) 14개의 사회정책의 일반적 목표들을 반영한 지표들, 2) 일반적 맥락 정보, 3) 사회통합, 4) 연금, 5) 보건과 장기요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회적 포용, 연금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는 일차지표와 이차지표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종합적인 맥락변수 외에 별도의 맥락변수를 제시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부록 5 참조).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의 수는 보건의 맥락변수인데 반해 소득불평등은 사회통합의 맥락변수이다. OECD의 경우 이 맥락변수는 맥락변수와 사회적 상황 변수로 구분한 반면 여기서는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분석틀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는 비록 제한된 정책 영역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지표들이 연령, 성,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더 구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연금은 다시 급여의 충분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현대화된 연금으로 나뉘고, 보건정책은 접근성, 서비스의 질,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으로 나뉘어 지표들이 제시되어져 있다. OECD와 달리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강조가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재정적 상황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고용률이나 인구구조 등의 노동시장과 인구학적인 변수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석틀은 사회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정책들을 이해하기에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초점이 가 있으며, 한 정책 내의 지표구성은 잘 발전된 반면 대영역의 구분에 대한 정당성이 거의 설명되어있지 않은 단점을 보이고 있다.

#### 4. OECD의 사회지표 체계

OECD는 사회지표를 시작한 선구적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1973년 OECD는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라는 사회지표의 원형적 형태를 발표하였다. 이 지표 분석들은 일반 사회적 지표와 같이 보건, 개인개발, 고용, 여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Christian, 1974). 이 지표들은 OECD Council에 따라서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로 재구성되게 된다(Berger-Schmitt and Jankowitsch, 1999). 하지만, 이 지표들은 앞서 언급한 사회지표들의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고, 이를 시정하고 새로운 분석들을 제시한 것은 2001년 ‘Society at a Glance’를 출판하면서부터이다.

2001년의 분석들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분석들에 비해서 장점을 가진다. 첫째, 삶의 영역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 출발하지 않고, ‘PSR(Pressure - State - Response)’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OECD, 2001, 2009). 이 모델은 OECD 환경부나 과학부처 등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모델로서 정책환경의 맥락과 지출을 포함한 투입,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모델이다. 환경정책의 경우 PSR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는 자연적 자원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tate); 사회는 환경적, 경제적, 여타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고, 또한 인지와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반응한다(societal response). PSR 모델은 이러한 고리들을 강조하는 데에 장점을 가지고, 정책결정가들과 국민들이 환경과 다른 이슈들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돕는 데 장점을 가진다” (OECD, 2001:9).*

위의 모델과 장점은 사회정책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맥락,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결과들을 분리해서 보여주면서 사회적 변화와 복지측정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sup>10)</sup>. ‘PSR’은 새로운 사회지표에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그리고 사회적 반응(Societal response)으로 재구성되었다.

사회적 맥락은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주지 않은 사회적 변수들이나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는 조건들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10) OECD(2001)는 ‘Society at a Glance’의 첫 출판물에서 사회지표의 목적을 사회발전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성과를 변화시키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효과적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황은 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회적 상황을 일컬으며 빈곤과 같은 지표가 이에 속한다. 사회적 반응은 정부를 대표로 하는 사회가 하는 대응과 노력을 일컬으며, 복지지출과 같은 지표들이 이에 속할 수 있다(표 21 참조).

[표 21] OECD가 제시한 사회지표 틀

정책목표	자립 측면 <i>Self-sufficiency</i>	형평성 측면 <i>Equity</i>	건강 측면 <i>Health</i>	사회응집 측면 <i>Social cohesion</i>
사회적 맥락 <i>Social Context</i>				
사회적 상황 <i>Social status</i>				
사회적 반응 <i>Social responses</i>				

출처 :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사회지표의 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OECD, 2009 : 52-53).

○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 지표

정책적 목표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정책이 놓인 전반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체 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정책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보건, 조세, 연금 등의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특성을 살핌에 있어 의미가 있다.

○ 사회적 상황 *social status* 지표

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회적 상황을 일컬으며, 정책을 통해 영향을 주고자 하는 한 사회의 성과와 관련한 것이다. 빈곤 관련 지표가 대표적이다.

○ 사회적 반응 *social response* 지표

정부를 대표로 사회가 하는 대응과 노력을 일컬으며, 한 사회가 사회적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지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비정부기구, 가족 및 광범한 시민 사회의 역할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적 상황지표와 반응지표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정책의 효과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지표가 이상의 3개의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는 하나, 맥락지표와 현황지표가 언제나

항상 분명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은 프랑스처럼 출산증가를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그 자체로 정책적 목적을 뜻할 수 있다. 한편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 출산율은 공공정책과 관련한 하나의 사회적 맥락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붕괴는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정책의 실패로서 간주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정책적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OECD, 2009: 53).

이와 함께 또 다른 장점은 분석틀의 다른 축에서 찾을 수 있다. PSR이 한 축을 이루고 다른 한 축은 사회정책의 네 가지 목표와 관련된다. 네 가지 목표는 자립, 형평성, 건강, 그리고 사회응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간략하게 각각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OECD, 2001:13-7 참조).

○ 자립 *self-sufficiency*

사회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목표이다. 예를 들자면, OECD 사회보건정책 장관회의에서 자립은 정책의 가장 독보적인 목표로 간주되었다([www.oecd.org/socmin2005](http://www.oecd.org/socmin2005)). 자립은 국민에 의한 활발한 사회적 경제적 참여와 일상 활동 영역에서 구성원의 자발성을 보장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 형평성 *equity*

사회정책의 또 다른 장기 목표 중에 하나다. 형평성의 달성은 개인과 가족의 자원에 대한 접근의 정도를 중심으로 측정할 수 있다.

○ 건강 *health status*

보건체계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의 광범한 의지가 요구된다. 즉, 건강을 사회정책의 중심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 사회응집 *social cohesion*

중중 사회정책의 가장 근본적 목표로 간주된다. 사회응집에 대한 정의는 비록 다양하지만, 다양한 범위의 현상이 사회응집의 결핍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사회응집은 구성원이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가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자립(*self-sufficiency*)이 최근 서구국가들과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사회정책의 중요한 개념이라면, 형평성과 보건, 사회응집은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제도만을 중심으로 나열하는 분석틀을 넘어 각각의 정

책적 목표가 사회적 맥락, 상황, 그리고 대응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줌으로서 존재하는 정책의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의 제안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틀을 받아들이기 전에 몇 가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이 분석틀은 한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틀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수의 양적인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OECD는 이러한 문제점이 1) OECD 국가들 모두 비교 가능한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2) 인력이나 자원의 부족으로 더 이상 구체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밝혔다(OECD, 2010).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지표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 모델은 유효성을 가진다.

둘째, 보건의 경우 자립이나 형평성 등과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개념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OECD(2010)는 이러한 문제점이 분석틀의 개발단계에서 논의가 있었고, 'Health at a Glance'를 통하여 구체적인 보건관련 지표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사회정책에서 보건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다른 정책목표 하부에서 보건의 다루어지는 것 보다는 개별적인 목표로 다루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부분과 복지부분이 분리되어있고, 실제로 복지통계에서 보건부분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힘들다는 점, 반면 보건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은 OECD와 유사하다고 보여 진다.

셋째, 사회응집은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OECD(2001)에서도 사회적 배제부터 사회정치적 참여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밝히면서도 '개념의 불명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지표들이 어떤 목표 아래 놓여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OECD(2010)는 이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석틀에서 지수들을 배분할 때 '모호성'과 '중복성'이라는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틀은 최근 사회정책 논의에서 핵심적 이슈 중 하나인 정책의 재정적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단점이 있다. 연금이나 보건정책에서 비용과 관련된 이슈들은 거의 모든 복지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위의 분석틀 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는 주로 OECD, EU와 같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논의된 사회지표 체계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5절, 6절,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스웨덴, 호주, 일본과 같은 개별 국가들이 복지와 관련된 통계, 지표들을 생산, 관리하는 체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5. 스웨덴의 사회지표 체계

먼저 스웨덴의 통계 및 지표 생산체계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분산형 통계생산체계<sup>11)</sup>를 갖고 있다. 공식적으로 스웨덴은 1994년 7월 1일부터 중앙 통계청(Statistics Sweden)에서 생산되던 통계의 상당부분을 관련부처로 이전함으로써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하였다. 통계개혁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와 더욱 관련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시스템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 통계생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25개 정부 기관들은 공식 통계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스웨덴 통계청은 다양한 분야의 통계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공식통계의 조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 이후 전체 약 300여개의 통계생산 중 통계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약 115개이며, 나머지는 각 부처들이 주도하고 있다. 각 부처는 자신이 직접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외주를 줄 수도 있게 되었지만, 다시 통계청에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undholm 2004).

분산형 제도의 도입 이후에 통계청과 타부처간에 조정(coordination)에 일부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서 2001년 공식통계위원회(The Council for Official Statistics)를 도입하여 조정역할을 하게 하였다(Lundholm 2004, 스웨덴 통계청 홈페이지). 하지만 다수의 스웨덴 통계청 문서에서 발견되는 주된 관심사는 통계의 품질(quality)을 높이는 것이다(Elvers 2005). 공식통계위원회는 통계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관련 부처 중 일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매년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4개의 하부 위원회(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이들을 통해서 핵심쟁점에 대해서 토론 및 보고서를 펴내게 하고 있다(Lundholm 2004).

복지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세 정부부처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에 관련통계를 주로 생산하는 보건복지국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사회보험 통계를 생산하는 스웨덴 사회보험청(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그리고 연금에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는 스웨덴 연금청(Swedish Pension Agency)이 책임부처이다. 일반 인구나 생활조건(living condition)에 대한 통계는 여전히 중앙 통계청에서 책임지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국가위원회는 13종의 통계를, 스웨덴사회보험청은 18개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인구 관련 4종의 통계 그리고 생활조건과 관련하여 2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Lundholm 2004).

통계지표의 생산은 각 부처들이 책임지고 있으나, 통계지표의 제공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cb.s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 통계의 체계는 통계치, 통계생산, 메타데이터, 생산체계, 최종 등록, 발간, 독립된 표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통계체계는 통

11) 통계생산제도는 크게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나누어지고, 집중형의 경우 중앙통계청을 중심으로 통계가 생산되는 형태이며 분산형의 경우 각 정부부처에서 생산된 통계가 중앙을 통해 조정되는 형태라고 표현될 수 있음. 현재까지 국내에서 스웨덴은 집중형 통계제도, 일본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등). 하지만 스웨덴은 1994년 제도 개혁을 통해 통계생산 책임을 여러 부처로 분산하였다.

계에 대한 법이나 법령, 규칙, 일반 권고, 가이드 라인, 관련 문서들, (방법과 분류 등과 같이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 등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통계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2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농업·임업·어업, 기업 활동(business activities), 문화와 여가, 민주주의, 교육·연구, 에너지, 환경, 금융시장, 보건·의료서비스, 가구경제, 주택·건설, 정보기술, 재판제도(judicial system), 노동시장, 생활조건(living condition),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인구, 가격·소비, 국가재정(public finance),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무역, 교통·통신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은 복지제도와 관련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인구, 가구경제, 생활조건, 노동시장, 교육·연구 등도 관련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OECD의 사회지표 분석틀과 연결해 보자면,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과 관련된 지표들은 인구, 가구경제, 생활조건, 노동시장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과 관련된 지표들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연구, 노동시장 등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의 대부분을 국가의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복지선진국답게 사회적 반응과 관련된 지표들은 사회보장 제도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건강·의료서비스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교육·연구에는 보육(daycare)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공공보육·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스웨덴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1996년 공보육의 책임을 보건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1세부터 12세까지의 모든 아동들에게 공공 보육 혹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민간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entitlement)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홍승아 외, 2008).

[표 22] 스웨덴 복지 관련 지표분류 체계

분류 1	분류 2
사회 보험	지원 수당, 생활보조비 지급, 부모 보험, 연금, 연금 시스템, 상병 급여 간병 급여, 비경제활동인구 지원, 장애 수당
사회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 부조, 약물 남용 케어, 가족법, 가족 상담, 노인 돌봄 및 서비스, 장애인 돌봄
건강 및 의료	사망 원인, 건강 및 질병, 건강보험 및 의료 서비스
인구	인구, 주택 총조사, 인구 변동, 인구 추계
가계	가계, 소득, 가구 생활비, 세금재산, 자산 득실
생활 조건	일반 통계, 성 통계, 복지, 통합, 시간 사용
노동 시장	노동, 총임금, 장애인, 노동 시간, 산업 재해, 상병 급여, 결원, 실업, 급여, 노동 환경
교육 및 연구	성인, 교육, 연구, 학교 시스템, 주간 보호, 학비 지원, 노동 공급 및 채용 요구, 노동시장 진입, 경향 및 예측, 교육 지출

출처 : 스웨덴 통계청 홈페이지

스웨덴 통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성별, 연령별, 출생지별, 연도별·월별, 지역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성별, 지역별로 구분된 통계가 부족하여 그 필요성과 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출생지(national background) 기준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 출신인지는 명시하지는 않고 다만 스웨덴 출생인지(born in Sweden), 다른 국가 출생인지(born abroad)를 구분하여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민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가진 스웨덴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이민자를 중요하게 고려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노동 등으로 해외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이와 함께 해외 유출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인구(population)’ 부문 지표에서 이민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출생, 사망통계와 함께 이민유입(immigrant)과 이민송출(emigrant) 관련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통계는 인구크기, 평균연령, 인구밀도, 외국인(foreign-born persons), 외국 시민권자(foreign citizens), 출생아수, 사망자수, 이민자(유입, 송출) 수, 결혼·이혼·사별 통계, 시민권 변화, 망명자(Asylum-seekers)라는 하위 분류기준으로 구분되어 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주와 관련하여 외국인, 외국 시민권자, 이민자(유입, 송출), 시민권 변화, 망명자 등 다양한 분류기준으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각각 성별, 연령별(0세부터 104세까지는 1세 단위로, 105세 이상은 동일한 범주로 구분)로 구분하고 있다.

인구 부문 지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표체계에서 이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교육수준(education level)’ 지표의 경우, 이민자들(이민 유입, 이민 송출 구분)의 교육

수준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성별에 따라, 스웨덴 출생 유무에 따라, 교육수준<sup>12)</sup>에 따라, 1987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의 이민자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각 영역별 구체적인 통계지표들은 영어와 스웨덴어 두 가지로 제공되는데, 영어로 제공되는 지표들은 그 수와 내용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지표들인 생활조건(living condition),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과 관련된 지표들은 모두 스웨덴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그 중, 사회보험은 구체적인 통계지표들까지 웹상에서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 반면(부록 7참고),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는 주로 발간 보고서를 통해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부록 8 참고).

## 6. 일본의 사회지표 체계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분산형 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최근 2009년 통계법의 개정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품질 높은 통계를 생산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통계에 대한 내무부의 조정역할이며, 이를 통해서 통계자료에 대한 품질향상, (사용자/생산자에 대한) 규제 및 중복방지 등을 시도하고 있다(Shimizu 2009).

복지관련 통계는 대부분 보건노동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노동복지부 내에 통계정보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에도 각각 통계부처가 있어서 각각의 통계부처에서 생산된 것이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전달되고 있다(일본 통계청 홈페이지, 이재창 2004).

### 1) 일본통계조사 현황

일본의 사회통계는 중요도에 따라 기간통계, 일반통계, 보고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간통계는 일본의 정부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통계 가운데서 총무대신이 공적인 의미가 크고 사회적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된 통계를 의미한다. 일반통계는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통계 가운데서 기간통계로 지정되지 않은 통계를 뜻한다. 보고통계는 지방공공단체나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중앙정부(총무대신)에게 보고용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표23]은 일본의 주요 기간통계와 일반통계를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12) 교육수준은 초등교육 및 저학년 중등교육, 고학년 중등교육, 3년 미만의 고등교육, 3년 또는 3년 이상의 고등교육, 대학원 후 교육과정으로 구분됨

[표 23] 일본의 사회지표관련 조사와 주요 조사내용

분류	조사명	조사기관	복지관련 주요 조사내용	생산주기
복지전반	국민생활 기초조사*	후생성	보건, 의료, 연금, 복지, 소득 등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조사	3년 주기
	피보험자 전국일제조사*	후생성	생활보호법에 의거해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세대의 구성 상황 등을 파악	매년
건강	국민건강, 영양조사*	후생성	국민의 신체 상황, 영양섭취 상황 등에 관한 기초 조사	매년
	체력 및 운동능력 조사*	문부성	각 연령별 기초 체력 및 운동 활동 상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	매년
	학교보건 통계조사	분부과학성	각급 학교에 통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발육 및 건강 상황	매년
	의료시설조사	후생성	의료기관의 종류와 진료과목 별 지역 분포 등	정태조사:3년 동태조사:매년
	환자조사	후생성	의료시설을 이용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정보 및 치료 내용 및 기간 등	3년
노동	매월노동 통계조사	후생성	산업별 고용 및 급여 상황과 같은 노동 시장의 동태에 관한 정보	매월
	취업구조 기본조사	총무성	취업 및 미취업 현황 파악	5년 주기
	노동재해 동향조사*	후생성	주요산업별 노동재해 발생 현황	반기
소득	가계조사	총무성	가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매월
	국민소비 실태조사	총무성	세대별 소득분포 및 소비 수준 등	5년 주기
교육	학교기본통계	문부과학성	학교기본통계는 6개의 하위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조사는 학교의 유형별 분포, 미취학학령아동/청소년 상황, 학교 시설 상황, 학교 경비조사, 졸업 후 상황 조사 등이다.	하위 조사별로 상이
	사회교육조사	문부과학성	사회교육, 생애교육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하위 7개 조사(사회교육행정조사, 공민관조사, 도서관 조사, 박물관 조사, 청소년교육시설 조사, 여성교육시설조사, 사회체육교육시설조사) 를 포함하고 있다.	하위 조사 별로 상이
시간, 여가	사회생활 기본조사	총무성	학습, 정보통신, 취미, 사회활동, 시간 활용 등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양상 조사	5년 주기
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등조사*	후생성	전국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분포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조사	매년

분류	조사명	조사기관	복지관련 주요 조사내용	생산주기
	지역아동복지 사업등조사*	후생성	보육 등 아동 관련 시설의 지역 분포 및 시설 실태	매년
	개호서비스시설 및 사업소조사*	후생성	전국 장기요양관련 시설의 분포 및 서비스 실태	매년
인구 전반	국세조사	총무성	인구, 세대 등에 관한 기본 정보	3년
	인구동태조사	후생성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분포에 관한 기본 정보 및 사망률, 출생률 등 인구 변동 정보	매월

\*는 일반조사, 표시가 없는 조사는 기간조사

## 2) 지표 정리 체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다양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통합된 틀에서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통계청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지표를 인구 및 세대, 경제기반, 교육, 노동, 문화 및 스포츠, 주거, 보건 및 의료, 복지 및 사회보장, 안전, 가계, 생활 시간으로 대별하여 정리해 놓고 있다. 또한 각 지표의 정의, 생산주기, 관련 법령, 주의 사항 등을 지표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24]는 복지 및 사회보장 항목에 있는 개호보험 관련 지표의 일부분을 예시로서 제시한 것이다.

[표 24] 지표 정리의 예(개호보험 관련 지표)

항목부호	항목명	단위	주기
J7101	개호보험급부건수	건	매년
J70101	재택개호서비스급부건수	건	
J70102	시설개호서비스급부건수	건	
J7102	개호보험급부비용액	천엔	
J71021	재택개호서비스비용액	천엔	
J71022	시설개호서비스비용액	천엔	
J7103	개호보험급부지급액	천엔	
J71031	재택개호서비스지급액	천엔	
J71032	시설개호서비스지급액	천엔	

### 7. 호주의 사회지표 체계

호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웰빙(well-being) 분석틀을 통해 국가의 사회지표를 재정립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다. 먼저, 통계 및 지표의 생산체계를 살펴보면, 분산형인 스웨덴과 달리 집중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통계생산 및 기타 통계 관련 서비스는 재무부 소속 중앙 통계청인 호주 통계청(ABS)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고 국가통계승인제도를 도입해 통계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조사 설계와 조사과정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호주 통계청은 사회지표를 건강, 주택, 교육, 노동, 소득 및 재산, 문화 및 여가, 교통, 사회관계, 범죄 및 안전, 사회참여, 여성, 가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은 통계조사들이 실시되고 있다.

[표 25] 호주의 사회지표 분류체계와 관련 조사통계

분류	관련 조사 명칭
건강	1)통계청 사망사유통계, 2)정신건강과 웰빙 조사, 3)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조사, 4)국민건강조사, 5)일반사회조사, 6)아동면역 및 건강현황 조사, 7)의료보험조사, 8)원주민건강조사, 9)유아수면자세조사, 10)합동의료산업조사, 11)인구조사모니터
주택	1)호주주택조사, 2)일반사회조사, 3)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4)소득 및 주택조사, 5)인구조사모니터
교육	1)일반사회조사, 2)인구조사모니터
노동	1)일반사회조사, 2)주거지출조사, 3)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4)교육훈련조사, 5)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조사, 6)직업경력조사, 7)고용및실업패턴조사, 8)구직활동경험조사, 9)실업자 구직활동 경험조사, 10)노동력조사, 11)직업이동조사, 12)인구조사모니터
소득 및 재산	1)일반사회조사, 2)주거지출조사, 3)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4)소득 및 주택조사, 5)교육훈련조사, 6)인구조사모니터
문화 및 여가	1)일반사회조사, 2)시간활용조사, 3)교육훈련조사, 4)문화, 스포츠 행사참여 조사, 5)인구조사모니터
교통	1)일반사회조사
사회관계	1)일반사회조사
범죄 및 안전	1)일반사회조사, 2)인구조사모니터
사회참여	1)자원봉사활동조사, 2)인구조사모니터
여성	1)여성안전조사
가족	1)호주가족조사

출처 :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부록 9]에 제시된 호주의 사회지표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웰빙, 개인적 웰빙 등 삶의 질, 웰빙 개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건강 부문의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조사’에서는 장애인, 노인에 대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지표들이 생산, 제공되고 있다. 주 돌봄 제공자(carer)가 제공

하는 도움의 종류, 돌봄 시간, 가용한 돌봄 자원, 돌봄 활동이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제공과 웰빙의 관계, 가구별 돌봄 유형, 돌봄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돌봄을 받는 사람의 주요 장애 및 장기요양 사유 등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표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안전조사 역시 상당히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성적·물리적 폭력 발생률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공포발생 여부, 폭력과 알코올의 관련성, 폭력이 일상생활 및 노동참여에 미친 영향, 스토킹 관련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최근 여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 보도되는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앞서 스웨덴의 복지지표들은 사회보장제도들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중심이었던 반면, 호주의 사회지표들은 전반적인 삶의 질, 웰빙과 관련된 지표들이 중심이고, 주관적인 인식 관련 지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 제4장. 새로운 복지 지표 체계 구축

### 1. 새로운 복지 지표 분석틀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OECD의 사회 지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EU 사회보호위원회 분석틀을 참조하여 새로운 복지 지표 통계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될 것이다.

1) 사회 지표의 두 가지 목표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감시기능과 복지 측정이라는 두 목표를 충실히 따르며, 2) 현재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 변화를 제안하며, 3) 물질적 요인과 탈물질적(non-monetary) 요인,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4) 국제 비교 가능한 분석틀과 지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OECD의 분석틀이 한 국가 내의 복지 통계 지표가 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단점들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분석틀을 세 가지 생애 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OECD 분석틀과 달리 세 가지 생애 주기 분류 기준을 포함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 먼저, 기존의 인구대상 집단 중심의 복지 지표 분류 기준을 어느 정도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할 수 있다. 사회 정책의 목표를 기준으로 지표를 분류하는 것은 이론적·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이제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기준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 통계연보, 통계청 e-나라 지표,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의 분야별 통계와 보건복지 100대 지표 모두 분류 기준에 인구대상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위의 기존 지표 체계들의 경우, 인구대상 집단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주요 복지 서비스 대상별로 구분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기별 기준을 사용하고자 한다. 생애 주기별로 구분할 경우,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세 가지 생애 주기는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그리고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기는 18세까지로 구분되었으나, OECD(2010)의 권고에 따라서, 또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현실에 비추어 24세가 보다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OECD가 제시한 네 가지 정책적 목표에 더하여 EU의 분석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는 OECD의 PSR 모델이 그대로 차용되어 사용되었다. 거시적 맥락을 보여주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정책을 촉진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보여주는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e)이 한 축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사회적 반응은 정부의 복지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혹은 노력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OECD에서 본래 사용한 '사회적 반응' 대신 '복지노력'(welfare effor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어떠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는 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반응을 '복지노력'이라고 할 때, 제도적 대응 그 중에서도 복지제도만으로 사회적 반응의 범위를 축소하고 협소하게 파악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지표(social indicator)'가 아닌 '복지지표(welfare indicator)'의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그리고 앞서 서론의 연구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의 효과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반응보다는 '복지노력'에 한정하였다.

사회적 상황은 정책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자 사회적 대응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한 면에서 복지성과(welfare outcome)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위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이라는 사회적 상황이 사회적 반응을 불러오지만, 빈곤은 사회적 반응 혹은 복지노력(welfare effort)에 대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대한 지수는 불변하게 정해져있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은 전통적 의미에서는 사회적 맥락에 가까운 변수이나 최근과 같은 저출산 상황에는 정책적 목표이자 정책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의 변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정책의 다섯 가지 목표 역시 OECD의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의 경우, 앞서 3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각 사회정책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와 관련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 1) 자립(self-sufficiency)

자립은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급여를 핵심으로 한 수동성에서 고용을 중심으로 한 능동성(active approach)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자립이라는 사회정책 목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는 바로 유급고용 비율이다. 유급고용은 각 개인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개인이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체계는 유급 노동자에 의한 기여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유급고용을 통한 자립을 우선적인 사회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는 자립이라는 사회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지표들(투입된 공적 지출, 제도의 수혜자 수 등)은 복지노력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09; 56).

이는 비단 현재 근로계층의 고용률이나 실업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생애 초기의 기반

은 장애의 자립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예컨대 보육시설 등록률(childcare enrolment rate)은 초기 아동발달 및 학습을 지원하는 국가의 보육 및 교육 제도가 얼마나 많은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학업능력 혹은 성과(student performance)는 아동의 인적자본 축적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높은 수준의 학업능력과 성과는 유급고용을 포함한 장애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OECD, 2009; 56). 아동의 성장 및 인지능력 발달과 청소년의 학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복지노력들은 보육,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과 같은 지표로 드러난다. 또한 빈곤아동에 대한 일련의 사회투자정책들(드림스타트, 희망스타트 등),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관련 지표들 역시 자립이라는 정책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미소금융(micro-finance) 등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2) 형평성(equity)

형평성이라는 사회정책의 목표는 주로 경제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 분배와 관련된 다. 형평성에는 재정적 형평성과 더불어 가사분담이나 케어와 관련된 형평성 등도 포괄되나 실질적인 데이터의 한계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재정적 부분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OECD, 2009; 57). 하지만 최근 OECD(2010)는 'Time Use Survey'를 통해서 형평성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다차원적인 형평성을 복지 지표에 반영하고자 한다.

형평성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빈곤, 소득불평등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빈곤율, 아동 빈곤율, 노인 빈곤율 등은 형평성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리고 그 사회의 분배상황을 개선하고 불평등,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사회지출은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는 다양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자원의 재분배에 개입함으로써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형평성이라는 목표는 자립이라는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OECD, 2009; 57).

## 3) 건강(health)

건강은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보여주는 것과 보건에 있어서의 접근성, 질,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까지 다루게 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교육수준, 노동시장의 지위,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의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일반적이므로(OECD, 2001) 이러한 점들

을 바탕으로 보건 지표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사회의 건강수준은 생활조건과 교육의 개선,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도의 향상, 지속적인 의료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는 대표적으로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라는 지표로 측정된다(OECD, 2009; 57). 기대수명은 영아 건강(infant health)의 척도로 활용되는 영아사망률과 저체중아 비율을 반영한다. 기대수명 못지않게 중요하면서 보완적 의미를 가진 지표는 주관적 건강상태(self-assessed perceptions of their state of health)이다. 그리고 비만 역시 사회 및 경제적 기능 수준을 떨어뜨리고, 추가적인 의료문제와 비용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의 건강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건강 관련 지표들을 검토할 때, 종종 신체적 건강에 대한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mental health) 문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 건강의 문제는 상당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과 곤란을 초래하며,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표들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OECD, 2009; 57).

보건서비스 지출(health care expenditure) 관련 지표들은 사회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복지노력, 보건의료체계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건강수준은 실업, 빈곤, 불량한 주거 환경과 같은 보건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들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또한 단순한 보건서비스 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률이나 1인당 의료비 지원수준과 같은 보건의료체계의 다른 측면들 역시도 보건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노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 문제와 관련된 복지노력으로 노인 장기요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도 포함된다.

#### 4) 사회응집(social cohesion)

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의 주요 사회정책 목표이지만, '사회응집'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가 없어 적합한 지표를 발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기존 연구 및 문헌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응집의 개념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 동시에 포함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 개념에는 장애인이나 이주민,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지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회통합 측면으로 자살이나 범죄율 등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응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ECD가 택하고 있는 접근은, 시민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어느 정도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그리고 시민들을 사회적 배제 상황으로 내모는 다양한 경로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는 지표들을 통해 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안녕(well-being)과 사회응집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직장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 with work) 역시 사회응집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범죄는 사회응집이 해체된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피해(crime victimisation)를 보여주는 범죄율과 같은 지표는 사회응집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살은 사회응집 수준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학교 내에서 사회응집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하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OECD, 2009; 58-59).

### 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은 전체 사회와 그 사회 내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체 사회의 지속 상황을 보여주는 노인부양비, 합계출산율과 같은 지표는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와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도 관련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고용률 대비 실업률 혹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등의 지표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회의의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Our Common Future)”의 핵심적 메시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미래세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Noll, 2002). 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으로 나머지 4가지 목표와 비교할 때 상당히 거시적이다. 자립과 건강은 개인 수준의 목표에 가깝고, 형평성과 사회응집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수준의 목표를 포괄한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은 온전히 사회 수준의 목표이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 목표는 앞의 개념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현재의 경제, 사회, 제도 체계와 같은 문명세계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 제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환경 이슈까지 포함한다<sup>13)</sup>. 앞서 [표 17]에 제시된 Noll(2002)의 사회지표 분석들에서도 사회 수준의 복지 측정에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가 포함되었고, 여기에는 자연자원의 보호와 인적자원의 보호라는 하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연구는 ‘복지’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만큼, 저출산·고령화 등의 당면한 사회 상황에서 현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도(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4가지 목표와 비교할 때 목표의 수준이 다르지만, 현재

13) 보다 거시적인 ‘삶의 질’ 혹은 ‘웰빙(well-being)’과 같은 개념의 분석들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이 이슈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EU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하위 정책목표로 에너지와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의 촉진, 청정기술 개발의 지원, 재생 에너지 자원의 점유율 증가, 지속가능한 유동성 개념의 촉진을 설정하고 있다(Noll, 2002).

저출산·고령화,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 한국 상황에서 이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목표로 여겨져 본 분석틀에 포함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통계청 e-나라지표의 ‘복지’분야 지표를 분류하는 하위 기준<sup>14)</sup>에 인구대상별 기준, 제도별 기준들과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포함된 것은 그만큼 현재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강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먼저, 우리 분석틀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3가지 중요한 기준 축을 갖는다. 첫 번째는 5가지 정책목표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의 구분이고, 세 번째는 핵심복지지표와 생애주기별 복지 지표의 구분이다.

[표 26]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

		정책목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 응집	지속 가능성
핵심 복지지표		사회적 맥락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생애 주기 별	아동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복지 지표	성인기 (25-64세)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노년기 (65세 이상)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이 분석틀은 PSR(Pressure-State- Response) 모형을 도입하여 정책 환경, 사회문제, 욕구 (need) 등의 맥락, 지출을 포함한 투입과 정책적 대응, 그리고 결과까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자 시도한다. 기존의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근거 없이 인구집단, 제도 혹은 사업, 정책목표 등의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분석틀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상황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복지노력), 그리고 그 결과로 변화된 사회적 상황이라는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14) 하위 분류기준은 복지 일반(빈곤, 공공부조 관련 지표들 포함),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연금/건강보험, 저출산/고령화이다.

한 가지 사회적 상황은 다른 여러 가지 직·간접적이고 복합적인 원인 및 상황들과 얽혀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시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련된 지표들 역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빈곤'이라는 사회적 상황의 경우, 이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대표적으로 빈곤율이 있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 빈곤율(최소 2년 이상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 인구집단별(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가구주 등) 빈곤율, 가구유형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65세 미만의 독신 가구, 65세 이상의 독신 가구, 독신 여성 가구, 독신 남성 가구, 적어도 1명이 65세 이상인 2인 성인 가구, 모두 65세 미만의 2인 성인 가구 각각)의 빈곤율,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한부모와 1명 이상의 부양 아동이 있는 가구, 두 명의 성인과 1명의 부양 아동 가구, 두 명의 성인과 2명의 부양 아동 가구, 두 명의 성인과 3명 이상의 부양 아동 가구, 부양 아동과 3인 이상의 성인 가구 각각)의 빈곤율, 주요 경제활동(자영자, 임금근로자, 실업자, 은퇴자, 기타 비경제활동인구)에 따른 빈곤율, 주택 소유에 따른 빈곤율 등 매우 다양한 지표들이 가능하다. 이는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 상황 - 정책대응 - 결과'이라는 인과관계의 논리를 활용하고자 시도는 하지만, 각각에 들어맞는 지표들을 '1 : 1'로 배치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 2. 한국의 복지 지표 체계

이제 구체적으로 각 분석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지표들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2절의 내용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e-나라지표(분야별 지표, 대상자별 지표),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통계포털(100대 보건복지지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지표들을 각 칸(cell)에 배치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통계포털에서는 각종 조사통계 결과값들을 엑셀(excel) 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각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값일뿐,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새로운 분석틀에 기존 지표들을 배치하는 작업에서는 제외하였다. 오히려 이 결과값들 중에서 중요한 지표로 가공,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신규 복지 지표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나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예컨대 노인빈곤률, 아동빈곤률 등) 역시 대표성을 갖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표 배치작업에서 제외하였다. 이 역시 대표성을 가진 하나의 지표값으로 제공,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규 지표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일정한 기준 없이 열거, 나열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 지표들을 정책 목표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맥락-사회적 상황-복지노력'이라는 일련의 인과 논리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기존 복지 지표들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 작업의 결과, 어떤 칸에 지표가 집중

되어 있고 어떤 칸에 상대적으로 지표가 적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향후 어느 부분에서 지표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두 번째 단계와 연결된다.

두 번째 단계는 추가되어야 할 지표들을 각 칸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신규지표 개발과 연결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이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는 OECD의 분석틀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지표들을 배치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각 칸에 대표적인 지표들 몇 개만을 배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틀의 각 정책목표에 따라, 생애주기별 구분이라는 기준을 더하여 구체적인 지표들을 배치하는 작업은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칸에 지표들을 배치할 때, 많은 지표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 하위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정책목표에 따라, 인구대상에 따라 지표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분류기준을 설정하는 주요 원칙으로 2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기존 복지 지표 체계의 분류기준을 적극 활용한다. 둘째, 지표들을 포괄하되 최대한 적은 수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새로운 복지 지표 분석틀은 탐색적 시도이다.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이 분석틀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복지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이고,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이 분석틀 속에 모든 복지 지표들을 배치하고자 하기보다는(이는 가능하지도 않다), 각 정책목표와 인과 논리 틀에 맞는 적절하고 대표적인 지표들을 배치하였다. 지표를 배치하는 작업은 여러 복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제 위의 [표 26]에 제시된 새로운 복지 지표 분석틀에 따라 기존의 복지 지표들을 배치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복지 지표는 핵심 복지 지표와 생애주기별 복지 지표로 구분된다. 핵심 복지 지표는 한국의 복지발전 및 삶의 질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요 지표들로 구성된다. 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지표'(social indicator)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특정한 생애주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복지통계가 포함된다. 생애주기별 복지 지표는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25-64세), 노인(65세 이상) 세 가지 생애주기별 상이한 지표들로 구성된다.

### 1) 사회적 맥락 지표

정책이 놓인 전반적 사회적 배경, 사회정책의 맥락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복지 지표에만 들어가고, 생애주기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OECD Society at a glance」에

제시된 사회적 맥락 지표에는 국가소득, 이민, 보호·망명을 요청한 난민, 출산율, 결혼과 이혼, 연령별 부양비율, 한부모와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었다(OECD, 2009 : 54).

이는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인구’와 ‘재정·경제’ 영역과 연결된다. ‘인구’는 다시 총인구, 출생·사망, 결혼·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지표들이 모두 사회적 맥락 지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재정·경제’는 다시 보건복지예산과 국민경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국민경제’에 포함된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지표가 사회적 맥락 지표에 해당된다.

e-나라지표의 경우, ‘총량지표 - 국토·인구’의 하위분류 기준인 인구구조와 인구변동에 포함된 지표들이 사회적 맥락 지표에 해당한다. 인구구조에는 남녀별·연령별 인구구조, 총인구, 인구성장률 지표가, 인구변동에는 출생·사망 추이,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국제인구 이동, 국내인구 이동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주 관련 통계는 ‘정무 - 법무 - 출입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체류 외국인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난민 통계 현황, 외국 국적동포 현황, 총 출입국자 현황 등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경제 관련 통계는 ‘경제 - 거시경제’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표 27]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지표

		분류기준	지표
핵심 복지지표	인구	총인구	성별, 연령계급별, 지역별 총인구 인구성장률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출생·사망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 출생 시 기대여명 및 출생성비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 성별, 연령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연령별 모성 사망비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결혼·이혼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가족의 형태별 분포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한부모 가구 비율
		이주	성/국적별 외국인 국제이동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국적/성/연령/직업/교육정도별 외국인 등록인구 결혼이민자 현황 난민 통계 현황 외국 국적동포 현황
	국민경제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 국내 주요 물가지수(소비자 물가지수 등)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기존 지표들을 정리하면 앞의 [표 27]과 같다. 사회적 맥락 관련 지표들을 구분하는 하위분류기준으로는 보건복지통계연보의 틀을 따라 '인구'와 '국민경제'로 구성하였다. '인구'에는 보건복지통계연보의 틀과 같이 총인구, 출생·사망, 결혼·이혼 관련 지표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주 관련 지표들이 포함될 것이다.

## 2) 5가지 정책목표별 사회적 상황 & 복지노력 지표

다음으로 5가지 정책목표(자립, 형평성, 사회응집, 건강, 지속가능성)별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배치한다.

### ① 자립Self-sufficiency

「OECD Society at a glance」에서는 자립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 지표로 고용률, 실업률, 유급노동에 참가한 어머니 비율, 실업가구 비율, 노동시장 이탈연령과 같은 '고용' 관련 지표와 아동양육, 아동보호와 같은 '보육·교육'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반응 지표로는 (사회보장) 급여의 적절성, 고용촉진정책, 조기교육 및 보호, 장애인 고용(지원)과 성인 장애인의 가용자원 등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OECD, 2009 : 54). 즉, 고용과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 관련 지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은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표와 고용지표를 주로 생산, 담당하는 부처가 각각 보건복지부, 노동부로 상이한 이유로 분리되어 제공되어 왔다. 복지지표들만을 주로 포괄하고 있는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경우, 고용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지표들이 보건복지통계연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나라지표에서 고용 관련 지표들은 사회 부문의 하위분류 기준인 '노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 영역의 하위 분류기준 중, '고용'에 포함된 고용률, 실업률 지표들은 사회적 상황을, '노동보험'에 포함된 고용보험 관련 지출현황과 '고용'에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은 복지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보육 관련 지표들은 사회 부문의 하위분류 기준인 '여성/가족'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 관련 지표들은 사회 부문의 '교육'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는 자립과 관련된 지표들 중, 보육과 관련된 지표들만이 포함되어 있다. e-나라지표보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육 관련 지표들을 '사회복지서비스' 기준 하에 제공하고 있다. 보육·교육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표들은 국가통계포털의 대상별 복지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다(부록 1 참고). 여기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현황,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 아동 취학 및 학업(비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대상별 복지통계에서는 대상별 고용, 소득보장 관련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 28] 자립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분류기준	지표	
핵심 복지지표	고용		일반 고용동향(경제활동인구비율, 취업률, 실업률)	
			비정규직 고용동향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장애인 의무고용률)	
			취업 장애인 월평균 소득	
	보육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	
			아동양육의 어려운 점	
	교육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취업률	
			UNDP 인간개발지수(HDI) 순위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생애 주기별 복지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보육	보육아동 현황*	
			영유아 연령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모 취업형태별/아동 구분별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교육		취학률 및 진학률*	
			OECD 학업성취도(PISA) 순위*	
			IEA 학업성취도(TIMSS) 순위	
	성인기 (25-64세)	고용	청년 고용동향*	
			성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교육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특성*	
			평생학습 참여율	
	노년기 (65세 이상)	고용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
				고령자 고용동향(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노인 취업률 현황*				
산업 및 종사상 지위별 고령자 비율				
소득보장			노인 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	
			노인의 생활비 원천, 생활비 마련방법*	
			만65세 이상 노인의 의존 소득원*	
			노인 가구 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주 : \* 표기가 된 것들은 생애주기별 지표들 중 핵심 복지 지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

‘자립’이라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을 보여주는 기존 지표들을 정리 하면 [표 28], [표 29]과 같다. 주로 ‘고용’과 ‘보육·교육’ 두 가지 영역과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는데, 보육의 경우 주로 아동·청소년기와 관련된다. 이때 직접적인 보육 현황과 관련된

지표들은 아동·청소년기에 배치하고, 아동양육, 양육비용 현황의 경우 핵심 복지지표에 배치하였다. 노년기의 경우,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사적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이라는 하위 분류기준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하위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복지노력의 경우, 주로 사회적 상황을 개선, 해결하기 위한 공적 지출 관련 지표와 제도적 지원 현황 관련 지표들이 포함된다.

[표 29] 자립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분류기준	지표
핵심 복지지표		고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시설수 및 입소인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수
		보육 교육	국가인적자원개발 재정투자 현황
생애 주기별 복지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보육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
			보육료 지원 현황*
			특수보육시설(영아전담시설) 현황
			아동발달계좌(디딤 씨앗통장)개설현황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수		
	아동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아동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양육시설 수*		
	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	
학교급식 실시현황*			
중고등학교 장학금, 학비감면 수혜현황			
학자금 대출 현황			
성인기 (25-64세)	고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출현황*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현황*	
		자활사업 참여자 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노년기 (65세 이상)	고용	노인취업알선 실적,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수*	
	소득보장	공적연금 수급률*	

주 : 생애주기별 지표중 \* 표기가 된 지표는 핵심 복지지표에도 포함될 수 있는 지표임

앞서 ‘자립’이라는 정책목표를 설명할 때, 최근 국가들이 이를 우선적인 사회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용정책, 빈곤정책 등에서 이 목표를 매우 강조해 왔고, 많은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빈곤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희망스타트 등으로 명명된)사회투자 정책들, 각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자활 지원들은 대표적인 정책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보육정책 역시 양육수당 도입,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최근의 정책변화를 반영한 지표들은 찾

아보기 힘들다.

② 형평성 *Equity*

형평성은 주로 경제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 분배와 관련된다. 「OECD Society at a glance」에서는 형평성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 지표로 빈곤, 소득불평등, 저임금노동, 성별임금격차, 세대 간 이전, 주거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반응 지표로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사적 사회지출, 급여 수급률, 최저임금, 연금가입률 및 대체율 등을 포함하고 있다(OECD, 2009 : 54).

빈곤,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주요 복지이슈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지표 체계 속에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e-나라지표에서 이 지표들은 ‘사회 - 복지 - 복지일반’의 분류기준 아래에서 제공되고 있고,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는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소득불평등 관련 지표들만을 제시하고 있고, 임금불평등 관련 지표들은 제시하지 않는다.

‘형평성’이라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을 보여주는 기존 지표들을 정리하면 [표 30], [표 31]와 같다. 이때 형평성의 경우, 빈곤·불평등이라는 보다 단일한 차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위 분류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표 30] 형평성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소득분배(Gini 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학력별 임금격차 및 교육투자 수익률
		남녀임금격차(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
생애 주기 별 복지 지표	아동청소년기 (0-24세)	
	성인기 (25-64세)	
	노년기 (65세 이상)	

[표 30]에서 확인했듯이,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의 수는 매우 적다. 특히, 생애주기별 지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예컨대 기본적인 아동 빈곤율, 노

인 빈곤율, 장애인 빈곤율, 여성 가구주 빈곤율조차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빈곤’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얼마나 다양한 기준으로 생성 가능하고, 이러한 다양한 빈곤 관련 지표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근로빈곤(working poor)’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빈곤층의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며, OECD 노동통계 D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 통계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정적 형평성과 더불어 가사분담이나 케어와 관련된 형평성 등도 포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OECD, 2009).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표들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노력과 관련된 지표들은 [표 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사회적 상황 관련 지표와 마찬가지로, 생애주기별 인구대상집단의 욕구를 반영한 지표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표 31] 형평성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사회복지 지출규모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지역별, 연령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출 현황
		긴급복지지원 건수 및 지원액
		공공연금 가입자 수, 수급권자 수, 총 급여비
생애 주기 별 복지 지표	아동청소년기 (0-24세)	
	성인기 (25-64세)	
	노년기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

주 : 생애주기별 지표중 \* 표기가 된 지표는 핵심 복지지표에도 포함될 수 있는 지표임

### ③ 건강 Health

건강이라는 정책목표는 매우 명확하다. 「OECD Society at a glance」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 지표로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출산율, 비만율, 정신건강,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 건강불평등 등의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반응 지표에는 보건 관련 지출, 의료서비스 재정책임, 장기요양 수급, 보건서비스 인프라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OECD, 2009 : 54).

e-나라지표에서는 사회 부문의 보건 분야에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위 분류기준들 중에서 보건일반, 질병과 건강증진에는 사회적 상황 관련 지표들이, 보건일반에는 복지노력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보건 관련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에는 사회적 상황 관련 지표들이,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에는 복지노력 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문제의 경우,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자립’이라는 목표와 관련성이 높았다. 장애 발생의 경우, 질병 및 사고와 관련되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목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의 문제는 다음에 살펴볼 ‘사회응집’이라는 목표와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발생 현황과 관련된 지표들은 건강의 사회적 상황 지표에 포함하였다.

‘건강’이라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을 보여주는 기존 지표들을 정리하면 [표 32], [표 33]과 같다. 건강 역시 형평성과 마찬가지로 단일한 차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위 분류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표 32] 건강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사망률
		만성질환 현황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지역별, 연령별, 월별)
		성별 암 발생률, 10대 암 발생률 및 5년 상대 생존율
		정신질환 유병률
		주관적 개인의 건강평가(15세 이상)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비만도 및 규칙적 중등도 운동실천율(19세 이상)
		성별 흡연율
		음주인구 비율과 음주량(20세 이상)
		하루 평균 수면시간(19세 이상)
		휴식 충분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수 및 장애인 출현율
		성별, 연령별 시각장애 출현율
		산업재해 발생현황, 도수율, 강도율
생애 주기 별 복 지 지 표	아동청소년기 (0-24세)	영아/모성 사망률*
		학생체격 및 체력검사 현황(학교, 연령, 성별)
		남녀 청소년(중고생) 흡연율*
		학생표본 신체검사 현황*
		학생체격현황
		초, 중등학생 체격검사 현황
	시도별 학생표본 신체(키) 검사 현황	
성인기 (25-64세)		
노년기 (65세 이상)	노인의 운동실천 여부, 주된 운동종목	
	치매노인수 및 치매유병률*	

주 : 생애주기별 지표중 \* 표기가 된 지표는 핵심 복지지표에도 포함될 수 있는 지표임

건강 관련 사회적 상황 지표들은 대체로 생애주기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수면시간, 음주비율, 비만도 등 중요한 건강 관련 지표들이 19세 이상,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측정된 것들이고, 아동·청소년기의 건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없다. 또한 노년기의 경우, 다른 어떤 생애주기보다 건강이라는 문제가 중요한데, 노년기에 맞춰진 건강 관련 지표가 많지 않다. 만성질환 발생률 등 중요한 질환의 경우, 노년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33] 건강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지표
핵심 복지 지표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 적용인구(지역별, 시도별)
		건강보험 급여율, 급여 현황(급여종류별)
		건강보험 부담액 및 요양급여의 급여액
		건강검진율
		의료급여 수급자수 및 수급률
		의료서비스 이용률(15세 이상)
		의료인력 및 병상 수 추이
		의료인 총수 및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 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
		정신요양시설 수 및 입소자 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현황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시설급여/재가서비스)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산재보험 급여지급 건수와 액수
생애주기별 복지 지표	아동청소년기 (0-24세)	
	성인기 (25-64세)	
	노년기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월 평균)*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

주 : 생애주기별 지표중 \* 표기가 된 지표는 핵심 복지 지표에도 포함될 수 있는 지표임

건강 관련 복지지출 역시 생애주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지표들이 대부분이다.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전체 의료비용 중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노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돌봄 서비스 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원정책들이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

④ 사회응집 *Social cohesion*

사회응집은 사회연대, 사회통합,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OECD Society at a glance」에서는 사회응집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 지표로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학교 내 괴롭힘, 위험행동, 사회적 고립, 집단 참여, 10대 출산, 약물 사용, 파업과 직장 폐쇄, 선거참여, 청소년 범죄, 국가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하고 있다(OECD, 2009 : 54). 자살, 학교 내 괴롭힘, 위험행동, 10대 출산, 청소년 범죄, 약물 사용, 파업과 직장폐쇄, 사회적 고립은 사회 내 응집력이 약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지칭한다. 역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들은 사회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선거참여 역시 그 사회의 응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는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국가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 ‘사회응집’이라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을 보여주는 기존 지표들을 정리하면 [표 34], [표 35]과 같다.

[표 34] 사회응집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다문화(혼혈인) 가구원을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할 사항
생 애 주 기 별	아동청소년기 (0-24세)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약물경험 실태*
		청소년 가출실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청소년 여가시간, TV시청시간, 인터넷 이용시간*
복 지 지 표	성인기 (24-64세)	자원봉사 참여율(성인)*
	노년기 (65세 이상)	

주 : 생애주기별 지표중 \* 표기가 된 지표는 핵심 복지지표에도 포함될 수 있는 지표임

[표 35] 사회응집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업 현황(종류별)
생애 주기 별	아동청소년기 (0-24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전국 청소년 상담내용 및 대상현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청소년 쉼터 시설 수 및 보호 청소년 현황*
		청소년 동아리활동 현황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현황
복 지 지 표	성인기 (25-64세)	
	노년기 (65세 이상)	

주 : 생애주기별 지표중 \* 표기가 된 지표는 핵심 복지 지표에도 포함될 수 있는 지표임

사회응집과 관련된 지표에는 이주·다문화, 성적소수자, 장애 등 각종 사회적 차별, 배제 상황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복지 지표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표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청소년 범죄 등 청소년 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들이 필요한데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 정책목표는 핵심 복지 지표로만 구성한다. 앞의 다른 4가지 목표와 비교할 때 거시적 차원의 목표이지만, 현재 저출산·고령화,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 한국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목표가 여겨져 본 분석들에 포함하였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합계출산율, 노년부양비 등의 지표들은 사회적 맥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맥락에 머물기보다는 변화, 개선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표들은 아래의 [표 36]과 같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지표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표 36] 지속가능성 관련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사회적 상황	합계출산율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인구성장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생산성
	복지노력	국민연금 재정(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연기금 투자폴 수탁규모, 수익률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이제까지 본 연구진이 제안한 복지지표 분석들에 기존의 지표들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나열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지표들을 정책목표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맥락-사회적 상황-복지노력'이라는 일련의 인과 논리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기존 복지지표들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어디에 지표가 적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 부분의 지표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이제 다음 5장에서는 빈 칸(cell)에 들어갈 신규 복지지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5장 신규 복지지표

이 장에서는 기존 복지지표 체계에 대한 검토내용을 토대로 신규 복지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신규지표는 '향후 국내생산 필요성이 있는 지표'는 물론 '기 생산 미공개 지표중 공개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신규지표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복지지표에 대해서는 앞서 본문 중에 언급한 바 있다. 5장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복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신규 복지지표들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복지지표 틀에 맞춰 새로이 개발되어야 할 복지지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신규 복지지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 1) 보건복지부 통계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앞서 보건복지부 통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건복지통계연보나 e나라지표 등의 간행매체에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공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보유 지표와 신규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지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아래의 [표 37]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7] 공개 필요 보유 지표 및 신규 개발 필요 지표에 대한 응답 내용

공개 필요 보유 지표	신규 개발 필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현황</li><li>•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남녀통계</li><li>•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li><li>• 자활근로사업 참여현황</li><li>• 의료기관평가현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동태적 현황</li><li>• 전국 아동 학대 현황</li><li>• 보건의료인력 보수 통계</li><li>• 보건의료기관 수입 및 지출 통계</li></ul>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동태적 현황의 경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연도별 수급자 현황과 변화 추이 지표만으로 수급자의 빈곤 탈출 여부, 탈빈곤 비율, 장기 빈곤층의 비율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지표 중의 하나이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의 경우, 현재 학대아동 보호건수, 시도별 아동학대 발생현황, 아동학대 신고 현황과 같이 객관적인 상황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층적인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조사통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들만으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아동학대 발생비율, 학대 유형별 현황,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지원 현황 등 보다 세부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복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기존 복지통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양한 영역의 복지 전문가들은 추가되어야 할 신규 복지통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책목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복지 전문가들이 복지 지표 배치와 관련하여 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은 2절의 신규 복지 지표 제안에 반영되었다.

### ○ 자립

#### ① 일가족 양립 현황 통계

여성의 유급노동을 통한 자립을 위해 중요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일가족 양립 현황에 관한 통계 개발이 필요하다. 출산휴가, 육아 휴직 사용과 관련된 상세한 현황, 만 15세 이하 자녀의 연령 및 수에 따른 어머니의 고용비율, 일가족 양립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혹은 유연노동시간 실시현황,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관련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 ② 청소년 진로·노동 현황 통계

청소년의 희망직업, 청소년 취업자수, 아르바이트 및 직업훈련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 ○ 건강

#### ①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아동 현황 및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통계

질병 및 장애(신체적 장애, 발달 장애, 만성질환 등)로 의료 및 복지서비스, 돌봄(care)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유병률, 발달 현황, 이들에 대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에 필요하다.

#### ② 정신보건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정신보건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과 관련된 통계가 필요하다.

③ 건강보험 사각지대 통계

건강불평등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 사회응집

① 이주·다문화 가족 아동에 관한 통계

최근 이주·다문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서, 특히 이주·다문화 가족 내의 아동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및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주·다문화 가족 내의 아동 수, 이들의 학교 진학률, 학업성취도,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현황 등에 관한 통계 생산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② 청소년 인권·복지, 활동·문화

청소년 관련 지표가 가출실태, 유해매체 및 약물경험과 같은 문제 관련 지표,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1388 청소년 전화 접수현황과 같은 청소년지원 현황 지표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2. 신규 복지지표 제안

2절에서는 앞의 두 가지 조사결과와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각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복지 지표들을 토대로 하여 새로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을 본 연구진의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에 배치할 것이다.<sup>15)</sup>

1) 자립 관련 신규 복지지표

자립과 관련된 기존 복지지표들은 먼저, 사회적 상황의 경우 주로 고용 동향이나 보육 현황과 관련된 지표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용동향과 장애인, 노인 취업률에 관한 지표들은 제공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은 부재한 상황이다.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재학여부에 따른 2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근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당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시기의 '자립' 목표를 보육, 교육에만 한정

15) 신규 복지지표 중 자립과 사회응집의 핵심 복지지표는 기존 복지지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짓고 이와 관련된 지표들만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비율 역시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해 중요한 지표인 만큼, 대표성을 가진 지표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사유별 비율을 통해, 경제적 사유,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많을 경우 각각의 원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절한 정책처방을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한 통계 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 관련된 지표들의 경우, OECD 학업성취도 등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지표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학업성취를 통한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저소득 빈곤가구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 물론 관련 연구논문들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나, 대표성을 가진 지표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기존 복지지표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한국에서는 ‘자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빈곤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희망스타트 등으로 명명된)사회투자 정책들, 각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자활 지원들이 그 예이다. 또한 보육정책 역시 양육수당 도입,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소위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 변화된 정책 현황(복지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취업, 실업 관련 지표들의 경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상당 수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면밀하게 문제 상황과 사람들의 욕구(need)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실업률과 함께 장기실업자 비율, 청년 실업자 비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 실업 상황을 다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화·저출산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노후의 소득보장, 노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정책들이 도입,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현황, 공적·사적 연금 등 소득보장 현황, 이러한 노후생활지원에 대한 인식 등 노인들의 구체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자립 관련 신규 복지지표는 [표 38]과 같다.

[표 38] 자립 관련 신규 복지지표

				지표 명	정의	출처
생 애 주	아동 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학업 중단 비율	전체 학생 대비 학업 중단 학생(학업중절병, 학교부적응, 가사, 기타	국가통계포털-교육통계조사

		지표 명	정의	출처
기 별 복 지 지 표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자퇴. 제적. 퇴학 등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자) 비율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율	전체 청소년 대비 아르바이트 참여 유경험자 비율	국가통계포털-한국복지패널조사
		아동청소년 근로율	학교재학 여부에 따른 전체 아동청소년 대비 경제활동 참가 아동청소년	신규
		저소득 빈곤가구(수급가구+차상위 가구) 아동의 학업성취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에 속한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국가통계포털-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활용 추산
	복지 노력	GDP 대비 아동·청소년 복지재정 비율	GDP 대비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적 복지비 지출 비율	OECD SOCX
		전일제 보육의 순보육비용	전일제 보육에 소요되는 순보육비용 - 1인 소득자 가구 - 2인 소득자 가구 - 근로자 평균임금 2인 소득자 가구 (67%, 100%, 167%) - 한부모 가구 (근로자 평균임금의 67%, 100%, 167%)	국가통계포털-보육실태조사 활용 추산
		아동의 방과 후 보육 이용비율 - 아동 연령별 - 가구 소득별 - 모의 취업유무 및 형태별	아동연령, 가구소득, 모의 취업여부 및 근로형태별로 방과 후 보육시설(국공립 시설, 법인 시설, 법인의 민간보육 시설, 민간개인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	국가통계포털-보육실태조사 활용 추산
		아동양육수당 수혜가구 수 및 비율	아동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수 및 전체 아동부양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9년 7월 신규사업
		아동보육시설 이용 바우처 지원 수혜 아동 수 및 평균 지원금액	아동보육시설 이용 바우처 지원 아동의 수 및 지원액의 평균	국가복지정보포털-보육실태조사 활용 추산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	아동 1인에 대한 아동 관	OECD SOCX

		지표 명	정의	출처	
성인기 (25-64세)			련 공적 복지비지출액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 수	전체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의 비율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 지출 총액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지출 총액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 활용 추산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 현황	- 총 통장 개설 아동 수 - 저축 아동 수 - 아동 저축액 - 1인당 월 평균 저축액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사회적 상황	만 15세 이하 어린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 별 모의 고용비율	만 15세 이하 자녀의 연령 및 수에 따른 어머니의 고용률	국가통계포털/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기실업자 비율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	OECD 통계연보	
		청년실업자 비율	전체 실업자 중 만 15-24세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국가통계포털/경제활동인구연보	
		실업자의 평균 실업기간	실업인구의 평균 실업기간	국가통계포털/경제활동인구조사	
		복지 노력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비율	- 모의 출산휴가 사용 비율 : 전체 출산한 여성 수 대비 비율 : 전체 출산한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비율 - 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비율 : 배우자가 출산한 전체 남성 수 대비 비율 : 배우자가 출산한 전체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비율 - 모/부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 : 자녀의 연령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비율	국가통계포털/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직업훈련 참가비용	각종 직업훈련에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신규

		지표 명	정의	출처
		청년인턴, 노동부 인턴 등의 참여자수	청년인턴 및 노동부 인턴 등의 총 참여자 수	기획재정부
		GDP 대비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출 비율	GDP대비 아동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신규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비율	GDP대비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OECD SOCX
		사업 유형별 자활근로 참가자 수	사업유형(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바우처 사업 등)별 자활근로 참여자 총수	국가통계포털/복지패널조사
노년기 (65세 이상)	사회적 상황	노인복지사업 욕구 인식	- 소득계층별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연령대별(60-64, 65-69, 70-74, 75-79, 80+) 대상으로 한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신규
		노후생활지원 대한 인식	노후생활의 공적 지원에 대한 견해	신규
		노후준비방법	- 주된 노후준비방법 - 노후준비방법(복수응답)	- 2008 노인실태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복지 노력	GDP 대비 노인 복지 예산 및 지출	GDP대비 전체 노인 복지예산의 지출 비율	OECD SOCX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급현황	노인돌보미서비스 수급자 수	- 보건복지전산망이용/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한국복지패널조사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지출 현황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관련 공적 지출 현황	신규
		노후소득보장현황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급률, 수급기간, 수금액	국민노후보장패널 활용 추산
		GDP 대비 연금지출	GDP대비 공적연금지출의 비율	OECD SOCX
		평균 연금액	연령대별(60-64, 65-69, 70-74, 75-79, 80+) 국민연금평균수금액	신규 - 국민연금통계 재가공
		노령연금의 평균 소득 대체율	연도별 국민연금 전가입자평균소득 대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평균 연금액	신규 - 국민연금통계 재가공

## 2) 형평성 관련 신규지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평성과 관련된 복지지표들은 주로 생애주기와 무관한 전체 국민의 빈곤, 소득불평등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기본적인 아동 빈곤율, 노인 빈곤율, 장애인 빈곤율, 여성 가구주 빈곤율조차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나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에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기준과 자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대표성을 가진 지표값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가구주, 결혼이민자 가정, 근로빈곤층, 연금수급자 등 중요한 인구집단별 빈곤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거’가 빈곤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주택 형태에 따른 빈곤율 역시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표이다.

그리고 빈곤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빈곤선 이하 소득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빈곤율’만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측면적이고 복잡하다. 즉, 빈곤상황의 심각성, 심도를 보여주는 빈곤갭(poverty gap), 빈곤 지속기간 등의 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빈곤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전(transfer) 전과 후의 빈곤율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역시 중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가사분담이나 케어와 관련된 형평성도 강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남녀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 격차와 같은 지표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소득재분배 상황, 소득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적 노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즉, 소득재분배에 대한 태도와 인식, 세금부담에 대한 소득계층별 인식,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 등은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요한 평가 잣대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형평성 관련 신규 복지지표는 [표 39]와 같다.

[표 39] 형평성 관련 신규 복지지표

		지표 명	정의	출처
핵심 복지지표	사회적 상황	이전(transfer) 전후 빈곤율	인구집단별 공적소득이 전 전후 빈곤율	가구소비실태조사 재가공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가구소비실태조사 재가공
		장애인 빈곤율	전체 장애인 대비 빈곤 장애인의 비율	장애인실태조사 재가공
		지속 빈곤율	현재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이상 빈곤선 이	가구소비실태조사 재가공

		지표 명	정의	출처
			하의 표준화 가처분 소득에 해당하는 0세 이상의 인구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동태적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진입, 탈출, 지속기간 현황	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등 활용 추산
		주택 소유에 따른 빈곤율	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서 아래의 두 그룹에 따른 빈곤율 - 자가소유 혹은 무상 임대 - 임대	가구소비실태조사 재가공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인식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견해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
		소득재분배에 대한 태도, 인식	소득재분배에 대한 견해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
		계층별 세금부담에 대한 평가, 인식	소득계층별 세금부담에 대한 현황에 관한 평가 및 인식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
		결혼이민자 가정 빈곤율	결혼이민자 가정의 빈곤율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복지 노력				
생애주기별 복지 지표	아동·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전체 아동 대비 빈곤가구에 속한 아동의 비율,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미만가구)/상대빈곤율(중위소득50%미만가구)	국가통계포털-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활용 추산
			한부모 가족지원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국가보훈법 대상 한부모 가정 내에서 빈곤한 가구에 속한 아동의 비율,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미만가구)/상대빈곤율(중위소득50%미만가구)	보건복지부-저소득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복지 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의 수	전체 아동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속한 아동의 비율	국가복지정보포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활용 추산

		지표 명	정의	출처
성인기 (25-64세)	사회적 상황	근로계층(만 19세 - 65세) 빈곤율	만19세~65세 인구의 빈곤율, 절대 및 상대 빈곤율	노동패널, 도시가계연보 등 활용 추산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규모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 절대 및 상대 빈곤율	노동패널, 도시가계연보 등 활용 추산
		빈곤갭(Poverty Gap)	빈곤선(절대 및 상대)으로부터 소득이 떨어져 있는 수준의 총합	노동패널, 도시가계연보 등 활용 추산
		빈곤 지속기간	빈곤선(절대 및 상대) 이하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	도시가계조사, 노동패널 등 활용 추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간 월평균 임금격차	고용지위별(사용/임시/일용) 월평균 임금의 격차	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등 활용 추산
		남녀 노동자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	고용형태별(정규 및 비정규) 남녀의 사회보험 가입 수	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 등 활용 추산
		가구 유형별 빈곤율	가구유형(배우자유무, 맞벌이유무, 가구주연령 등)에 따른 가구 빈곤율	도시가계조사, 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등 활용 추산
		가구 유형별 주거상황	가구유형(배우자유무, 맞벌이유무, 가구주 연령 등)에 따른 주거상황(자가유무, 주택유형 등)	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등 활용 추산
		주거빈곤 현황(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의 비율)	전체 가구에서 주거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구의 비율	한국복지패널 등 활용 추산
		근로자의 임금소득 분배 - Gini coefficient - 5분위, 10분위 배율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의 지니계수와 5분위, 10분위 배율	도시가계조사, 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등 활용 추산
		저임금 노동자 비율	전체 노동자 대비 저임금 노동자 비율	도시가계조사, 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 등 활용 추산
		유연노동시간 실시 사업장	전체 사업장 대비 유연노동시간 실시 사업장	신규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	여성가족패널, 노동패널 등 활용 추산		

		지표 명	정의	출처
		남녀의 유급노동, 무급노동시간 격차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가사 등)의 남녀간 평균 격차	국가통계포털/생활시간조사
		남녀의 가사노동, 돌봄(care) 노동 참여시간의 차이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남녀간 참여시간 평균의 격차	국가통계포털/생활시간조사
	복지 노력			
노년기 (65세 이상)	사회적 상황	노인 빈곤율	연령대별(60~64, 65~69, 70~74, 75~79, 80+) 의 빈곤율, 절대 및 상대적 빈곤율	통계청-가계동향조사 /빈곤통계연보 *연령대별 재구성 필요
		연금 수급자의 빈곤율	주요경제활동이 “퇴직”으로 되어 있는 인구집단에 한정된 빈곤율	통계청-가계동향조사 *집단별 재구성 필요
		노령인구 빈곤갭	60%빈곤선 기준에 입각한 연령대별(60~64, 65~69, 70~74, 75~79, 80+) 인구집단의 빈곤갭	통계청-가계동향조사 * 재구성 필요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노령인구의 빈곤 발생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연령대별(60~64, 65~69, 70~74, 75~79, 80+) 의 인구집단에서의 빈곤 발생에 관한 지표. 주택소유와 관련한 항목은 자가, 무상임대, 임대임	통계청-가계동향조사 * 재구성 필요
	복지 노력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수 및 이들에 대한 지출 현황	기초생활수급노인연령대별(60~64, 65~69, 70~74, 75~79, 80+) 인원수 및 지출액의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재가공

### 3) 건강 관련 신규 복지지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 관련 지표들 역시 형평성 관련 지표들처럼 생애주기별 지표보다는 일반적인 지표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청소년기의 건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는 키 등 일반적인 체격현황을 보여주는 것들밖에 없었다. 아동·청소년 중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 만성질환, 소아암 등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이들에 대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년기 역시 어느 시기보다 건강 문제가 중요한데, 건강 관련 지표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노년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동일하게 파악하기에는 연령대별 건강 상황이 매우 상이하다. 60대, 70대, 80대, 그 이상 고령자 등 연령구분을 세분화 하여 각 집단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유병률, 암 유병률 등의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노년기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 역시 최근 늘어났다. 건강보험 지출 중 노인들에 대한 지출은 점차 늘어가고 있고,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돌봄(care)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지원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들 정책(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등)에 대한 태도,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들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건강 관련 신규 복지지표는 [표 40]과 같다.

[표 40] 건강 관련 신규 복지지표

		지표 명	정의	출처	
핵심 복지 지표	사회적 상황	건강 기대수명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 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 WHO 「The World Health Report」 - e-나라지표 제공(건강수명은 '05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지표 생산)	
		정신보건서비스 이용 건수	정신보건 서비스 유형별 이용 건수	신규	
		건강보험 사각지대 인구	총인구 대비 건강보험 비적용 인구	신규	
	복지 노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건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수혜자 수	신규	
생애 주기 별 복지 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비만 아동/청소년의 수 및 비율	체질량 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인 아동/청소년의 비율 - 10세 이하 아동 - 중학생, 고등학생	국가통계포털-사회지표 활용 추산
			저체중아 출산율	전체 신생아 대비 저체중(2.0kg미만) 신생아 비율	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소아 암 발생률	전체 소아 중 암이 발생한 소아 비율	국가통계포털-사회지표 활용 추산
			질병 및 장애 아동 수	질병유형 및 장애유형별 아동 수	보건복지부-장애인실태조사 활용 추산
			추정장애아동 대비 등	전체 추정장애아동 대	보건복지부-장애인실태

		지표 명	정의	출처
노년기 (65세 이상)	복지 노력	특장애아동 비율	비 등록된 장애아동 비율	조사 활용 추산
		아동에 대한 장애검진 비 지출	아동의 장애검진을 위한 총지출	신규
		질병·장애아동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질병·장애아동의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실태조사	신규
	사회적 상황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연령대별( 65~69, 70~74, 75~79, 80+) 인구 대비 치매환자 발생 비율	치매유병률 조사
		만성질환 발생률	연령대별(60~64, 65~69, 70~74, 75~79, 80+) 인구 대비 만성질환자 발생 비율	한국의 사회지표 활용 추산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조사(건강보험연구원)
	복지 노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수	서비스 유형 및 소득계층 별로 나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통계연보
		건강보험 노인성질환 지출 현황	건강보험 재정지출 중 만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지출 현황	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현황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통계연보

4) 사회응집 관련 신규 복지지표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응집은 사회연대, 사회통합,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그 사회의 응집력, 통합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OECD(2009)의 분석틀에서는 사회응집과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학교 내 괴롭힘, 위험행동, 자살, 사회적 고립, 집단 참여, 10대 출산, 약물 사용, 선거참여, 청소년 범죄, 국가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되었

다. 하지만 제공되고 있는 지표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청소년의 가출 및 약물경험 실패, 여가시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청소년 지원 센터, 동아리 등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통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다.

이주·다문화, 성적소수자, 장애 등 각종 사회적 차별, 배제 상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청소년 범죄 등 청소년 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지표들이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범죄율, 자살률, 삶에 대한 만족도 지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노인과 같은 생애주기별, 이민자와 장애인 등 주요 인구집단별 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건강 관련 신규 복지지표는 [표 41]와 같다.

[표 41] 사회응집 관련 신규 복지지표

		지표 명	정의	출처	
생애주기별 복지 지표	아동·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다문화 아동 수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동의 수와 그 중 국적 취득 아동과 미취득 아동의 수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다문화 아동 학교 진학률	전체 다문화 아동 대비 학교 진학 다문화 아동 비율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활용 추산
			다문화 아동 학업성취도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동의 학업 성취 수준	신규
			청소년 자살률	5~24세 청소년 10만명당 자살자 비율	국가통계포털-사망원인통계 활용 추산
			학교폭력 발생건수 및 신고건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 급우나 또래로부터 폭력경험 발생 수 및 신고 건수	국가통계포털-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활용 추산
			학교 내 집단따돌림 혹은 왕따 피해아동 현황	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의 여부	신규
			아동·청소년의 범죄율	전체 아동·청소년 대비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비율	국가통계포털-범죄통계 활용 추산
			아동학대 발생 건수	소득계층별, 학대유형별 아동학대 건수	청소년 통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활용 추산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발생 건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신고 건수	국가통계포털-범죄통계 활용 추산
	복지 노력	수급가구 내 장애아동 수당 수급가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내에서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가구	국가복지정보포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활용 추산	

		지표 명	정의	출처
			총수	
		다문화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비율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다문화 아동에 대한 복지비 지출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보건복지지출 총액	신규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 건수	소득계층별, 학대유형별 학대아동에 대한 사후지원 건수	신규
		학생인권 조례현황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중 학생인권 조례 제정한 학교 비율	신규
		가정보호사업 실적	가정보호사업(부모의 빈곤, 실직, 미혼모 출산, 실종, 등으로 인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입양·가정위탁 등의 사업) 대상 가구 수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성인기 (25-64세)	사회적 상황	범죄율	인구1000명당 범죄발생 비율	범죄통계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비율	사망통계
		삶에 대한 만족도	4점척도로 구성된 만족도	한국노동패널
		일에 대한 만족도	4점척도로 구성된 만족도	한국노동패널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4점척도로 구성된 만족도	한국노동패널
		결혼이민자 가정 가정 폭력 발생 및 신고건수	결혼이민자 가구의 가정 폭력 발생 및 신고 건수	신규
		투표율		국가통계포털/선거관리위원회
	수감자 수		법무연감	
	복지 노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와 관련한 지출 상황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와 관련한 지출 상황	신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관련 지출 비중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항목별 지출 비중	신규
노년기 (65세 이상)	사회적 상황	노인자살률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의 비율	통계청-사망원인통계연보 재가공
		노인학대 발생률	조사대상 전체가구내의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녀, 손자·손녀 및 기타 가족원에	여성가족부-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지표 명	정의	출처
			의한 폭력발생률	
		노인 투표율	전국 및 지방단위 선거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령대별 투표율
		노인 대상 범죄율	연도별 60세 이상 범죄피해자의 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정보시스템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	연령대별(60-64, 65-69, 70-74, 75-79, 80+)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분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통계)
	노인의 삶의 만족도	노인의 교육 수준·취업 상태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국가통계포털-전국 노인생활 실태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	
	복지 노력			

5) 지속가능성 관련 신규 복지지표

[표 42] 지속가능성 관련 신규 복지지표

		지표 명	정의	출처
핵심 복지지표	사회적 상황	주요한 노동시장 이탈 연령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 - 최종은퇴연령	한국노동패널-중고령자 부가조사
	복지 노력			

## 제6장 결론: 정책과의 연계방안 및 향후과제

### 1. 정책과의 연계방안

지난 시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학계의 노력에 의해 한국의 복지통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구석들이 도처에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었다. 기존 복지지표의 문제점들에 대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극복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복지지표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한 중복과 누락의 방지

기존 복지지표들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하면서 때로는 누락된 통계부분이 있거나 때로는 중복된 통계가 존재하는 등의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복지’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자료들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되기보다는 분산적이고 부분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e-나라지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등 여러 가지 기존 복지지표 체계를 검토한 결과, 사업별 혹은 대상 군별로 지표의 분류기준이 혼재하는 등 주로 지표별 관리주체로서의 부처별 행정부서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지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통계지표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보다 지속적인 지표체계의 통합관리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호주 등 외국 일부국가의 경우, 통계청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지표 전반을 관련 부처와의 협의 하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추후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서 개별 부처의 전문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스웨덴이나 일본과 같은 분산형 지표체계를 유지하는 나라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합관리의 전체 밑그림을 조정하는 것은 특정 통합관리기구가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항목의 선정과 개별지표의 관리 등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통합의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가 충돌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 부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지표선정 상의 의견 배치 또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칭 ‘사회지표 운영위원회’를 총리실이나 국회에 두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개별

부처별로 특성화된 연계위원회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지표 운영위원회'를 두고 상위 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2) 이론적 근거의 강조를 통한 정책관련 체계지속성의 확보

기존 복지지표체계가 부처별로 업무 혹은 대상자 중심의 편의적 분류를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복지지표체계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PSR 방식을 차용(사회적 맥락→사회적 상황→복지노력)하였고, OECD와 EU 사회보호위원회의 분류를 따라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 지속가능성의 구분을 포함하는 이론적이고 국제비교 가능한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사실상, 기존의 복지지표 및 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제안들은 업무관련 편의성에 치우쳐 있었고, 이론적 기반이 전무했다. 복지지표를 분류하는 기준들(대상인구 집단, 제도, 주제 등)이 제시된 경우에도 이것이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동시에, 사회문제 혹은 욕구(need)를 확인하는 지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response) 혹은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들로 구분하여 복지지표체계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도 거의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의 복지지표는 우리 사회의 복지발전과 삶의 질의 수준을 중요도의 측면에서 확인하고, 복지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work)과 그에 따른 지표의 체계화는 결국 정책의 목표와 수단사이의 연결고리를 명시적으로 확인시켜줌으로써 정책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가이득은 원인과 결과 혹은 상황과 노력을 이론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책성과홍보의 견지에서 언론과 국민을 설득하는데 더욱 용이한 논리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점은,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재구조화된 지표체계는 혹여 부처의 업무가 조정되거나 동일한 욕구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다른 수단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지속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금'이 하위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지표체계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방편이 연금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지만,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이론적 지표체계는 연금지출을 다른 지출로 바꾸는 간략한 지표변경 만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 3)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성과의 객관화

기존 복지 지표 체계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복지통계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함에 따라서 한국의 복지발전을 측정하고 논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정책 수행 및 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정책성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 이용자 중심의 가공통계의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분석틀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OECD와 EU의 분석틀을 차용하였다.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서 OECD와 EU는 사회/복지통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비교 가능한 복지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요컨대,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분석틀은 거의 그대로 추후 OECD(혹은 EU)의 체계로 결과할 것이며, 이는 우리 복지 지표 체계화를 선제적으로 재편함을 의미한다. 정책적 견지에서 미래지향적인 개혁일 것이며, 비용효과적인 제안일 것이다.

무릇, 한 나라의 정책적 성공은 그 나라의 통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동일한 성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양극화될 소지가 다분하다.<sup>16)</sup> 이 경우, 외국과의 비교, 특히 동일한 사회적 맥락으로 통제된 이후에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을 연결 짓는다면 한국 복지 정책의 성공과 실패가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조망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의 수준인 1인당 GDP 2만불 시점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으로 비교대상 국가들을 묶었을 경우, 우리의 '복지노력(welfare effort)'인 복지지출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에 따라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인 빈곤율의 증감을 보다 객관화시켜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4) 보고조사와 조사통계의 원자료를 활용한 지표생성의 비용절감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신규지표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존 통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기존 관련 연구들의 지표화 방안들에서는 기존 원 자료(raw data)를 추가 분석한 2차 가공통계를 실제 정책운영 과정에 반영시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복지통계가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도구가 되지 못하였다며 온 것은 관련정책의 실패요, 비용효과성에 대한 책임방기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규지표들의 경우, 일단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원자료의 가공에서 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건·복지 관련 패널 등이 상당수 이루어졌고, 수많은 보고·조사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자료를 적극적으로

16) 예컨대, 물이 '반잔밖에 안남은' 경우와 '반잔이나 남은' 경우의 해석은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의견분기를 예시하는 상식적 사례이다.

로 2차가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상황이다. 요컨대, 기존의 조사들에 대한 예산집행의 조건으로 본보고서가 제안하는 지표들에 대한 가공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proactive) 그리고 정책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복지통계의 새로운 체계화가 가능할 것이라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복지욕구와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통계의 생산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통계예산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러한 새로운 지표의 예로서 본 보고서에서 완전히 다루지 못한 측면은 웰빙, 인식, 욕구 등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subjective indicators)이며, 신규 통계생산 예산은 이 분야에 소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5) 정책 성과지표 개편 및 발굴시의 원칙으로 활용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성과지표는 430여개인데, 부내 개별 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것들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물론 각 과가 해당분야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유효한 성과지표 발굴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와 관련한 대청와대·대국회·대언론·대국민 메시지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성과지표체계를 발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성과지표개발은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강조하고, 비용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던 바 크다. 그리고 초기에는 주로 형식적인 틀거리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음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성과지표가 활용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으며, 성과지표에 기반을 둔 업무평가의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기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초기의 형식적·맹아적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확실하고 정치한 평가준거로 기능할 것을 주문받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와 신규지표의 개발방안은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본원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정책성과지표는 정부조직 및 기능의 개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으로 종래의 투입 혹은 과정중심적 정부운영체제에서 성과중심의 정부운영체제로의 변화를 강조하는 최근 경향의 산물이다. 성과중심 행정체제는 기존의 투입요소의 통제방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업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결과에 초점을 맞춘 능동적인 자세로 전화함을 의미한다. 성과의 개념은 정부부문의 공공재 및 서비스생산과 관련한 투입, 산출 및 성과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투입(input)은 공공재 및 서비스의 생산비용, 예를 들어 인건비, 물건비, 감가상각, 자본비용 등을 의미한다. 산출(output)은 이와 같은 투입물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재 및 서비스의

생산물을 의미한다. 성과(outcome)는 이와 같은 산출에 의해서 정부부문이 추구하는 목적적 효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성과지표의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목적'에 관한 합의의 가능성 문제가 된다.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전문가의 기술적(technical) 판단에 의해 정해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목적에 대한 효과적 정책노력에 관한 지표화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분야의 관료 및 학자 등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차원에서의 목적과 관련된 이론적 지표화가 더욱 근본적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이론적으로 정치한 분석들은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연계될 부분이 많다. 첫째, 성과의 '목적'에 관한 우선순위를 이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칭) '복지지표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활용할 경우, 본 보고서의 이론적 체계의 세부적 지표설정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복지정책의 목적'들이 선별되고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이다.

## 2. 후속과제 및 연구에 관한 제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한국적 (사회)복지지표가 지니는 단편적이고 탈이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이론적이고 국제비교 가능한 새로운 복지통계지표의 체계와 틀을 발굴하는 것이었다. 둘째, 연구의 규모와 기간적 제약으로 인해, 국제비교 가능한 전체적인 윤곽과 틀을 작성하는 것 이외의 작업들은 후속 과제로 대폭 미루었고, 주로 양적인 지표의 신규개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 중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후속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질적·주관적 측면의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복지지표를 포함한 사회지표란,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척도로서, 양적·질적 측면 모두를 포괄한다. 기존의 통계자료들은 대부분 양적 측면에 대한 것이었으나, 앞서 살펴본 OECD나 EU, 스티글리츠위원회 등 주요 외국 썹크탱크들의 경우는 태도 혹은 인식 등을 포함한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지표들이 경제적 생산이나 물질적인 측면의 복지와 관련되었다면, 이제 삶의 질(quality of life), 복지, well-being을 구성하는 주관적 차원을 포괄하는 새로운 복지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탈물질주의로 표상되는 후기근대화시대의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새로이 제안하는 복지통계 지표체계에서도 국민 혹은 복지인구의 경제생활, 소득수준, 복지수급 여부와 같은 객관지표를 넘어서서 사회·심리적 상태, 인식과 태도 등에 대한 주관지표들을 대폭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실상, 한국의 기존 사회정책연구들은 복지를 정책공학적인 견지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짙다. 즉 소득, 장애여부, 가족상황 등 객관적 '욕구'에 근거하여 복지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와 지속은 객관적 '욕구'의 증가만으로 담보되지는 않으며, 욕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그에 따른 정치적 '요구' 또는 '선호'를 통해 매개될 때에만 가능해진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객관적 욕구의 증가는 연금제도와 같은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금 축소의 논리가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연금수혜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연금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임의가입이 상당 폭 증가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복지욕구를 태도와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복지지표에 포함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와 같이 욕구와 관련된 태도와 인식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총량자료뿐 아니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미시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시자료를 통해 복지제도가 개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친복지-반복지의 균열지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며,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루어질 욕구,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회조사는 매년 30여 개국에서 표준화된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이나 국제가치관 조사(World Value Study)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SSP의 주제모듈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과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 등은 수많은 복지관련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OECD 등의 주관적 지표와도 연동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항들을 통해 복지제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간(cross-national)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복지지표를 국제기준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향후 실시될 질적·주관적 조사에서는 ISSP가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 복지에 대한 항목뿐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 복지수급의 종류와 여부에 대한 항목 등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ISSP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태도조사로서, 복지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다. 이에 복지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복지인식에 대한 폭넓고 상세한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객관적·주관적 복지욕구 및 한국의 복지제도 수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한 국가 내에서 복지수급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복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한 해의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만으로는 정책변화에 따른 복지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전반의 가치

도 변화하고 있어, 패널이 아닌 웨이브의 방식으로라도 적어도 매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2) PSR의 인과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비교지표로의 확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OCX 등에 연동되는 OECD에 대한 객관적 국가복지지표를 보고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SOCX 등의 OECD 지표들은 주로 지출측면에만 치중되어 있다. 문제는 본 보고서가 제안하다시피 지출자료 만으로는 한국적 사회맥락, 사회상황과는 유리된 채 복지노력의 일부만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OECD자료를 활용하는 학자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하는 사항도 바로 이것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포괄적인 비교지표 생산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복지지표를 정책에 제대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포괄적인 면에서 복지국가 비교를 위한 지표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이 이론에 근거하고, 정치한 상황 통계에 근거하려면, 그리고 외국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정책적 성공을 수용하고 실패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비교지표의 개발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비교지표자료는 다음과 같다. 현재 존재하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계량적 비교자료 중 가장 최신 자료이자 널리 이용되는 데이터셋인 '비교 복지국가 데이터셋'(Comparative Welfare State Dataset: CWSD)은 1994년 Huber, Stephens와 Ragin에 의해 「비교 관점에서 바라 본 복지국가 : 결정요인, 특징 및 결과(The Welfare St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Determinants, Characteristics and Outcome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이후 2004년 4월에 Stephens, Brady, Beckfield가 업데이트 한 바 있다.

CWSD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8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변수들이 2000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①사회지출 및 수입 관련 자료, ②노동시장 관련 자료, ③인구학적 자료, ④거시경제 자료, ⑤정치 관련 자료, ⑥임금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변수들의 항목과 수는 임금 및 급여 관련 데이터 7개 변수, 사회적 소비와 세법 그리고 복지국가 데이터 36개 변수, 노동력 및 노동제도 데이터 45개 변수, 인구통계 데이터 16개 변수, 거시경제 관련 데이터 51개 변수, 정치 관련 데이터 45개 변수 등이다. 이들 변수들은 OECD(Health Data ECO-SANTE; Main Economic Data; Labor Force Statistics),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Database), ILO(The Cost of Social Security;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변수들을 보다 세분화시키고, 복지국가와 관련된 연구에 필수적이거나 그동안 CWSD에서 담고 있지 않던 변수들을 새롭게 수집하거나 관련 데이터셋을 통합함으

로써, 더욱 포괄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여기에는 OECD의 사회지출 데이터셋(Social Expenditure Dataset: SOCX)의 세부항목별 변수 구성, OECD 노동력 통계(Labor Force Statistics)에서 제공되는 상세한 변수들, 가족 데이터(Family Data), 조세 데이터(Tax Data), 사회보험의 자격 및 급여수준 관련 데이터,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민권 지표'(SCIP) 등의 변수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작업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G20등으로 대표되듯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선진국이 제안한 정책방향에 무조건 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보다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복지부문에서도 OECD 사회장관회의 등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지표들을 제안하는 등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의 제언은 그러한 미래적 함의를 담고 있다 하겠다.

### 3) 분야별 지표 세련화 작업의 지속과 대표성 있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본보고서에서 생애주기별 지표선정 및 신규지표개발까지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기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완성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본 보고서에 틀에 맞추어 각 부문별 지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세련화 하는 작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정책연계 방안에서 제안한 바, 대표성 있는 통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위원을 선정하는 문제이다. 복지지표의 내용을 확정하는 문제는 사실상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자 규범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위원의 면면에 대해 관계 혹은 학계에서 모두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컨대 사회복지학회 등에 위원회 구성 중 상당부분을 위임 방식 등도 위원선정의 대표성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경환 외(2009a), 『OECD기준에 따른 한국의 Family Database 구축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외(2009b), 『2007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2001), “복지통계의 생산현황과 과제: OECD 요구 통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통권 61호, pp.37-42.
- 윤치근·이승욱·윤병준(2006), “우리나라 복지통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1권 제1호, pp.3-20.
- 이재형(2004),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희길·심수진(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III권, 통계개발원.
- 홍승아·류연규·김영미·최숙희·김현숙·송다영(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dema, W. and Ladaique, M.(2005), Net Social Expenditure, 2005 Edition: More Comprehensive Measures of Social Support,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29.
- Christian, D. E.(1974), International Social Indicators: The OECD Experience, Social Indicator Research 1:169-186.
- Cobb, Clifford, W. and Rixford, C.(1998), Lessons Learned from the History of Social Indicators, Redefining Progress.
- Elvers, E.(2005), Sufficient Quality for Official Statistics - The Swedish Approach. Paper presented at Joint Statistical Meeting 2005 ASA Section on Survey Research Methods. Minnesota August 7-11, 2005.
- European Commission(2006), Social Protection Social Inclusion: Common Indicators, Employment, Social Affairs& Equal Opportunitie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08), Portfolio of overarching indicators and streamlined social inclusion, pensions, and health portfolios, Social Protection Committee, Brussel: European Commission.
- Heinz-Herbert, Noll(2002), Towards a Europe 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Theoretical

- Framework and System Architecture, *Social Indicator Research* 58:47-87.
- Kraus, Franz(2009),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Reporting and Welfare Measurement*.
- La Porta et al(1999), *The Quality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5(1):222-279.
- Land, K. C.(1983), *Social Indicator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26.
- Lundholm, Gunilla(2004), *The System of Official Statistics in Sweden Coordination through Cooperation, Statistical Journal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Vol.21, No.3-4, pp247-254*.
- Noll, H. H.(2002),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Theoretical Framework and System Architecture, Social Indicator Research, 58:47-87*.
- Noll, H. H.(2000),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Reporting: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 Noll, H. H.(1996),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reporting -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in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ed.), Symposium on Measuring Well-Being and Social Indicators Final report* (<http://www.ccsd.ca/noll1.html>).
- OECD(2009), *Measuring and Fostering Well-Being and Progress: The OECD Roadmap, OECD*.
- OECD(2010), *Interview with Simon Chapple (Senior Analyst, Social Policy Division), M. Maxime Ladaique (Statistician, Social Policy Division), Heon Joo Kim (Social Policy Division), Luca Lorenzoni (Health Division), 25th June 2010, Paris: OECD*.
- OECD(2009), *Comparative Child Well-Being across The OECD, Doing Better for Children, Bookmark this page: [www.oecd.org/els/social/childwellbeing](http://www.oecd.org/els/social/childwellbeing)*.
- Osberg, L. and Sharpe, A.(2001), *Trends in Economic Well-Being in Canada in the 1990s, in Banting, Keith, G.(eds.) The Review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he longest Decade, Canada in the 1990s,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Canadian electronic library*.
- Parke, R. and Seidman, D.(1978),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Reporting,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35:1-22*.
- Sheldon, E. B and Freeman, H. E.(1970), *Notes on Social Indicators: Promises and Potential, Policy Sciences* 1(1):97-111.
- Shimizu, Makoto(2009), *New Statistical System for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Japan*.
- Stiglitz Commission(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Stiglitz, J.(2009), Progress what progress?, OECD Observer.

Trewin. D.(2001), Measuring wellbeing: Frameworks for Australian social statistics, Canberra: Australian Bureau Statistics.

United Nation(1975), World Economic Survey, 1974,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Walker, A.(2009), The Social Quality Approach: Bridging Asia and Europe, Development and Society 38(2):209-235.





**[부록 1] 국가통계포털 대상별 복지통계 지표 목록**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영유아	영유아인구현황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1960-2050
영유아	영유아인구현황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1970-2030
영유아	영유아인구현황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	각 시도 (정책)기획관리실	1992-2009
영유아	영유아인구현황	총조사인구 총괄(행정구역/성/연령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1925-2005
영유아	영유아인구현황	장래인구 특별추계 0~5세아 인구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영유아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현황-총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7
영유아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보육시설현황-시도별, 설립주체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7
영유아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시도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7
영유아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시도별, 설립주체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7
영유아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특수보육시설-영아전담시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7
영유아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비율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영유아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지역별 유치원 설치 현황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영유아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보육과 교육 기관 이용자수 및 비율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영유아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현황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현황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영유아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	보육료 지원 아동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영유아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	제 특성별 취업모의 아동양육의 어려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영유아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	영유아 연령별 양육 지원기관 이용수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영유아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	영유아 연령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영유아	영유아 양육지원 현황	모취업별 아동구분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4
아동	아동취학 및 학업(비용)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6-2008
아동	아동취학 및 학업(비용)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6-2008
아동	아동취학 및 학업(비용)	아동 분야 재정 부담 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7
아동	아동복지 및 상담	아동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이용만족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7-2008
아동	아동복지 및 상담	아동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7-2008
아동	아동복지 및 상담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자립과	1999-2007
아동	아동복지 및 상담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6
아동	아동복지 및 상담	아동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정도(학교급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6
아동	아동복지 및 상담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6-2008
아동	아동복지 및 상담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6-2008
아동	아동복지 및 상담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연구실	2006-2008
아동	아동입양	입양에 대한 견해(15세이상 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아동	아동입양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15세이상 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아동	아동입양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동 수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과	1994-2007
청소년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만 24세 이하)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6
청소년	청소년흡연	청소년(중고생) 흡연율 - 남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2000-2007
청소년	청소년흡연	청소년(중고생) 흡연율 - 여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2000-2007
청소년	청소년 문화활동	지난 1년동안 부모와의 문화예술 관람 및 여행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6
청소년	청소년 고민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주된 응답, 15~24세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청소년	청소년 고민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복수 응답, 15~24세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청소년	청소년 고민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15~24세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생수,학급수,교원수	산업세세분류 및 시도별 학급수, 재적학생수, 교원수 (교육서비스업)	통계청 경제통계국 경제총조사과	2005
학생	학생수,학급수,교원수	학생수	통계청	1965-2008
학생	학생수,학급수,교원수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통계청	1965-2008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전반적인 학교생활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교육내용(수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교육방법(수업지도, 평가)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학교시설 및 설비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교유관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교사(교수)와의 관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학교주변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전공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수준 및 기대교육목적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수업참여도(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교육내용, 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교육방법, 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교유관계, 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교사(교수)와의 관계, 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시설 및 설비, 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주변환경, 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교사(교수)수준, 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전공, 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학교생활, 15세이상 재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수준 및 기대교육목적 (학생인 15세이상 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8
학생	학교생활	수학 능력 수준의 분표 (지역 및 설립주체별, 점수 및 통계치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조사연구팀	2006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학생	학교생활	수학 능력 수준의 분포(지역규모별, 점수 및 통계치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조사연구팀	2005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학생과 학생이외 인구의 평균시간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학생과 학생이외 인구의 행위자비율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학생과 학생이외 인구의 행위자평균시간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학생의 재학정도별 평균시간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학생의 재학정도별 행위자비율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학생의 재학정도별 행위자평균시간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교제,일반인의 학습' 행위자비율 -10세이상 남녀, 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관람' 행위자비율 -10세이상 남녀, 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운동,취미활동,여가관련 물품구입'행위자비율 -10세이상 남녀, 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생활시간 활용 (일반인 포함)	교제 및 여가관련 이용' 행위자비율-남자,여자,학생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1999-2004
학생	교육비 지출 및 교육시설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교육비 지출 및 교육시설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내역별 지출액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4
학생	신체검사 현황	시도별 학생표본 신체(키) 검사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1975-2005
학생	신체검사 현황	학생체격현황(학교 및 연령별, 성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행정관리과	1998-2006
학생	신체검사 현황	학생 체격 상황(표본)	대구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 총무과	1983-2006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학생	신체검사 현황	학생체격 현황	경기도교육청총무과	1999-2006
학생	신체검사 현황	학생체격 현황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과학직업정보과	1974-2004
학생	신체검사 현황	초, 중등학생 체격검사 현황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2002-2005
노인	고령자(노인)현황	연령/성별 고령자(60세 이상)-시군구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노인	고령자(노인)현황	성/세대구성/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5세 이상)-시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노인	고령자(노인)현황	산업/성/종사상 지위별 고령자(65세 이상)-시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노인	고령자(노인)현황	산업/성/종사상 지위별 고령자(60세 이상)-시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노인	고령자(노인)현황	생활비원천별 고령자(65세 이상)-시군구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노인	고령자(노인)현황	생활비원천별 고령자(60세 이상)-시군구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노인	고령자(노인)현황	노인가구형태별 노인의 일반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정책팀	2004
노인	노인소득	생활비 마련방법 : 60세 이상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존 소득원	농림수산식품부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04
노인	노인소득	가구주의 일반특성, 소득원별 유무(노인가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정책팀	2004
노인	노인소득	가구주의 일반특성, 소득원별 소득수준(노인가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정책팀	2004
노인	노인소득	노인가구소득 중 노인개인소득의 비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정책팀	2004
노인	노인복지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현황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2005-2007
노인	노인복지	경로연금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기초노령연금과	1998-2007
노인	노인복지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복지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주된응답) : 60세 이상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복지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복수응답) : 60세 이상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복지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7-2008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노인	노인복지	가장 필요한 노인복지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04
노인	노인복지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농림수산식품부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04
노인	노인복지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동실천 여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정책팀	2004
노인	노인복지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된 운동 종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정책팀	2004
노인	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률, 향후 이용희망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정책팀	1998-2004
노인	노인문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6
노인	노인문제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주된 응답) - 60세이상 가구원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5
노인	노인문제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복수 응답) - 60세이상 가구원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5
노인	노인문제	노후준비 방법(주된 응답) : 18세 이상 가구주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문제	노후준비 방법(복수 응답) : 18세 이상 가구주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문제	노후준비 방법(주된 응답) : 18세 이상 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문제	노후준비 방법(복수 응답) : 18세 이상 인구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문제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주된 응답) - 60세이상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문제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복수 응답) - 60세이상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문제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주된 응답) : 60세 이상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문제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복수 응답) : 60세 이상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문제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 60세 이상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7
노인	노인문제	노인 분야 재정부담 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초보장연구실	2007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성/연령/혼인상태/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이상)-시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성/교육정도/산업별 취업자(15세이상)-시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성/교육정도/직업별 취업자(15세이상)-시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세대구성/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인구(15세이상)-시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성맞농가,비농가별 경제활동인구(구직기간 1주기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1982-2010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1999-2010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6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취업 장애요인(주된 응답)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6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취업 장애요인(복수 응답)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6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저출산인구정책과	2005
여성	여성가구주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여성	여성가구주	가구주의 성/연령/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여성	여성가구주	가구주 성별 자산현황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06
여성	여성가구주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현황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06
여성	가사 분담 현황	가구분담 실태(부인)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6
환자	암	암 발생률-전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2002-2005
환자	암	암 발생률-남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2002-2006
환자	암	암 발생률-여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2002-2007
환자	암	10대 암 발생률 및 5년 상대생존율(전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2002-2008
환자	암	10대 암 발생률 및 5년 상대생존율(남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2002-2009
환자	암	10대 암 발생률 및 5년 상대생존율(여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2002-2010
환자	정신질환	부랑인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현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01-2006
환자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군별 발생현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전염병감시과	1996-2006
환자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발생현황-지역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전염병감시과	2001-2006
환자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발생현황-연령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전염병감시과	2001-2006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환자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발생현황-월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대응센터 전염병감시과	2001-2006
환자	전염병 및 기타	사망원인 생명표(5세간격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1995-2008
환자	환자 일반현황	외래환자수-상병분류별, 성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2002-2005
환자	환자 일반현황	퇴원환자수-연령계층별, 성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2002-2006
환자	환자 일반현황	퇴원환자수-상병분류별, 성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2002-2007
장애인	장애인 현황	등록장애인수-장애유형별, 시도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1999-2007
장애인	장애인 현황	등록 장애인 현황-유형별, 등급별, 남녀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7
장애인	장애인 현황	등록 장애인 현황-시도별, 유형별, 남녀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7
장애인	장애인 현황	등록 장애인 현황-시도별, 등급별, 남녀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7
장애인	장애인 현황	등록 장애인 현황-등급별, 시도별, 유형별, 남녀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7
장애인	장애인 복지	특수보육시설-장애아전담시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7
장애인	장애인 복지	특수보육시설-장애아통합시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2007
장애인	장애인 복지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5세이상 가구원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5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 분야 재정부담 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7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만족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6-2008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자영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이용 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6-2008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7-2008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7-2008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7-2008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7-2008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7-2008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7-2008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 LPG 차량 등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2006-2008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 시설 수 및 생활인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	2001-2007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	2002-2007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장애인	장애인 복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	2002-2005
장애인	시각장애인	성별, 연령별 시각장애 출현율(성별, 연령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5
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의 시력인지 여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5
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의 우안시력(성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5
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시기(성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5
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성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5
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의 점자해독 여부(성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5
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의 좌안시력(성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5
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의 후천적장애 발생시기(성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5
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의 후천적장애 원인(성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05
외국인	외국인 현황	시군구별 외국인 등록인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팀	1992-2009
외국인	외국인 현황	성/연령별 외국인-시도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외국인	외국인 현황	국적/성/연령별 외국인-전국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외국인	외국인 현황	국적/성/직업(대분류)별 외국인-전국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외국인	외국인 현황	국적/성/교육정도별 외국인-전국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05
외국인	외국인과의 혼인	다문화(혼혈인) 가구원을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할 사항(복수 응답)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6
외국인	외국인과의 혼인	다문화(혼혈인) 가구원을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할 사항(주된 응답)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06
외국인	외국인이동 현황	성/국적별 외국인 국제이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0-2008
외국인	외국인이동 현황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00-2008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7-2008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법인 규모별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6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법인 규모별 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6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외국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7-2008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7-2008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외국법인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5-2008

대상분류	분류기준	지표	자료기관	자료기간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외국인 투자법인 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5-2008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외국인 투자법인 감면 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5-2008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국내진출 외국기업 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2-2008
외국인	외국인 사업 현황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2005-2008

**[부록 2] 보건복지통계연보(2009년도) 제공 지표 목록**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1.1.1	인구	총인구	총인구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1	인구	총인구	남성인구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1	인구	총인구	여성인구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1	인구	총인구	성비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1	인구	총인구	인구성장률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2	인구	총인구	5세연령계급별인구	2002-200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2	인구	총인구	5세연령계급별남성인구	2002-200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2	인구	총인구	5세연령계급별여성인구	2002-200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3	인구	총인구	0-14세 인구 및 구성비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3	인구	총인구	15-64세 인구 및 구성비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3	인구	총인구	65세이상 인구 및 구성비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3	인구	총인구	총부양비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3	인구	총인구	유년부양비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3	인구	총인구	노년부양비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3	인구	총인구	노령화지수	1960-205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1.4	인구	총인구	시도별 인구(주민등록)	2002-2008	통계청	전국주민등록인구동태
1.1.5	인구	총인구	7대 도시 및 수도권 인구추이	1960-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2.1	인구	출생,사망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	1975-200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2.2	인구	출생,사망	출생시 기대여명 및 출생성비	1975-2007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2.3	인구	출생,사망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1985-200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2.4	인구	출생,사망	출생 순위별 출생성비	1985-200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2.5	인구	출생,사망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	1976-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보고서
1.2.6	인구	출생,사망	사망률-성별, 연령별	1996-200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2.7	인구	출생,사망	영아사망률-지역별	1993-2006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1.2.8	인구	출생,사망	모성사망비 - 연령별	1995-2006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1.2.9	인구	출생,사망	간이생명표(전체)	2007	통계청	생명표
1.2.10	인구	출생,사망	간이생명표(남자)	2007	통계청	생명표
1.2.11	인구	출생,사망	간이생명표(여자)	2007	통계청	생명표
1.3.1	인구	결혼, 이혼	조혼인율, 조이혼율	1980-200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3.2	인구	결혼, 이혼	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 연령	2001-200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3.3	인구	결혼, 이혼	이혼사유별 구성비	2001-200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1.1	국민건강	국민영양	식품군별 섭취량(1인 1일당)	1985-2007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2.1.2	국민건강	국민영양	영양소 섭취량(1인 1일당)	1970-2007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2.1.3	국민건강	국민영양	단백질, 지방, 당질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량 구성비율	1970-2007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2.1.4	국민건강	국민영양	비만도 분포(전체) - 연령별, 19세이상	1998, 2001, 2005, 2007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국민건강통계
2.1.5	국민건강	국민영양	비만도 분포(남자) - 연령별, 19세이상	1998, 2001, 2005, 2007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국민건강통계
2.1.6	국민건강	국민영양	비만도 분포(여자) - 연령별, 19세이상	1998, 2001, 2005, 2007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국민건강통계
2.1.7	국민건강	국민영양	고혈압 분포 - 30세이상	1998, 2001, 2005, 2007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국민건강통계
2.1.8	국민건강	국민영양	고콜레스테롤혈증분포 - 30세이상	1998, 2001, 2005, 2007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국민건강통계
2.1.9	국민건강	국민영양	당뇨병 분포 - 30세이상	1998, 2001, 2005, 2007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국민건강통계
2.1.10	국민건강	국민영양	현재 흡연율 - 19세이상	1998, 2001, 2005, 2007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2.2.1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입원외래환자수 - 의료기관별	2002, 2005, 2008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환자조사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2.2.2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명당) - 상병분류별, 성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환자조사
2.2.3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명당) - 기관종류별, 시도별	2002, 2005, 2008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환자조사
2.2.4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외래환자수 - 연령계층별, 성별	2002, 2005, 2008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환자조사
2.2.5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퇴원환자 평균입원일수 - 상병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환자조사
2.2.6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제1군 전염병 발생수 및 사망자수 - 전염병 종류별, 시도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	전염병 감시연보
2.2.7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제2군, 제3군,4군 전염병 발생수 - 전염병 종류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	전염병 감시연보
2.2.8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2001-2008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2.9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암 발생률(전체)	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2.10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암 발생률(남자)	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2.11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암 발생률(여자)	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2.12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10대암 발생률(전체)	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2.2.13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10대암 발생률 - 성별	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2.14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시도별 암발생자 분포	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2.15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암종별 발생자 분포 - 연령군별, 성별	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2.16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암종별 발생률 분포 - 연령군별, 성별	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2.17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10대암의 5년 상대생존률(전체)	1993-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2.18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10대암의 5년 상대생존률 - 성별	1993-2005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한국중앙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2.19	국민건강	질병 및 사망원인	정신질환 유병율	2006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2.3.1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주관적 개인의 건강평가(15세이상)	1986-2008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3.2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의료서비스 이용률(15세이상)	1999-2008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3.3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008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3.4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2003-2008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3.5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연간 담배 판매량	1985-2007	경영정보국	
2.3.6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음주인구 비율(20세이상 인구)	1986-2008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3.7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음주량(20세이상 인구)	1993, 200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3.8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주류 출고량(20세이상 1인당)	1982-200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2.3.9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 연령별, 19세 이상	2005, 2007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2.3.10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 연령별, 19세 이상	2005, 2007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2.3.11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일상생활 활동정도(20세이상)	2001, 2005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2.3.12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하루 평균 수면시간(19세이상)	2001, 2005, 2007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2.3.13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19세이상)	2001, 2005, 2007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2.3.14	국민건강	보건의식행태	휴식 충분도(20세이상)	2001, 2005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2.4.1	국민건강	보건사업	헌혈률 및 헌혈성비 - 연도별	1993-2008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혈액사업통계연보
2.4.2	국민건강	보건사업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 - 전염병 종류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예방접종 행정지원 홈페이지
2.4.3	국민건강	보건사업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 실적 - 시도별	2003-2008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2.4.4	국민건강	보건사업	보건소 신규등록 결핵 환자수 - 시도별	2003-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전염병 감시연보
2.4.5	국민건강	보건사업	병의원 신고 결핵 환자수 - 시도별	2003-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전염병 감시연보
2.4.6	국민건강	보건사업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전염병 감시연보
2.4.7	국민건강	보건사업	한센사업대상자 진료·검진 및 이동진료 실적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전염병 감시연보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2.4.8	국민건강	보건사업	한센사업대상자 연령분포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전염병 감시연보
2.4.9	국민건강	보건사업	보건소 결핵예방 접종실적 - 시도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전염병 감시연보
2.4.10	국민건강	보건사업	보건소 결핵검진 실적 - 시도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전염병 감시연보
2.4.11	국민건강	보건사업	공항 및 해항 예방접종실적 - 검역소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2.4.12	국민건강	보건사업	공항 검역 실적 - 검역소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2.4.13	국민건강	보건사업	해항 검역 실적 - 검역소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2.4.14	국민건강	보건사업	보건소 모자보건 사업실적 - 시도별	2001-2007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	
2.4.15	국민건강	보건사업	성병정기검진 등록관리 대상자수 및 검진실적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2.4.16	국민건강	보건사업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현황 - 연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국립장기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이식통계연보
3.1.1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면허 의사수 - 성별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3.1.2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면허 치과의사수 - 성별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3.1.3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면허 한의사수 - 성별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3.1.4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면허 약사수 - 성별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3.1.5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면허 조산사·간호사수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3.1.6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자격등록 전무 간호사수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3.1.7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자격인정 전문의수·전문과목별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3.1.8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수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면허관리정보시스템
3.1.9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자격등록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수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	
3.1.10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마약류취급자 허가 현황	2003-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	
3.1.11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위생사수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원과	
3.1.12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영양사수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원과	
3.1.13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병원 종사 의료인력수-병원종류별	1999-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14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병원 종사 의료인력수-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15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수 - 기관별	1999-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3.1.16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수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17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보건소 인력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3.1.18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3.1.19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합격현황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 시험원	
3.1.20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현황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대한의사협회	
3.1.21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인력	보건인력 1인당 국민수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2.1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수 - 시도별	1990-2008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3.2.2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병원 및 의원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3.2.3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병원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3.2.4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의원 및 조산원 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3.2.5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3.2.6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병원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3.2.7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의원 및 조산원 입원진료 병상수 - 의료기관 종류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3.2.8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실적	1999-2008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3.2.9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 수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3.2.10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구급차 현황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3.2.11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시설	정신요양 시설수 및 입소자 수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4.1.1	보건사업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제조업소 - 시도별	2003-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관관리과	
4.1.2	보건사업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 화장품 생산실적	2001-2008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4.1.3	보건사업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의료기기, 의약품, 생산실적	2001-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화장품정책과	
4.1.4	보건사업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 생산실적 - 약효별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4.1.5	보건사업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한약재 생산현황 - 상위 10개 품목	2006-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4.1.6	보건사업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제약원료, 완제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수출	2000-2008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4.1.7	보건사업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제약원료, 완제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수출	2000-2008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1.8	보건사업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 등 판매업소	2003-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4.1.9	보건사업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업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	2003-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4.2.1	보건사업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식품접객업소 - 업종, 시도별	2003-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4.2.2	보건사업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소 - 업종, 시도별	2005-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4.2.3	보건사업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0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4.2.4	보건사업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종, 시도별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4.2.5	보건사업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업종, 시도별	2003-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4.2.6	보건사업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식품판매업소 - 업종, 시도별	2003-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4.2.7	보건사업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수입식품 검사실적 - 검사내용별, 검사기관별	2005-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4.2.8	보건사업	식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국내 산업대비 식품산업 비중(명목대비)	2002-200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4.3.1	보건사업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보건의료분야 R&D사업 예산현황	2004-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4.3.2	보건사업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보건의료분야 R&D사업 - 제품개발 및 수출실적	2004-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4.3.3	보건사업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보건의료분야 R&D사업 - 특허건수	2004-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4.3.4	보건사업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보건의료분야 R&D사업 - 논문게재건수	2004-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5.1.1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인력 및 시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 시도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5.1.2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인력 및 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	
5.1.3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인력 및 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수 생활인원 및 종사 자수 - 시설종류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5.1.4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인력 및 시설	사회복지관수 - 유형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5.2.1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등록장애인수 - 장애종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5.2.2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등록장애인수 - 장애등급별, 5세 연령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5.2.3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 - 장애종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실태조사
5.2.4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재가장애인수 - 성별, 연령별	2005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실태조사
5.2.5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장애인생활시설수 및 입소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5.2.6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장애인생활시설 유형별 입소현황 - 시설종류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5.2.7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 시도별	2003-200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5.2.8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 시설종류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5.2.9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현황 - 시도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5.2.10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실적 - 시도별	2004-200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5.2.11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	장애인 출현율 변화추이	1990-2005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실태조사
5.3.1	사회복지서비스	보육	보육아동현황	1990-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5.3.2	사회복지서비스	보육	보육아동현황 - 연령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5.3.3	사회복지서비스	보육	보육시설현황	1990-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5.3.4	사회복지서비스	보육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2003-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5.3.5	사회복지서비스	보육	특수보육시설 및 아동 수	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5.3.6	사회복지서비스	보육	직장보육시설 현황	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5.4.1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소년소녀 가정 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5.4.2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 입양기관수 및 입양 아동수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5.4.3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4.4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4.5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자립지원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4.6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보호치료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4.7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일시보호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4.8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직업훈련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4.9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상담소수 및 상담실적 - 시도별	2001-2007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4.10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상담 고민사항 - 시도별	2001-2007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4.11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 시도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	
5.4.12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14세이하)	1998-2008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5.4.13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5.4.14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 시도별	2005-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5.4.15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복지교사 현황 - 시도별	2007-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5.4.16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개설현황	2007-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5.1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1970-200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5.5.2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1388 청소년 전화 접수현황	2006-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한국청소년상담원	
5.5.3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청소년 상담지원 현황 - 대상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한국청소년상담원	
5.5.4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청소년 상담지원 현황 - 내용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한국청소년상담원	
5.5.5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청소년쉼터 시설수 및 보호청소년 현황 - 유형별	2005-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	
5.5.6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1998-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5.5.7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 시도별	2006-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5.5.8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수 - 성별	1995-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5.5.9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 유형별, 시도별	2004-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5.5.10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청소년 문화존 운영 현황 - 유형별, 시도별	2004-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5.5.11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	청소년 동아리 지원현황 - 유형별, 시도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5.6.1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및 가족	여자가구주 비율 - 연령별	20,00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6.2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및 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008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5.6.3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및 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5.6.4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및 가족	모자보호 생활시설수 및 생활현황 -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5.6.5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및 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수 및 이용자 현황	2004-2008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5.6.6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및 가족	국제결혼건수	1990-2008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5.6.7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및 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체류현황	2005-2008	법무부	
5.6.8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및 가족	모성보호휴가 실시현황 - 산전후 휴가	2004-2007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5.6.9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및 가족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실적	2004-2007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5.7.1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및 기타	독거노인수	2000-200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7.2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및 기타	노인복지 생활시설수 및 생활자 현황 - 시설종류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5.7.3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및 기타	노인 취업알선 실적 - 시도별	2004-2008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5.7.4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및 기타	공설묘지 이용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5.7.5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및 기타	법인묘지 이용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5.7.6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및 기타	화장장 및 봉안당 이용 현황 - 시도별	2003-2008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5.7.7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및 기타	화장물 현황 - 시도별	2001-2007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5.7.8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및 기타	부랑인 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6.1.1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6.1.2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연령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6.1.3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가구수 - 가구규모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6.1.4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가구수 - 가구유형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6.1.5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별 집행실적 - 시도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6.1.6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 -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6.1.7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연도별 최저생계비	2000-2009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6.2.1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 유형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6.2.2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 연령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6.2.3	공공부조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 연령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6.2.4	공공부조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 연령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6.2.5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6.2.6	공공부조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6.2.7	공공부조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사업실적 - 보호종류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6.3.1	공공부조	소득분배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추이	1996-200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7.1.1	사회보험	공공연금	공공연금 가입자수 - 연금형태별	1990-2008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통계연보
7.1.2	사회보험	공공연금	공공연금 수급권자수 - 연금형태별	1990-2008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통계연보
7.1.3	사회보험	공공연금	공공연금 총급여비	1990-2008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통계연보
7.2.1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형태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7.2.2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수 - 사업장 규모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7.2.3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수 - 산업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7.2.4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수 - 가입형태별, 연령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7.2.5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수 - 사업장 인원규모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7.2.6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 실적 - 급여종류별, 시도별	2000-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7.2.7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급여종류별, 연령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7.2.8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조성 현황	1988-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7.2.9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1988-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7.3.1	사회보험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실적 - 시도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	
7.4.1	사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인구 - 직역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7.4.2	사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험급여실적 급여종류별	1997-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7.4.3	사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부담액 및 요양급여의 급여액 - 월별	1998-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7.4.4	사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 직역별, 진료형태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7.4.5	사회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지역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7.5.1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현황 - 시도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7.5.2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계약현황 - 시도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7.5.3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기관현황 - 시설급여	2008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7.5.4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기관현황 - 재가서비스	2008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7.6.1	사회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1987-2008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7.6.2	사회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적용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 산업별	2004-2008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7.6.3	사회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급여지급건수 - 급여종류별	1987-2008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7.6.4	사회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급여지급액 - 급여종류별	1987-2008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7.6.5	사회보험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상황, 도수율, 강도율	1987-2008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7.7.1	사회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산업 및 시도별	2002-2008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7.7.2	사회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 - 산업 및 시도별	2002-2008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7.7.3	사회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 - 종사인원 규모 및 산업별	2008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8.1.1	생활환경	경제활동상태	취업자수 - 산업별	1995-20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8.1.2	생활환경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2002-20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8.1.3	생활환경	경제활동상태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및 근로일수	2004-2008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8.2.1	생활환경	주택 및 가구	일반가구수-주택의 종류별	1970-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8.2.2	생활환경	주택 및 가구	일반가구수-주거 부대시설별	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8.2.3	생활환경	주택 및 가구	일반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별 백분율 분포	1975-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8.2.4	생활환경	주택 및 가구	핵가족 및 직계가족 가구 등 백분율 분포	1970-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8.2.5	생활환경	주택 및 가구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백분율 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	1975-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8.2.6	생활환경	주택 및 가구	일반가구의 세대구성별 백분율 분포	1970-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8.3.1	생활환경	공중위생	공중위생영업소수 - 업종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8.3.2	생활환경	공중위생	위생처리,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소수 - 업종별, 시도별	2001-2008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8.3.3	생활환경	공중위생	공중이용시설수 - 업종별, 시도별	2002-2008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	
9.1.1	재정·경제	보건복지예산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현황	2006-2009	보건복지가족부 재정운용담당관	
9.1.2	재정·경제	보건복지예산	보건복지가족부 예산관련 지표	2006-2009	보건복지가족부 재정운용담당관	
9.1.3	재정·경제	보건복지예산	재원별 국민의료비 추이	1990-2007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구축
9.1.4	재정·경제	보건복지예산	기능별 국민의료비 추이	1990-2007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구축
9.2.1	재정·경제	국민경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2005 기준년 가격)	2000-2008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2.2	재정·경제	국민경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1992-2008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9.2.3	재정·경제	국민경제	농가가구 연평균 가계지출	1992-2008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9.2.4	재정·경제	국민경제	국내 주요 물가지수	1991-2008	통계청	소비자물가통보연계
9.2.5	재정·경제	국민경제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1975-2008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0.1.1	국제통계	국제통계	총인구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2	국제통계	국제통계	총인구(여자)	1990-2007	OECD	Health Data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10.1.3	국제통계	국제통계	총인구(남자)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4	국제통계	국제통계	부양비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5	국제통계	국제통계	0세의 기대여명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6	국제통계	국제통계	0세의 기대여명(여자)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7	국제통계	국제통계	0세의 기대여명(남자)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8	국제통계	국제통계	60세의 기대여명(여자)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9	국제통계	국제통계	60세의 기대여명(남자)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0	국제통계	국제통계	조출생률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1	국제통계	국제통계	조사망률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2	국제통계	국제통계	합계출산율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3	국제통계	국제통계	모성사망비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4	국제통계	국제통계	영아 사망률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5	국제통계	국제통계	흡연률(여자, 15세이상)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6	국제통계	국제통계	흡연률(남자, 15세이상)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7	국제통계	국제통계	활동 의사수(인구 1,000명당)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8	국제통계	국제통계	활동 치과 의사수(인구 1,000명당)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19	국제통계	국제통계	활동 간호사수(인구 1,000명당)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20	국제통계	국제통계	총보건의료비(GDP대비)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21	국제통계	국제통계	공공보건의료비(총보건의료비 대비)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22	국제통계	국제통계	사회복지 지출	1985-2005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10.1.23	국제통계	국제통계	공공사회복지 지출	1985-2005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10.1.24	국제통계	국제통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	1985-2005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10.1.25	국제통계	국제통계	입원진료 병상수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26	국제통계	국제통계	입원진료 병상수(급성질환)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27	국제통계	국제통계	입원진료 병상수(장기요양)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28	국제통계	국제통계	의약품 수출	1985-2003	OECD	Health Data

표차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기간	자료기관	자료출처
10.1.29	국제통계	국제통계	의약품 수입	1985-2003	OECD	Health Data
10.1.30	국제통계	국제통계	국내 총생산(GDP)	1990-2007	OECD	Health Data
10.1.31	국제통계	국제통계	환율	1990-2007	OECD	Health Data

[부록 3] 복지지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담당자 인견수렴 설문지

복지지표에 대한 인견수렴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입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국내외 복지지표( 복지와 관련된 보건지표 포함)들을 체계적으로 검토·정리하여, 정책의 수행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통계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지표체계를 발굴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통계 및 지표의 관리 및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지표에 대한 평가, 추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표 혹은 신규 개발되어야 하는 보건복지지표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새로운 복지지표체계를 발굴과 신규 지표 개발 등에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통계자료로만 처리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책임연구원 : 안상훈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연구소)

연락처 : 02-880-6320 / hoonco@snu.ac.kr

응답자 일반사항			
성명		소속 부서	
연락처		직책	
e-mail		담당업무	
* 기재해 주신 연락처와 e-mail은 응답 해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복지지표 현황에 대한 조사입니다.

붙임의 표는 「보건복지통계연보」와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과 보건복지부 각 과별로 담당하고 있는 복지 및 보건지표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지표들을 보시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현재 지표의 대표성]

보건복지통계연보와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은 한국의 복지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1-1)              ⑤ 전혀 그렇지 않다(☞1-1)

1-1. 지표의 대표성이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현황 및 사회변화에 대한 반영 부족  
② 현재 진행되는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부족  
③ 지표 수의 절대적 부족  
④ 양적 지표의 편중과 질적 지표의 부족  
⑤ 국제 비교성 부족  
⑥ 기타 \_\_\_\_\_

### 2. [보유 복지지표]

표에 제시된 귀 부서 소관 「복지부 보유지표」 중 보건복지통계연보나 e-나라지표 등의 간행매체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표가 있으면 모두 적어주십시오

---



---

### 3. [신규 복지지표]

표에 제시된 (보건)복지지표 이외에,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신규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표가 있으면, 모두 적어주십시오. (필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적어주십시오)



6. [현재 지표의 정책연계성]

표에서 제시된 귀 부서 소관 통계지표들은 관련 정책과 충분히 연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6-1)              ⑤ 전혀 그렇지 않다(☞6-1)

※ 정책연계성 : 관련 정책수립, 정책평가 등 반영

6-1. 지표의 정책연계성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연계성 부족
- ② 관련 정책 평가에서의 연계성 부족
- ③ 지표보다는 다른 사항(회의, 신문기사, 정치적 변화 등)을 우선 고려
- ④ 현재 진행되는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부족
- ⑤ 기타 \_\_\_\_\_

6-2. 지표의 정책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분성 향상
- ② 지표가 제공하는 내용의 다양성 향상
- ③ 사회현황 및 사회변화에 대한 반영 향상
- ④ 현재 진행되는 사회정책과의 관련성 향상
- ⑤ 지표가 제공하는 내용의 정확성 향상
- ⑥ 기타 \_\_\_\_\_

7. [복지지표 분류에 대한 만족도]

현재 보건복지지표 분류는 아래와 같이 제공주체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공출처		분류기준
①	보건복지통계연보	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인력및시설,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경, 재정 경제, 국제통계
②	보건복지부 정책통계포털	예산·일반, 보건, 보험, 기초생활·장애, 가족·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③	통계청 e-나라지표	복지 - 복지 일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연금/건강보험, 저출산/고령화 보건 - 보건일반, 식품, 질병, 건강증진, 보건산업 여성/가족 - 여성일반, 가족, 보육, 양성평등, 여성권익 청소년 - 청소년일반, 청소년보호, 청소년활동
④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일반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자복지, 아동복지, 기타 공적부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국가보훈 사회보험 -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건복지재정- 보건복지예산, 국민의료비

7-1. 위에 나열된 분류기준 중,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분류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적합하지 않다

7-2. ① ~ ④ 중,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7-3. 모두 적합하지 않다면,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는 어떠한 분류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7-4.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표의 대표성
- ② 이용자 접근성
- ③ 업무 활용도

④ 정책 연계성

⑤ 국제비교 가능성

⑥ 기타 \_\_\_\_\_

8. 그 외 복지지표체계 구성, 신규 복지지표 발굴, 지표의 정책연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록 4]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 구성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 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통계 및 지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OECD나 EU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지표 틀의 적합성이나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최근 사회통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패널조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통계 조사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복지지표들이 제공되고 있고, 현재의 복지상황이나 복지발전 수준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 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뚜렷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분석틀이 한국 사회 복지발전의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분석틀 속에 현행 한국의 복지지표들을 배치하는 작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연구진이 새로운 복지지표 체계의 중요한 준거 틀로 사용하고 있는 OECD의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 분석틀의 경우, 이론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국가 비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일국의 복지상황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제안한 새로운 복지지표 분석틀이 타당하고 적합한지,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복지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복지통계 및 지표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복지통계 혹은 지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한 고견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새로운 분석틀에 관한 내용을 읽어 보시고, 의견을 작성하시어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의견을 여쭙어볼 수도 있습니다. 연구로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개방형 질문들이라 답변이 쉽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한국 복지통계지표 발전에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2010년 7월 23일

책임연구원 : 안상훈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연구원 : 김영미(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준(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새로운 복지 지표 분석들에 관한 의견을 여쭙기 전에, 먼저 기존 복지 통계, 복지 지표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복지 통계 및 지표 현황에 관하여 저희 연구진이 조사, 정리한 내용을 참고로 하시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던 바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의견 내용이나 답변 주실 내용은 별도의 문서에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기존 복지 지표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수요 조사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복지 통계 및 지표 현황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나, 본문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음.>

1. 연구 및 강의를 수행하시거나 정책 평가 등을 하실 때, 많이 활용하거나 필요로 하시는 복지 지표가 있으시면 적어 주시고, 이 지표들을 주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2. 연구 및 강의를 수행하시거나 정책 평가 등을 하실 때, 본 연구진이 기존 복지 지표 체계를 파악하면서 주로 검토한 보건복지 통계연보와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을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만약 활용도가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적어 주십시오.
3. 보건복지 통계연보와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은 지표의 대표성, 양적·질적 충분성,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이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정책 현황 파악, 정책 평가), 국제비교 가능성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열거한 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에서의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셔도 됩니다).
4. 현재 수행 중이신 연구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고 있는 복지 지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복지 분야에서 많은 통계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조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 주십시오.
5. 그 외 한국의 복지 통계, 복지 지표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2. 새로운 복지 지표 분석틀에 대한 의견 조사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분석틀에 대한 검토 내용,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새로운 복지 지표 분석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나, 본문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음.>

-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새로운 복지 지표 체계가 한국의 복지상황과 복지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로 적합한지에 관한 의견을 주십시오. 만약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 새로운 복지 지표 분석틀에 구체적인 복지 지표들을 배치하는 작업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배치한 지표들은 현재 통계청 e-나라지표, 보건복지통계연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을 적절히 배치한 것입니다.

- 1) 복지 지표 배치가 적절한지, 배치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 2) 예컨대 사회적 맥락의 하위 분류기준인 인구, 출생/사망, 가구, 결혼/이혼, 국민경제, 이주는 임의로 설정한 것입니다. 해당 전문 분야의 지표들을 분류할 때, 적절한 하위 분류기준이 있다면 의견을 주십시오.
- 3) 현재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표가 존재하는데, 이곳에 누락된 지표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4) 현재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새로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가 있다면, 해당 cell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5) 기타 복지 지표 배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부록 5] 유럽연합(EU) 사회보호위원회의 사회정책 분석틀

3.2 핵심 지표

	핵심 차원 관련된 핵심 목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1a	빈곤 위험(a)	EU: 빈곤률  +실재 빈곤선  향후 지속빈곤율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지 고려할 것	국가 표준 중위임금2의 60%이하의 표준화된 가처분 소득을 버는 0세 이상의 인구 비율  어떤 특정한 가구 유형(예, 독신 가구)의 PPS 빈곤선(국가 표준화 소득 중위값의 60%)에 해당하는 값  출처 : SILC	전체 연령 0세~17세 18~64세 65세 이상
1b	빈곤 위험의 강도	EU: 상대적 중위 빈곤선	빈곤선 이하의 0세 이상의 인구의 표준화 소득의 중위값과 빈곤선의 차이, 빈곤선에 대한 퍼센트 값으로 표현	전체 연령 0~17세 18~64세 65세 이상
2	소득 불평등(a)	EU: S80/S20	소득이 상위 20%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과 소득이 하위 20%의 속하는 인구의 소득간 비율  소득은 표준화 가처분 소득을 의미함  출처 : SILC	없음
3	건강 불평등(a)	NAT: 건강 기대수명	영아, 45세, 65세의 개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수명(비장애 기대수명으로도 칭함)  기대수명과 아울러 해석되어야 함  출처: EUROSTAT	(각 성별로) 영아 45세 65세

	핵심 차원 관련된 핵심 목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4	교육성과와 인적자본의 형성  (a)/(b)	EU: 학업 초기포기율	18세~24세 인구 가운데서 하급 2차교육까지 받고(1997년 국제교육분류기준-ISCED 97에 따르면 그들의 등급은 0~2임) 조사시점 4주 내에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출처: LFS	성별
5	노동시장 접근 (a)/(b)	EU: 실직 가구에 속한 인구	실직 가정에 속한 인구 비율. 같은 연령 집단에 대한 퍼센트로 표현. 이 지표는 N8(주요 가구 유형에 따른 실직 가구)지표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될 필요  출처: LFS	0세~17세 18세~59세  성별
6	재정적 안정성과 사회보장시스템	NAT: 계획총공공사회지출	연령과 관련있는 총 공공 사회 지출.(예: 연금, 의료보호, 장기 보호, 교육 및 실업 이전) 현재 수준과(GDP 대비 %) 기획예산의 변화(GDP대비 %, 2010년-20년-30년-40년-50년)  AWG/EP에서 특정 가정이 설정됨. "EU-25를 위한 연령 관련 사회지출(2004~2050)에 관한 2005 EPC 계획안: 관련 가정과 방법론" 참고  출처: EPC/AWG	
7a	연금 적절성	EU: 노령자소득의 중위값 상대치	0세~64세의 임금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표준화 임금의 중위값 비율  출처: EU-SILC	
7b	연금 적절성(a)	EU: 총소득대체율	50~59세의 개인 소득의 중위값에 대한 65~74세의 개인 연금 중위값의 상대값. 사회급부는 제외.  출처: EU-SILC	성별

	핵심 차원 관련된 핵심 목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8	의료보호 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	NAT: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도  NAT: 의료 서비스 이용수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주관적으로 느낀 의료 미충족: 경제적 문제, 대기 기간, 원거리  지난 12개월 동안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은 횟수  출처: EU-SILC 향후 개정에 따라 EU-SILC에서 매년 자료 이용가능	성별  18~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75세 이상
9	경제 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 (a)/(b)	EU: 2005년 기준 대비 빈곤율  향후 물적곤궁이나 지속빈곤 지표에 의해 대체 혹은 보완될 가능성 있음	2005년(EU 25개 국가 전체에 대한 첫 EU-SILC 소득 조사 시기) 빈곤기준선 이하의 가처분 소득을 버는 0세 이상 인구 비율. 기준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것.  출처: SILC	연령 전체 0~17세 18~64세 65세 이상  성별 (단 18세 이상만)
10	노령 근로자의 고용	EU: 노령 근로자의 고용율  데이터 질 문제가 개선 될 시, 향후 “노동시장 이탈 평균 연령”으로 대체 혹은 보완이 가능함	55~59세 및 60~64세 내에서 고용 비율  출처: LFS	55~59세 60~64세  성별
11	근로 빈곤 (a)/(b)	EU: 근로 빈곤율	취업상태로 분류된 개인 가운데서(자영자를 포함한 임금 고용과 임금 고용을 구분할 것) 빈곤자 비율. 이 지표는 개인, 직장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해 분석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지표는 실업인구와 비경활인구의 빈곤율과 비교 분석 되어야함.	성별
12	노동시장 참여	EU: 경제활동참여율  향후 MWP지표로 대체 혹은 보완 가능	15~64세 인구 가운데서 취업 및 실업 인구의 비율  출처: LFS	(성별로) 15~24세 25~54세 55~59세 60~64세 전체 연령

	핵심 차원 관련된 핵심 목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13	지역 통합수준	NAT: 취업률의 표준편차에 따른 지역 분리 정도	가중화 국가 평균치로 나눈 지역 취업률의 표준편차 (16~64세 인구 중). (NUTS II)  출처: LFS	
14	일인당 의료 지출 (a)/(b)	NAT: 일인당 총 의료 지출	PPP 방식에 따른 일인당 의료 지출  출처: 의료 계측 시스템(SHA) 데이터에 기반한 EUROSTAT	

## 4.1 일차지표 제안 목록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세 목	참고
SI-P1	EU: 빈곤율  +실재 빈곤율	국가 표준화 중위 소득의 60% 이하의 가처분 소득에 해당하는 0세 이상 인구 비율  표준화 중위임금은 가구원 수와 가구 구성에 따른 '표준화 크기'를 가구 전체의 가처분 소득에서 나눔으로서 구할 수 있음. 이같은 표준화는 OECD의 조정 방식에 따라 만들어짐.  독신 가구와 2인의 성인과 2인의 어린이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한 PPS방식에 따른 빈곤선에 의해 보완됨	0~17 18~64 65이상	18세 이상에 대한 인구에 대해 적용	노령인구와 관련있는 연금 지표뿐만아니라, 모든 연령을 세분화한 분석이 추가된 목록 작성이 가능함.  각 국가에 있어 빈곤율은 빈곤선 인구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빈곤선의 PPS방식에 의한 상대적 수준을 아울러 계측함  이 지표는 핵심지표(지표 1a)에도 포함되어 있음
SI-P2	EU: 지속빈곤율	현재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이상 빈곤선 이하의 표준화 가처분 소득에 해당하는 0세 이상의 인구 비율	0~17 18~64 65이상	18세 이상 인구에 대해 적용	2006 보고서에서 미사용(가능하다면 대체적인 국가/EU 측정을 사용할 것) 이 지표는 2009년부터 활용가능함. 이 시기는 EU-SILC를 실시한 13개 EU 회원국의 4년간의 종단데이터가 활용가능함. 25개 회원국 모두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활용 가능.
SI-P3	EU: 상대중위빈곤값	0세 이상의 빈곤선 이하 인구의 표준화소득의 중위값과 빈곤선간의 차이. 빈곤선에 대한 퍼센트 값으로 표현할 것.	0~17 18~64 65이상	18세 이상 인구에 대해 적용	이 지표 또한 핵심지표(지표 1b)에 포함되어 있음.
SI-P4	EU: 장기실업률	ILO기준인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놓인 인구의 비율. 15세 이상 경활인구에 대한 비율로 표현할 것.	없음	있음	장기실업률 지표는 경활 및 비경활 인구비율에 대한 정보와 아울러 해석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세 목	참고
SI -P5	EU: 실직가구에 속한 인구	<p>실직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같은 연령대 내에서의 비율로 표현할 것.</p> <p>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살고 있는 18~24세의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할 것.</p> <p>이 지표는 “N7:주요 가구유형에 따른 실업가구” 지표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함</p>	0~17 18~59	18~58 세에 대해서만 성별로 분석	<p>이 지표는 핵심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 제시됨. 직업 세계에 대한 근로 가능 성인과 어린이의 접근의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이 지표는 사회적 배제에 있어 중요성이 있음. 또한 이 지표는 취업에 있어 가구간의 양극화를 드러냄.</p> <p>이 지표 또한 핵심 지표(지표 5)에 포함되어 있음</p>
SI -P6	EU: 학업초기포기율	18세~24세 인구 가운데서 하급 2차교육까지 받고(1997년 국제교육분류기준-ISCED 97에 따르면 그들의 등급은 0~2임) 조사시점 4주 내에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없음	있음	<p>이 지표 또한 핵심 지표(지표 4)에 포함되어 있음</p> <p>이 지표는 분석 연령은 20~24세로 제시한 EUROSTAT의 제안에 따라 조정가능</p>
SI -P7	NAT: 이민자의 취업감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취업률의 차이에 대한 퍼센트 값. 여기서 이민자란 “외국 출생자”를 기본적 정의로 함.(자국 국적자 가운데서 외국 출생자를 여기에 포함할 지는 각국 재량임)	없음	있음	이 지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여타의 핵심적 사항에 대한 국가 데이터를 통해 보충될 필요가 있음.
SI -P8	EU: 물적 곤궁	개발되어야 함.	0~17 18~64 65이상	있음	<p>2006년 보고에서 미사용(가능하면 대체적인 국가 측정방법 도입할 것)</p> <p>이 지표는 EU-SILC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될 것임</p>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세 목	참고
SI-P9	주택지표	개발되어야 함	0~17 18~64 65이상	있음	2006년 보고에서 미사용  국가 자료를 바탕으로 회원국은 홈리스, 주거비용, 양질의 주택수준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함.  이 지표는 EU-SILC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될 것임
SI-P10	NAT: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도  NAT: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주관적으로 느낀 의료 서비스 불만족: 경제적 문제, 대기 기간, 원거리  지난 12개월 동안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은 횟수  출처: EU-SILC 향후 개정에 따라 EU-SILC에서 매년 자료 이용가능	18~44 45~54 55~64 65이상 75이상	있음	소득 5분위 그룹에 따라 분석.  향후 개선점 : EU-SILC의 국가간 번역에 있어서의 차이문제를 해결할 것  언급사항1: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인당 의사진료횟수를 사용하고, OECD 비회원국의 경우는 국가 데이터를 활용할 것. 향후에는 EU-SILCE데이터를 활용.  언급사항2: 이 지표는 핵심 지표에 포함되어 있음.
SI-P11	아동의 웰빙수준	개발되어야 함			

## 4.2 이차지표 제안 목록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세 목	참고
SI-S1	EU: 빈곤율	국가 표준화 중위 임금의 60%이하에 해당하는 0세 이상의 인구 비율	0~17 18~24 25~54 55~64 65이상	18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성별분석	연령 범위 전체에 대해 세분화  각 국가에 있어 빈곤율은 빈곤선 인구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빈곤선의 PPS방식에 의한 상대적 수준을 아울러 계측함
SI-S1a	eu: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율	<p>다음 가구유형에 대해 0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양 아동이 없는 가구</li> <li>-65세 미만의 독신 가구</li> <li>-65세 이상의 독신 가구</li> <li>-독신 여성 가구</li> <li>-독신 남성 가구</li> <li>-적어도 1명이 65세 이상인 2인 성인 가구</li> <li>-모두 65미만의 2인 성인 가구</li> <li>-기타 가구</li> </ul> <p>-부양 아동이 있는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와 1명 이상의 부양 아동이 있는 가구</li> <li>-두 명의 성인과 1명의 부양 아동 가구</li> <li>-두 명의 성인과 2명의 부양 아동 가구</li> <li>-두 명의 성인과 3명 이상의 부양 아동 가구</li> <li>-부양 아동과 3인 이상의 성인 가구</li> </ul>	가구유 형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가구유 형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SI-S1b	EU: 가구의 노동강도에 따른 빈곤율	<p>노동강도와 광범한 확대 가구 유형별 0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p> <p>노동강도란 노동연령에 있는 모든 가구원이 소득조사연도에 노동으로 보낸 총 개월 수를 의미. 이론적으로 가구내에서 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총 개월수에 대한 비율을 뜻함.</p> <p>각 개인은 노동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때 노동강도는 <math>WI=0</math></p>	0~17 18~64 65이상	18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성별분석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세 목	참고
		(실직 가구)에서 WI=1(전일제 강도)의 범위를 가짐.			
SI-S1c	EU: 주요경제활동에 따른 빈곤율	주요경제활동에 따라 대별한 18세 이상의 성인의 빈곤율. 주요경제활동이란 취업(자영, 임금 근로), 실업, 은퇴, 기타 비경활로 나뉘짐.  주요경제활동이란 직업적 정보를 알 수 있는 한 해에 있어 반년 이상을 보낸 경제 지위를 의미함.	없음	18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성별분석	
SI-S1d	EU: 주택소유에 따른 빈곤율	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서 아래의 두 그룹에 따른 빈곤율 -자가소유 혹은 무상 임대 -임대	0~17 18~64 65이상	18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성별분석	이 세분화는 지표1에서 귀속임대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SI-S1e	EU: 빈곤선근방 소득 분산정도	0세 이상의 개인 가운데서 국가 표준화 중위 임금의 40%, 50%, 60% 미만의 가처분 소득에 해당하는 비율	0~17 18~64 65이상	18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성별분석	
SI-S2	EU: 저학력인구비율	25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서 ISCED 기준으로 0~2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  이 지표와 관련한 최근의 EUROSTAT의 변화에 따른 것임.	25~34 35~54 55~64 65이상 25~64	있음	연령별 세분화를 줄이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SI-S3	EU: 학생 독해능력부족도	독해척도 결합 PISA점수가 1이하인 15세 학생의 비율	없음	있음	3년마다 활용 가능. 교육 및 훈련 OMC에 대한 기준척도임.

## 5.1 적절한 연금 수준에 관한 지표

## 일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참고
PN-P1	EU: 노령빈곤율	0~64세의 빈곤율과 65세 이상의 빈곤율 소득구성에 따라 보완됨	0~64세 65세 이상 성별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노령자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임
PN-P2	EU: 노령자 소득의 중위값 상대치	0~64세의 소득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표준화 소득의 중위값 비율	성별	이 지표는 노령층 소득의 전반적 적절성을 알려줌. 연관된 참고 정보: 임금의 구성  이 지표는 핵심지표에 포함되어 있음(지표 7a)
PN-P3	EU: 총소득대체율	50~59세의 개인 소득의 중위값에 대한 65~74세의 개인 연금 중위값의 상대값. 사회급부는 제외.	성별	이 지표는 노령근로층과의 연관성 하에서 연금수급자의 전반적 소득 적절성을 알려줌.  이 지표는 핵심지표에 포함되어 있음 (지표 7b)
PN-P4	NAT: 연금 유형(DB, DC, NDC) 및 2004~2050년간 계획된 공적연금지출을 고려한 2004~2050년의 계획된 소득대체율의 변화  결과 보고는 체계적이고 집합적으로 정리된 하나의 표로	기본사례인 가상적 근로자를 설정하여 그가 은퇴하기 직전해의 임금에 대해 지급받게 될 연금의 대체율의 변화 정도를 퍼센트 값으로 표현. 여기에는 2004~2050년간의 GDP대비 공적연금지출수준과 연금유형(DB, DC, NDC)에 대한 정보를 아울러 적시함  지표와 관련한 정보는 오직 “계획적이고 이론적인 대체율”로 명명된 지표를 통해 집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결과는 현재 상황과 계획, 전제(공적 및 사적 연금 포함)와 순총 대체율, 그리고 표본 및 가정에 대한 정보(기여율과 수혜율, 공적 및		연금의 향후 적절성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정보(연금 지출에 대한 계획)과 아울러 드러낼 것  이론적 대체율은 현재의 소득대체 수준과 입법화된 계획에 따른 향후의 개선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는 특히 DC유형에 있어 더욱 그러함. 이 지표가 DB형 연금의 장래 안정성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와 함께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참고
	<p>제시되어야 함</p> <p>+표본에 입각한 기본 가정과 관련한 배경 정보 등을 포함할 것</p> <p>+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금대체율에 관한 한두개 정도의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것(예)OECD</p>	<p>사적 부문 각각)를 아울러 포함할 것</p> <p>ISG에서의 특별한 가정이 합의됨. 자세한 내용은 임금대체율에 대한 2006년 보고서를 참고할 것</p> <p>출처: ISG, AWG</p>		<p>활용된다면 DB형 연금에 있어서도 유사한 확실성을 담보할 것임.</p> <p>기타 NAT 지표: 상이한 직업력이나 은퇴 연령을 포함하는 여타의 케이스(적절하다면 OECD 계측값을 포기함)</p> <p>이 지표는 특히 재정적 안정성을 계측에 포함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이 요청됨. GDP대비 퍼센트로 표현된 연금지출수준의 증가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기본사례에 대해 계획된 이론적 기여율을 계측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상이한 사례들(경력 개발이나 단절 등)을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퇴직 연장 및 기여와 수혜수준에 대한 문제등 을 반영하는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음</p>

이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참고
PN-S1	EU: 노령빈곤율	0~59세, 0~74세, 60세 이상, 75세 이상의 빈곤율	0~59세 0~74세 60세 이상 75세 이상	<p>표준화 소득의 중위값의 60%를 기준으로 한 노령층의 빈곤율</p> <p>여기서의 세분화는 핵심지표의 경우보다 상이한 인구집단(비노령층/노령층)의 특수한</p>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참고
			성별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PN-S2	EU: 노령인구 중위 소득의 상대치	0~59세의 소득 대비 60세 이상 인구의 표준화 소득의 중위값의 비율	성별	이 지표는 노령인구 전반의 소득 적절성을 알려줌  관련지표: 소득구성
PN-S3	EU: 총대체율(사회급부 포함)	여타의 사회급부를 포함하여 50~59세의 개인 소득의 중위값 대비 65~74세의 개인 연금의 중위값에 대한 비율	성별	
PN-S4	EU: 소득불평등	65세 인구이상에 대한 (S80/S20) 값	0~64세 65세 이상	이 지표는 세대간 연대에 관한 목표의 첫 영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 또한 0~64세와 65세 이상 인구의 인금분포에 대해 드러냄
PN-S5	EU: 노령인구 빈곤값	60%빈곤선 기준에 입각한 65세 이상 및 75세 이상 인구집단의 빈곤값	65세 이상 75세 이상	이 지표는 빈곤율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띄며, 아울러 민감성이 있는 분석에 도움이 됨
PN-S6	EU: 연금수급자의 빈곤율	주요경제활동이 “퇴직”으로 되어 있는 인구집단에 한정된 빈곤율	성별	이 지표는 경제 지위가 은퇴 상태인 인구집단의 빈곤 상황을 나타내는 보완적 지표임. 참고로 3차 합리화 구상에 나온 지표를 참고할 것
PN-S7	EU: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노령인구의 빈곤 발생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60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의 인구집단에서의 빈곤발생에 관한 지표. 주택소유와 관련한 항목은 자가, 무상임대, 임대임	60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	이 지표는 주택소유와 관련한 상이한 조건에 따른 빈곤발생의 차이를 알려주는 보완적 지표임
PN-S8	EU: 국가 표준화 소득 중위값의 50% 및 70%를 기준으로 한 노령인구의 빈곤율	60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국가 표준화 소득값이 중위값 50%, 70%를 기본으로 한 빈곤율	60세 이상 65세 이상 75세 이상	상이한 소득 기준에 대한 통계적 민감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

5.2 지속가능한 연금에 관한 지표

일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참고
PN-P5	NAT: 연금총지출 (% of GDP)	"연금 지출"이라 함은 "ESSPROS 매뉴얼 1996"에 나와 있는 7개의 상이한 항목의 총합을 의미함. 7개의 항목은 장애연금, 노동능력의 상실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노령연금, 선급노령연금, 부분연금, 유족연금 및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한 조기퇴직 수당임  출처: ESSPROS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을 분리하는 추가적 개정 과정에 있음
PN-P6	EU: 취업률	해당 연령집단내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인구의 퍼센트 값  출처: LFS	25~54세 55~64세 55~59세 및 60~64세 65~69세  위 연령구분에 대해 성별로 세분화	55~64세 연령집단의 취업률은 연금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측면임  여기서의 세분화는 연령별 취업률과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조기이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임  성별 세분화를 통해 여성취업률 증가에 따른 구조적 영향을 통제함
PN-P7	EU: 주요한 노동시장 이탈 연령	특정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여비율의 변화를 감안한 확률모델에 입각한 평균적 노동시간 이탈 연령  출처: LFS	성별	주요 난점은 아마도 연금 개혁이 주요 퇴직 연령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과 관련한 양적 측면일 것임  첨언: 추가적인 통계 및 방법론적 작업이 요청됨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참고
PN-P8	NAT: 공적 연금 및 전체 연금에 대한 2004~2050년간 지출 예상(% of GDP)	AWG에서 특정한 가정이 합의됨. 자세한 내용은 “EU-35 회원국을 위한 2005 EPC 연령관련 지출 계획(2004~2050): 계획에 관한 방법론과 가정들”을 참조바람  출처: AWG		연금지출에 관한 예상은 또한 경제적 동향(특히 나이든 노동자의 취업률의 변동)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고 있음. 회원국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은 비교가능성과 안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특히 사적 및 직역 연금의 포괄범위 등에 있어서)
PN-S9	NAT: 총사회보장지출 (%of GDP)	ESSPROS		총지출 및 순지출에 대한 구분을 통해 개선 중임
PN-S10	NAT: 공적 연금에 관한 지출 예상액의 분해	노령부양비율 및 고용효과, 대체율 및 수급율에 따른 분해  AWG에서 특정한 가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  자세한 내용은 “EU-35 회원국을 위한 2005 EPC 연령관련 지출 계획(2004~2050): 계획에 관한 방법론과 가정들”을 참조바람  출처: AWG		연금지출에 관한 예상은 또한 경제적 동향(특히 나이든 노동자의 취업률의 변동)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고 있음.  회원국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은 비교가능성과 안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특히 사적 및 직역 연금의 포괄범위 등에 있어서)

5.3 현대화된 연금에 관한 지표

일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참고
PN-P9	EU: 빈곤율에 있어서 성별 차이	빈곤율에 대한 항목 참고	0~65세 65세 이상  전체 연령집단에 대해 독신남녀로 세분화	관련 이차 지표: 연령에 따른 세분화 지표 (60세 이상, 75세 이상, 60세 이하, 75세)
PN-P10	EU: 노령집단의 상대 임금의 성별차이	0~64세 인구집단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임금에 대한 항목을 참고	전체 연령집단에 대해 독신남녀로 세분화	관련 이차 지표: 연령에 따른 세분화 지표 (60세 이상, 75세 이상, 60세 이하, 75세)
PN-P11	EU: 총소득대체율의 성별 차이	총소득대체율을 참고		

이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세목	참고
PN-S11	EU: 노령인구의 성별 상대적 소득차이	0~64세 인구집단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소득에 관한 지표를 참고	60세 이상 75세 이상 60세 미만 75세  전체 연령집단에	

			대해 독신남녀로 세분화	
--	--	--	-----------------	--

6.1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접근 불평등 포함) 및 효과에 관한 지표

일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 P1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NAT: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도  NAT: 의료서비스 이 용정도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주관적으로 느낀 의료 서비스 불만 족: 경제적 문제, 대기 기간, 원거리  지난 12개월 동안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은 횟수  출처: EU-SILC 향후 개정에 따라 EU-SILC에서 매년 자료 이용가 능	18~44 45~54 55~64 65이상 75이상	있음	소득 5분위 그룹에 따라 분석.  향후 개선점 : EU-SILC의 국가간 번역에 있어서의 차이문제를 해결할 것  언급사항1: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료데이터를 바탕으 로 일인당 의사진료횟수를 사용하고, OECD 비회원국의 경우는 국가 데이터를 활용할 것. 향후에는 EU-SILCE데이터를 활용.  언급사항2: 이 지표는 핵심 지표에 포함되 어 있음.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 P2	NAT: 치과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도  NAT: 치과서비스 이 용정도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주관적으로 느낀 치과 서비스 불만 족: 경제적 문제, 대기 기간, 원거리  지난 12개월 동안 치과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은 횟수  출처: EU-SILC에서 매년 자료 이용가능	18~44 45~54 55~64 65이상 75이상	있음	소득 5분위 그룹에 따라 분석.  향후 개선점 : EU-SILC의 국가간 번역에 있어서의 차이문제를 해결할 것  언급사항: 2008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인당 의사진료횟수를 사용하고, OECD비회 원국의 경우는 국가 데이터를 활용할 것. 향 후에는 EHIS데이터를 활용.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 P3	NAT: 의료보험가입비율	공적의료보험에 가입된 인구비율(여기서 공적의료보험이란 사회 보장기여를 포함한 소득연계세금이나 세금에 기반한 의료보험을 의 미) + 사적의료보험에 가입된 인구비율(여기서 사적의료보험이란 강제 사적의료보험, 사적고용집단별의료보험, 사적 지역별의료보험, 사적 위험군별의료보험을 의미함)  출처: OECD, 국가별 데이터	없음	있음	회원국은 OECD의 분류기준에 따른 보험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사항은 EU보고 시 언급되어야 함. 회원국은 반드시 OECD데이터나 국가통계 데이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함. 첨언: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성별에 따른 보 험적용범위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P4a	EU: 기대수명	기대수명은 사망률과 같은 현재의 사망관련 상황에서 영아 혹은 특정 연령대의 개인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를 의미  출처: EUROSTAT	출생시 45세 65세	있음	다음 항목을 참고
HC-P4b	NAT: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대수명	교육 수준이나 소득분위에 따른 기대수명. (출생 시의 경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출처: 국가별 데이터		있음	첨언1: EU의 비교가능한 세분화된 데이터가 활동되기 전까지 국가별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8년 지표를 구성할 것  첨언2: 이용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차후에 성별로 분리해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임
HC-P5a	NAT: 건강생애년	건강한 상태(활동상 장애에 의한 제약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년수. 일상활동에 있어 스스로 자각된 한계에 바탕을 둘 것. 결합지표임  기대수명과 아울러 해석할 것  출처: EUROSTAT	출생시 45세 65세	있음	건강생애년은 핵심지표에 포함되어 있음
HC-P5b	NAT: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생애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생애년. (출생시의 경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출처: 국가별 데이터		있음	첨언1: EU의 비교가능한 세분화된 데이터가 활동되기 전까지 국가별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8년 지표를 구성할 것  첨언2: 이용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차후에 성별로 분리해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이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S1	NAT: 일상활동에 있어 인지된 한계	일상생활의 영위에 있어 한계가 있다거나 혹은 매우 한계가 있다고 답한 개인의 퍼센트 비율  출처: EU-SILC	18~44 45~54 55~64 65이상 75이상	있음	5분위소득에 따른 세분화 가능
HC-S2	NAT: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혹은 매우 나쁘다고 답한 개인의 퍼센트 비율  출처: EU-SILC	18~44 45~54 55~64 65이상 75이상	있음	5분위소득에 따른 세분화 가능
HC-S3c	EU: 영아사망율	한해 전체 출생 영아에 대한 1세 미만 영아의 사망 비율. 1000명당 사망수로 나타냄  출처: EUROSTAT	없음	있음	다음 항목 참고
HC-S3b	NAT: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아사망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수준 및 소득분위)에 따른 영아 1000명당 사망수	없음	없음	첨언: EU의 비교가능한 세분화된 데이터가 활동되기 전까지 국가별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8년 지표를 구성할 것

6.2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지표: 효과성, 안정성, 환자에 대한 집중정도(2번째 목표)

일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P6	EU: 어린이에 대한 백신접종비율	<p>첫생일을 맞는 시점에서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유아의 비율</p> <p>+</p> <p>두 번째 생일을 맞는 시점에서 홍역, 이하선염, 루벨라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유아의 비율</p> <p>출처: WHO-Health for All 자료</p>	없음	없음	<p>첨언1: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함,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한 축임</p>
HC-P7	EU(NAT in 2008) 경부암검사	20~69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자궁경관을 통한 경부암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없음	세분화 불가	<p>첨언1: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함,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한 축임</p> <p>향후개선: EHIS데이터는 2010년부터 활용 가능. 데이터는 공표와 지표의 최종적 수용에 대한 동의를 위해서 분석될 수 있음. EHIS는 또한 검사와 관련한 배후의 이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p> <p>첨언2: 2008 EUROSTAT는 국가별 건강 인터뷰 서베이 결과에 따른 정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회원국은 다른 국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p>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P8	NAT: 자궁경부암 생존율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5년이상 생존하고 있는 여성의 상대적인 퍼센트 비율  출처: IARC 정보를 바탕으로 한 ECHI 데이터	없음	세분화 불가	첨언1: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함,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한 축임 첨언2: 2008 ECHI 데이터에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가능함
HC-P9	NAT: 직장암생존율	직장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인구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직장암 진단을 받고 5년이상 생존하고 있는 인구의 상대적인 퍼센트 비율  출처: IARC 정보를 바탕으로 한 ECHI 데이터	없음	있음	첨언1: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함,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한 축임 첨언2: 2008 ECHI 데이터에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가능함
HC-P10	NAT: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다음의 각 항목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 -일반 및 가정의 -전문의 -병원 -치과진료서비스  출처: EHIS	없음	있음	첨언1: 의료체계의 부응수준 혹은 환자에 대한 집중수준에 대한 측정,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한 축임 첨언2: 2008년에 특별 유로바로미터 283을 활용할 수 있음

이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S4	EU(NAT IN 2008): 65세 이상 인구집단에 대한 독감접종율	지난해 독감접종을 받은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처: EHIS	없음	있음	첨언1: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함,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한 축임 첨언2: 2008년 OECD데이터와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가능함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S5	EU(NAT IN 2008) 유방암검진율	과거에 유방켄트겐촬영을 통해 유방암검사를 받은 적이 있던 50~69세 여성 비율  출처: EHIS	없음	세분화 불가	<p>첨언1: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함,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한 측면</p> <p>향후개신: EHIS데이터는 2010년부터 활용 가능. 데이터는 공표와 지표의 최종적 수용에 대한 동의를 위해서 분석될 수 있음. EHIS는 또한 검사와 관련한 배후의 이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p> <p>첨언2: 2008 EUROSTAT는 국가별 건강 인터뷰 서베이 결과에 따른 정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회원국은 다른 국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p>
HC-S6	유방암생존율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5년이상 생존하고 있는 여성의 상대적인 퍼센트 비율  출처: IARC 정보를 바탕으로 한 ECHI 데이터	없음	세분화 불가	<p>첨언1: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함,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한 측면</p> <p>첨언2: 2008 ECHI 데이터에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가능함</p>
HC-S7	NAT: 분만사망율	1000그램 이상의 태아 및 생후 6일 이내의 영아의 1000명당 사망 수  출처: WHO-Health for All 자료에 바탕한 EUROSTAT 자료	없음	없음	<p>첨언1: 의료서비스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함,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한 측면</p>

6.3 의료 체계의 장기적 안정성에 관한 지표: 지출과 효율(3번째 목적)

일차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P11	NAT: 일인당 총 의료 지출	PPP방식에 따른 일인당 총 의료 지출액  출처: SHA 데이터에 바탕한 EUROSTAT	없음	없음	<p>첨언1: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보험가입된 개인당 계층값</p> <p>첨언2: SHA 데이터는 EUROSTAT에서 15개 회원국에 대해서 활용가능. 2008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2개 회원국의 정보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 2개 회원국은 데이터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중. 3개 회원국은 현재 어떤 보고나 데이터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 않음</p> <p>첨언3: 2008년의 경우 ESTAT SHA데이터를 활용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OECD 데이터를 사용하고 MT와 LV를 위한 WHO-HF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것</p> <p>첨언4 이 지표는 핵심지표에 포함되어 있음</p>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P12	NAT: 총 의료서비스 지출 (%of GDP)	<p>공적 및 사적 지출을 포함한 총 의료비지출의 GDP대비 퍼센트 값.(공적 및 사적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항목을 참고할 것)</p> <p>출처: SHA 데이터에 바탕한 EUROSTAT</p>	없음	없음	<p>첨언1: SHA 데이터는 EUROSTAT에서 15개 회원국에 대해서 활용가능. 2008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2개 회원국의 정보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 2개 회원국은 데이터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중. 3개 회원국은 현재 어떤 보고나 데이터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 않음</p> <p>첨언2: 2008년의 경우 ESTAT SHA데이터를 활용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OECD 데이터를 사용하고 MT와 LV를 위한 WHO-HF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것</p>
HC-P13	NAT: 총 장기요양지출 (%of GDP)	<p>SHA에서 HC.3으로 분류된 장기요양비용 및 질병 및 기능이상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관리 비용의 총합의 GDP대비 퍼센트 비율</p> <p>출처: SHA 데이터에 바탕한 EUROSTAT</p>	없음	없음	<p>첨언1: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보험가입된 개인당 계측값</p> <p>첨언2: SHA 데이터는 EUROSTAT에서 15개 회원국에 대해서 활용가능. 2008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2개 회원국의 정보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 2개 회원국은 데이터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중. 3개 회원국은 현재 어떤 보고나 데이터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 않음</p> <p>첨언3: 2008년의 경우 ESTAT SHA데이터를 활용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OECD 데이터를 사용하고 MT와 LV를 위한 WHO-HF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것</p> <p>첨언4 이 지표는 핵심지표에 포함되어 있음</p>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P14	NAT: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예상수준 (%of GDP)	연령관련 의료서비스 지출 예상수준, 현재수준(GDP대비 퍼센트 값)과 예상되는 GDP대비 퍼센트값의 변화(2010~50년사이)  출처: EPC/AWG (2006)	없음	없음	첨언1: AWG/EP에서 특정 가정이 설정됨. "EU-25를 위한 연령 관련 사회지출 (2004~2050)에 관한 2005 EPC 계획안: 관련 가정과 방법론" 참고  첨언2: 2009년의 새로운 예상치가 활용가능 할 것이며, 이는 다음 공표시에 활용될 것임
HC-P15	NAT: 장기요양과 관련한 공공지출의 예상수준 (%of GDP)	연령관련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예상수준, 현재수준(GDP대비 퍼센트 값)과 예상되는 GDP대비 퍼센트값의 변화(2010~50년사이)  출처: EPC/AWG (2006)	없음	없음	첨언1: AWG/EP에서 특정 가정이 설정됨. "EU-25를 위한 연령 관련 사회지출 (2004~2050)에 관한 2005 EPC 계획안: 관련 가정과 방법론" 참고  첨언2: 2009년의 새로운 예상치가 활용가능 할 것이며, 이는 다음 공표시에 활용될 것임
HC-P16	NAT: 퇴원수	입원 환자 100000명당 퇴원율  출처: EUROSTAT	없음	없음	첨언1: 이 지표는 의료시스템의 성과 및 효율성에 관한 계측결과를 보여줌
HC-P17	NAT: 당일입원수	입원환자 100000명당 당일입원자 수  출처: EUROSTAT	없음	없음	첨언1: 이 지표는 의료시스템의 성과 및 효율성에 관한 계측결과를 보여줌
HC-P18	EU(NAT in 2008): 비만율	BMI>30kg/m <sup>2</sup> 에 해당하는 인구의 퍼센트 비율  출처: EHIS	18~44 45~54 55~64 65이상 75이상	있음	5분위소득에 따른 세분화. 첨언1: 라이프스타일 혹은 건강한 삶에 대한 측정 첨언2: 2008 EUROSTAT는 국가별 건강 인터뷰 서베이 결과에 따른 정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회원국은 다른 국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 이차 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S8	NAT: 일반약품판매	전체 조제 약물판매 가운데서 일반약품이 차지하는 퍼센트 비율 출처: 국가별 데이터	없음	없음	첨언1: 이 지표는 의료시스템의 효과성을 드러내는 측정값임
HC-S9	NAT: 구급환자병동점유율	가용한 구급병동의 병상수에 대한 구급환자가 점유한 병상의 퍼센트 비율값	없음	없음	첨언1: 이 지표는 의료시스템의 효과성을 드러내는 측정값임
HC-S10	NAT: 평균입원일수	전체입원일수를 퇴원 및 사망수로 나눈값 출처: EUROSTAT	없음	없음	첨언1: 이 지표는 의료시스템의 효과성을 드러내는 측정값임. 회원국은 이 지표를 재입원율(ECHI에 따른 28일의 긴급재입원 경우 등)과 아울러 활용가능함
HC-S11	EU(NAT in 2008) 정기흡연율	15세 이상 인구중 매일 흡연을 하는 인구의 퍼센트 비율 출처: EHIS	18~44 45~54 55~64 65이상 75이상	있음	5분위소득에 따른 세분화. 첨언1: 라이프스타일 혹은 건강한 삶에 대한 측정 첨언2: 2008 EUROSTAT는 국가별 건강 인터뷰 서베이 결과에 따른 정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회원국은 다른 국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HC-S12	NAT: 알콜소비	년간 일인당 순수 알콜 소비의 리터단위량 출처: 국가별 데이터	18~44 45~54 55~64 65이상 75이상	없음	5분위소득에 따른 세분화. 첨언1: 라이프스타일 혹은 건강한 삶에 대한 측정 첨언2: 2008 EUROSTAT는 국가별 건강 인터뷰 서베이 결과에 따른 정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회원국은 다른 국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

## 6.4 의료관련 맥락적 지표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C1	NAT: 의사수	<p>거주인구 100000명당 활동 의사 수</p> <p>이 지표는 의료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욕구 수준이나 지역별 의료진 분포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시간에 따른 추세는 이민에 따른 의료진의 부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도울 수도 있음.</p> <p>출처: EUROSTAT</p>	없음	없음	<p>첨언: 회원국은 원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 의료 지역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p>
HC-C2	NAT: 간호사 및 조산사수	<p>거주인구 100000명당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및 조산사 수</p> <p>이 지표는 의료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욕구 수준이나 지역별 의료진 분포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시간에 따른 추세는 이민에 따른 의료진의 부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도울 수도 있음.</p> <p>출처: EUROSTAT</p>	없음	없음	<p>첨언: 회원국은 원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 의료 지역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p>
HC-C3	NAT: 총 의료지출에 대한 공공부문 및 사적부문의 지출	<p>1) HF.1.1 항목(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포함한 총 공공 분의 지출과 SHA에 따른 HF.1.2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액수</p> <p>2) 사적 의료보험 지출과 사적 의료비 지출 및 회사별 사적 의료보험 기금, 미영리기구의의 지출을 합한 총 사적부분의 의료비지출</p> <p>3)사적 의료보험 지출</p> <p>4)의료비에 대한 현금지출</p> <p>각각에 대한 총의료비지출에 대한 퍼센트 비율</p> <p>출처: SHA 데이터에 바탕한 EUROSTAT</p>	없음	없음	<p>첨언1: SHA 데이터는 EUROSTAT에서 15개 회원국에 대해서 활용가능. 2008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2개 회원국의 정보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 2개 회원국은 데이터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중. 3개 회원국은 현재 어떤 보고나 데이터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 않음</p> <p>첨언2: 2008년의 경우 ESTAT SHA데이터를 활용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OECD 데이터를 사용하고 MT와 LV를 위한 WHO-HF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것</p>

	일반적으로 동의된 EC지표(EU) 일반적으로 동의된 국가지표(NAT)	정의	연령별 세목	성별 세목	참고
HC-C4	NAT: 주요 의료활동 및 기능에 따른 총 의료비지출	<p>이 지표는 다음의 활동혹은 기능에 따른 총의료비지출의 퍼센트 비율을 분석함</p> <p>1)치료적 행위 + 2)재활 행위                      3)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조 행위                      4)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 용품 보급                      5) 예방 행위</p> <p>이 지표는 아울러 약학적인 지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함</p> <p>6)의약품 및 의료적 소비재 보급</p> <p>출처: SHA 데이터에 바탕한 EUROSTAT</p>	없음	없음	<p>첨언1: SHA 데이터는 EUROSTAT에서 15개 회원국에 대해서 활용가능. 2008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2개 회원국의 정보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 2개 회원국은 데이터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중. 3개 회원국은 현재 어떤 보고나 데이터 검토작업을 하고 있지 않음</p> <p>첨언2: 2008년의 경우 ESTAT SHA데이터를 활용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OECD 데이터를 사용하고 MT와 LV를 위한 WHO-HF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것</p>

[부록 6] OECD *Society at a glance*(2001, 2003, 2005, 2006, 2009)에 포함된 사회지표들

		자립(SS)	형평성(EQ)	건강(HE)	사회응집(CO)
배 경 지 표	사회적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소득</li> <li>• 이민</li> <li>• 출산율(01,05,06,09)</li> <li>• 결혼과 이혼(01,05,06,09)</li> <li>• 연령부양율(01,03,05,06)</li> <li>• 보호 및 피난 요청민(01)</li> <li>• 한부모(01)</li> </ul>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li> <li>• 실업</li> <li>• 유급근로어머니(01,03,05,06)</li> <li>• 실업가구(01,03,05,06)</li> <li>• 학업능력(01,03,05,09)</li> <li>• NEET(01,05,09)</li> <li>• 노동시장이탈연령(01,05,09)</li> <li>• 아동양육비(06)</li> <li>• 아동보호(01,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불평등(01,05,09)</li> <li>• 빈곤(01,05,09)</li> <li>• 아동빈곤(05,09)</li> <li>• 노인소득(03,05)</li> <li>• 저임금노동(01)</li> <li>• 성별임금격차(01,06)</li> <li>• 물리적 곤궁(06)</li> <li>• 빈곤지속(06)</li> <li>• 세대간이전(06)</li> <li>• 주거비용(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수명(01,05,06,09)</li> <li>• 기대수명 조정 건강(03,05)</li> <li>• 주관적 건강(09)</li> <li>• 영아사망(01,05,09)</li> <li>• 저체중출산(03,06,09)</li> <li>• 비만(09)</li> <li>• 신장(09)</li> <li>• 정신보건(09)</li> <li>• 기대여명(01,03)</li> <li>• 비장애 예상수명(01)</li> <li>• 사고(01)</li> <li>• 질병사유 결근(06)</li> <li>• 건강불평등(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li> <li>• 삶의 만족도(05,06,09)</li> <li>• 범죄피해(01,03,09)</li> <li>• 직업만족(09)</li> <li>• 교내 괴롭힘(09)</li> <li>• 위험행동(09)</li> <li>• 사회적 고립(01,05)</li> <li>• 집단참여(01,05)</li> <li>• 10대출산(03,05)</li> <li>• 약물 사용 및 관련 사망(01,05)</li> <li>• 파업과 직장폐쇄(01,03,06)</li> <li>• 선거참여(01,06)</li> <li>• 청소년범죄(03)</li> <li>• 공무원에 대한 신뢰(06)</li> <li>• 직장내 사고(01,06)</li> </ul>
	사회적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부의 적절성</li> <li>• 노동조건 정책(01)</li> <li>• 교육지출(01,09)</li> <li>• 조기 교육 및 보호(01)</li> <li>• 성인문자해독율(01)</li> <li>• 노동에 대한 조세격차(01,06)</li> <li>• 장애 학생(03)</li> <li>• 성인 장애인 가용 자원(02)</li> <li>• 장애인 노동(03)</li> <li>• 최근 급부(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사회지출</li> <li>• 총사회지출</li> <li>• 사적 사회지출(01,05)</li> <li>• 급부 수급율(01,05)</li> <li>• 수입 불평등(06)</li> <li>• 최저임금(01)</li> <li>• 연금대체율(06,05)</li> <li>• 연금가입(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지출</li> <li>•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재정책임(03,01)</li> <li>• 장기요양수급자(01,05,06,09)</li> <li>• 보건서비스기반(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감자(01,03)</li> </ul>

■ 출처 : OECD(2009:54)



**[부록 7] 스웨덴 사회보험 관련 지표 목록**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지표	연도	책임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공공급여 수당			12개월간 지급받은 공공급여 수당. 수급자와 지급기간 (시간 및 주수)	1994-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공공급여 수당			12개월간 공공급여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수 (연령 및 개인적 특성 분리)	1994-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공공급여 수당			12개월간 공공급여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수 (보험유형 및 개인적 특성 분리)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공공급여 수당			12개월간 공공급여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수 (보험유형 및 고용주 특성 분리)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유지 지원			지급액 및 수급자 수(100만 단위, 1997년 이후)	1997-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유지 지원			1999년 이후 12개월간 보험금을 지급 받은 아동 및 부모 수	1999-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부양 급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198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부양 급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부양 아동수, 순 지급일수, 지역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부양 급부		집행 보조금액(1000크라운 단위, 지역별 분포)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부양 급부		순 지급일수 및 집행액(1000크라운 단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부양 급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부양 아동수, 순 지급일수, 연령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부양 급부		집행 보조금액(1000크라운 단위, 연령별 분포)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모성 급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시계열 정리	198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모성 급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및 집행금액 (1000크라운단위) (부양 아동수, 순 지급일수, 지역별로 세목화)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모성 급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1000크라운 단위, 연령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지표	연도	책임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계약 일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시계열 정리	198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계약 일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및 집행금액 (1000크라운단위) (부양 아동수, 순 지급일수, 지역별로 세목화: LSS에 가입되어 있는 아동의 계약일 수)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계약 일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및 집행금액 (1000크라운단위) (부양 아동수, 순 지급일수, 지역별로 세목화: 6-11세 아동의 계약일수)	2001-2003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계약 일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수, 아동 수, 순 지급일, 집행금액 (1000크라운 단위) (연령별: 추가 일수)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계약 일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수, 아동 수, 순 지급일, 집행금액 (1000크라운 단위) (연령별: 6-11세 아동의 계약기간)	2001-2003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데디 데이스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시계열 정리	198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데디 데이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수, 순 지급일, 집행금액 (1000크라운 단위) (연령별 세목화: 추가 일수)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데디 데이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수, 지급일, 집행금액 (1000크라운 단위) (지역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아동 보육	보조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와 지급일수, 시계열 정리	198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아동 보육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수, 아동 수, 순 지급일, 집행금액 (1000크라운 단위) (지역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아동 보육	보조금집행액 (1000크라운 단위) (지역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아동 보육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 수, 아동 수, 순 지급일(연령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자녀부양가족을 위한 공공급여	부양 보험	일시 부양보조	아동 보육	보조금집행액 (1000크라운 단위) (연령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노령자 공공급여	주요연금체계에서의 기여상황	주요연금체계에서의 기여상황	주요연금체계에서의 기여상황	연금기여자수, 총액 및 평균액 (시장가치환산)	2001-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총 연금급부		12개월간 연금개수와 연금 및 보조연금이 있는 사람 수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지표	연도	책임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총 연금급부		12개월간 기초연금 및 퇴직보조금의 지출액 (1000크라운 단위로 연간액)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노령연금		12개월간 연금소유 퇴직자 수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노령연금		12개월간 퇴직자에 대한 연금액 (1000크라운 단위 연간액)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노령연금		12개월간 퇴직한 연금수급권자 수 (연령 및 금액크기별)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조기퇴직금 / 질병 급부	조기퇴직금 / 질병 급부	조기퇴직 연금수급권자 수/ 12월 조기퇴직의 질병급부액/ 질병급부액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조기퇴직금 / 질병 급부	조기퇴직금 / 질병 급부	조기퇴직 연금액/12월 질병수당 집행액(SEK조기퇴직에 대한 1000단위 연간액)/ 질병 급부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조기퇴직금 / 질병 급부	조기퇴직금 / 질병 급부	조기퇴직 연금수급권자 수/ 12월 조기퇴직의 질병급부액 (연령 및 금액 크기별)/ 질병급부액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유족급부		12개월간 유족연금 수급자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유족급부		12개월간 유족연금 지출액 (1000크라운 단위 연간액)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유족급부		12개월간 아동 연금을 제외한 유족연금 수급자 수 (연령별)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유족급부		12개월간 고아연금 지급자수 (연령별)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주택급부		12개월간 주택급부를 받은 연금수급자 수 (연령 및 퇴직급부별)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장애 보상금		12개월간 장애수당을 받은 연금수급자 수 (연령별)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노령자 공공급여	국가연금체계에 의한 연금급부	돌봄 수당		12개월간 간호수당을 받은 연금수급자 수	1999-2002	스웨덴 연금관리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일일 현금 급부	상병 급부		상병 급부 수급자 수 (건강보험 및 연령별)	2000-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일일 현금 급부	상병 급부		상병급부 지급총액 (달러 단위, 건강보험 및 성별)	2000-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지표	연도	책임
상병 및 장애 급여	일일 현금 급부	재활		재활 일수 (보험 및 연령별)	2000-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일일 현금 급부	재활		총 지급액 (달러단위, 보험 및 성별)	2000-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일일 현금 급부			총지출액, 시계열 정리	1970-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장애 수당			12개월간 지급받은 공공급여 수당. 수급자와 지급기간 (시간 및 주수), 시계열 정리	1994-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장애 수당			12개월간 공공급여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수 (연령 및 개인특성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장애 수당			12개월간 공공급여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수 (보험 및 개인특성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장애 수당			12월간 지급받은 공공급여 수당 (보험 및 고용형태별)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비활동 수단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고용주에 의한 상병수당 (단기 상병 휴가)	고용주에 의한 상병수당 (단기 상병 휴가)	고용주에 의한 상병수당 (단기 상병 휴가)	상병수당 지급기간	2004-2005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고용주에 의한 상병수당 (단기 상병 휴가)	고용주에 의한 상병수당 (단기 상병 휴가)	고용주에 의한 상병수당 (단기 상병 휴가)	상병수당 지급기간 (산업 부문 및 지역별)	2005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급부 / 지급 실적 (유형별)	2003-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급부 / 지급 실적 (연령별)	2003-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급부 / 지급실적 (지역별)	2003-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급부 / 현행 지급 실적 및 신규 지급	2003-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급부 / 현행 지급 실적 및 신규 지급 (연령별)	2003-	스웨덴 사회보험국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지표	연도	책임
상병 및 장애 급여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및 활동 보상	상병 급여 / 현행 지급 실적 및 신규 지급 (지역별)	2003-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산재급여 (산재 유족연금 제외)			12개월간 연금수급자수 및 산재연금 수급자 수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상병 및 장애 급여	산재급여 (산재 유족연금 제외)			12개월간 연금수급자수 및 산재연금 수급자 수	1999-2008	스웨덴 사회보험국



[부록 8] 스웨덴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지표 관련 보고서 목록

\* 사회서비스

분류1	분류2	Publications	연도
노령자 돌봄 및 장애가 있는 연금수급자	노령자를 위한 돌봄 및 서비스. 시정부 서비스	2008년 3월 1일~12월 31일간 노령자에 대한 돌봄제공	2009-
		2008년 6월 30일 노령자에 대한 돌봄제공	2009-
		노령자에 대한 시정부의 돌봄 및 관련서비스	2007
		노령자에 대한 돌봄 및 관련서비스	2006
	장애자를 위한 돌봄. 시정부 서비스	2008년 3월 1일~12월 31일간 장애자에 대한 돌봄제공	2009-
		2008년 6월 30일 노령자에 대한 돌봄제공	2009-
		장애가 있는 사람들	2006-2007
노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2008년 돌봄 서비스에 관한 관리. 시정부 서비스.	노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2008년 돌봄 서비스에 관한 관리	2009-	
개인 및 가족 돌봄	가족법	가족법	2006-2008
	사회부조, 연간통계	사회부조(2006-2008) 연간통계	2006-2008
	사회부조, 분기통계	지방정부 사회부조 지출, 4/4분기	2006-2009
		지방정부 사회부조 지출, 3/4분기	2006-2009
		지방정부 사회부조 지출, 2/4분기	2007-2009
		지방정부 사회부조 지출, 1/4분기	2007-2009
	아동 및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서비스 대상 아동 및 청소년 현황	2005-2008
아동 및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총계 데이터	서비스 대상 아동 및 청소년 현황	2005-2008	

\* 보건의료서비스

분류1	분류2	보고서	연도
사망원인	사망원인	사망 원인	2004-2007
건강과 질병	낙태	낙태 감소, 스웨덴의 낙태 현황	2006-2009
	보조생식	보조생식 현황 및 의료적 조치 결과	2004-2005, 1991-2007
		임신, 출산 및 신생아. 스웨덴 출생 등록부	1973-2007
	출산 사고	선천성 장애 출현 현황	2005
		출산 사고 현황	2006
		스웨덴 출산 사고 등록부	2007-2008
	모유수유 및 유아 부모의 흡연 습관	모유수유 및 아동 출산 현황	2005-2006
		모유수유 및 유아 부모의 흡연 습관 현황	2007
	암 등록	스웨덴 암 발생 현황	2005-2008
	사고 및 중독에 의한 입원	사고 및 중독에 의한 입원 현황	2003-2008
	질병 입원	질병에 의한 입원 현황	1987-2008
		질병에 의한 입원 현황	2006
	심근경색	심근경색	2004-2007
	임신, 출산 및 신생아	출생 등록부	2005
임신, 출산 및 신생아. 스웨덴 출생 등록부		1973-2008	
보조생식 및 의료적 조치		1991-2007	
건강 돌봄 및 의료 서비스	건강 돌봄 비용	건강 돌봄 비용 현황	2004-2006
	건강 돌봄 제공자	등록의료인에 관한 건강 돌봄 공식 통계	2005-2007
		관련자의 노동시장 상황	2004-2006
	건강돌봄 수행 수준	입원환자에 대한 2004년 의료 돌봄 및 건강 상담 수행수준 통계	2005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돌봄 수행수준 통계	2006
	의약품 통계	의약품 판매 현황	2005
의약품 통계		2006-2008	

**[부록 9] 호주의 시합지표 목록**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조정된 출산건수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영아 사망률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태아 사망률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복합 사망 사유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신생아 사망수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분만 사망수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복강입신 기간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총출산수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사산수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기초 사망 사유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사유통계	추정 여명	질높은 사망통계생산, 최근통계 ICD-10기준	1900년대 초기부터,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통계	연령별 사망률	정책 추진 및 재정 배분의 기초 자료	1964년부터(최초조사는 1860),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통계	비조정 사망률	정책 추진 및 재정 배분의 기초 자료	1964년부터(최초조사는 1860),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통계	표준화 사망률	정책 추진 및 재정 배분의 기초 자료	1964년부터(최초조사는 1860),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통계	비직접 표준화 사망률	정책 추진 및 재정 배분의 기초 자료	1964년부터(최초조사는 1860),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통계	영아 사망률	정책 추진 및 재정 배분의 기초 자료	1964년부터(최초조사는 1860), 매년
건강	통계청 사망통계	기대 수명	정책 추진 및 재정 배분의 기초 자료	1964년부터(최초조사는 1860), 매년
건강	정신건강과 웰빙 조사	주요 정신질환별 발생 현황	주요 정신질환의 현황 파악	1997년 조사실시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장애상태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도움이 요구되는 노인 활동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수준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노인의 대중교통 활용수준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노인의 지난2주간 여행지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노인의 주요 교통수단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노인의 교통우대권 활용수준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노인의 운전면허 취득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노인의 운전 빈도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주 돌봄 제공자의 도움 종류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시간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주 돌봄 제공자의 가용한 돌봄 자원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활동이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과 웰빙의 관계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재택 혹은 비 재택 돌봄 활동 정도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가구별 돌봄 유형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돌봄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장애, 노화 및 돌봄 현황 조사	돌봄을 받는 사람의 주요 장애 및 장기요양 사유	미래 및 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	최초실시 1967, 5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건강 수준 변화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삶의 질 척도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스트레스에 대한 K10척도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천식, 당뇨, 동맥경화, 암에 중점을 둔 요개호 상태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부상 정도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건강관련 행위(병원방문, 진찰경험, 의약품사용)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건강상 문제로 노동을 쉬 기간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건강상 문제로 활동의 제약을 받은 기간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건강위해관련요소 (흡연, 음주, 식단, 운동, 체중, 일광보호, 모유수유, 면역)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건강	국가건강조사(NHS)	여성관련보조항목(유방 및 경부암 검진여부, 피임여부, 호르몬치료, 모유수유)	건강관련 현황 및 추이 파악	최초실시 1989, 3년주기
주택	호주주택조사(AHS)	거주 형태	주거와 관련한 물리적 환경 파악 및 모니터링	1982~1999, 비정기적
주택	호주주택조사(AHS)	주거 비용	주거와 관련한 물리적 환경 파악 및 모니터링	1982~1999, 비정기적
주택	호주주택조사(AHS)	주택 특성 및 상태	주거와 관련한 물리적 환경 파악 및 모니터링	1982~1999, 비정기적
주택	호주주택조사(AHS)	관리 비용 총당 및 주택 시설 유지 상태	주거와 관련한 물리적 환경 파악 및 모니터링	1982~1999, 비정기적
건강	일반사회조사(GSS)	주관적 건강 상태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건강	일반사회조사(GSS)	장애상태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주택	일반사회조사(GSS)	주택 소유 유형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주택	일반사회조사(GSS)	주택 임대 유형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주택	일반사회조사(GSS)	주택 임대 및 소유와 관련한 비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교육	일반사회조사(GSS)	최종학력취득상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교육	일반사회조사(GSS)	교육분야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교육	일반사회조사(GSS)	자격 관련 교육 상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교육	일반사회조사(GSS)	교육 기관 유형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노동력 상태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가구내 근로인원수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은퇴 상태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직업 종류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복수직업상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노동시간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고용유형(전일제, 파트타임)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고용지위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주요 직업 이탈 사유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노동	일반사회조사(GSS)	현재 직장의 기대 유지 기간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개인 및 가구 소득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주요 소득원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공적 연금 및 공적 수당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공적 지원의 시기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필요자금의 대출 불가능 여부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현금 융통 문제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저축불가 여부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주택 가치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주택에 대한 모기지 가치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주택의 순가치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투자 유형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일반사회조사(GSS)	소비자 채무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문화 및 여가	일반사회조사(GSS)	가정 내 PC사용 현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문화 및 여가	일반사회조사(GSS)	인터넷 접속 빈도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문화 및 여가	일반사회조사(GSS)	인터넷 활동 유형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문화 및 여가	일반사회조사(GSS)	인터넷을 통한 정부 서비스 접근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교통	일반사회조사(GSS)	자동차 이용에 대한 접근도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교통	일반사회조사(GSS)	교통에 관해 인지된 어려움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교통	일반사회조사(GSS)	통근 시간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사회관계	일반사회조사(GSS)	가정의 아동 지원 현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사회관계	일반사회조사(GSS)	가정의 성인 지원 현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사회관계	일반사회조사(GSS)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사회관계	일반사회조사(GSS)	사회 활동 현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사회관계	일반사회조사(GSS)	사회관계의 스트레스 요인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사회관계	일반사회조사(GSS)	사소한 도움의 요청 가능성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사회관계	일반사회조사(GSS)	위기시의 원조 현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사회관계	일반사회조사(GSS)	자원활동 현황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범죄 및 안전	일반사회조사(GSS)	폭력 범죄의 피해 여부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범죄 및 안전	일반사회조사(GSS)	재산 관련 범죄의 피해 여부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범죄 및 안전	일반사회조사(GSS)	거주지 안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회와 관련한 정책 관심 현상의 파악 및 기초자료	최초실시 2002,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주거지출조사(HES)	지출수준 (총600개 지출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17개 지출그룹별 수준)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파악	최초실시 1974, 6년주기
소득 및 재산	주거지출조사(HES)	개인 및 가구의 최근 1주간의 재정 상황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파악	최초실시 1974, 6년주기
노동	주거지출조사(HES)	노동력 상태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파악	최초실시 1974, 6년주기
노동	주거지출조사(HES)	고용상태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파악	최초실시 1974, 6년주기
노동	주거지출조사(HES)	고용유형 (전일제, 파트타임)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파악	최초실시 1974, 6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노동	주거지출조사(HES)	노동 시간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파악	최초실시 1974, 6년주기
노동	주거지출조사(HES)	주직업의 직종 및 산업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파악	최초실시 1974, 6년주기
노동	주거지출조사(HES)	전일제나 파트타임 직장 구직활동 여부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파악	최초실시 1974, 6년주기
노동	주거지출조사(HES)	실업 기간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대한 파악	최초실시 1974, 6년주기
소득 및 재산	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개인 소득	인구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집단간의 경제적 안녕 파악	1982, 1986 조사실시
노동	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직업 종류	인구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집단간의 경제적 안녕 파악	1982, 1986 조사실시
노동	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고용유형(전일제, 파트타임)	인구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집단간의 경제적 안녕 파악	1982, 1986 조사실시
교육	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교육 수준	인구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집단간의 경제적 안녕 파악	1982, 1986 조사실시
노동	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노동력 상태	인구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집단간의 경제적 안녕 파악	1982, 1986 조사실시
소득 및 재산	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소득 항목	인구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집단간의 경제적 안녕 파악	1982, 1986 조사실시
주택	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주거 비용	인구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집단간의 경제적 안녕 파악	1982, 1986 조사실시
주택	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주택 임대 유형	인구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집단간의 경제적 안녕 파악	1982, 1986 조사실시
주택	소득과 주거비용 및 주거패적도 조사	주택패적도	인구사회학적으로 상이한 집단간의 경제적 안녕 파악	1982, 1986 조사실시
소득 및 재산	소득 및 주택 조사(SIH)	인구집단별 가구 소득 및 개인 소득 분포	사적거주지역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안녕 파악	최초실시 1994, 2년주기
소득 및 재산	소득 및 주택 조사(SIH)	인구집단별 가구 재산 및 개인 재산 분포	사적거주지역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안녕 파악	최초실시 1994, 2년주기
주택	소득 및 주택 조사(SIH)	인구집단별 거주 유형 및 거주 비용 현황	사적거주지역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안녕 파악	최초실시 1994, 2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문화 및 여가	시간활용조사	가구의 주요 활동별 시간 활용	인구집단별 시간 활용에 대한 정보수집과 차이의 분석	국가단위최초실시 1992, 5년주기
문화 및 여가	시간활용조사	활동항목별 개인간 일일평균 소비시간	인구집단별 시간 활용에 대한 정보수집과 차이의 분석	국가단위최초실시 1992, 5년주기
문화 및 여가	시간활용조사	활동항목별 참여자간 평균 소비시간	인구집단별 시간 활용에 대한 정보수집과 차이의 분석	국가단위최초실시 1992, 5년주기
문화 및 여가	시간활용조사	주요활동에 대한 소비시간	인구집단별 시간 활용에 대한 정보수집과 차이의 분석	국가단위최초실시 1992, 5년주기
문화 및 여가	시간활용조사	전체 활동에 대한 소비시간	인구집단별 시간 활용에 대한 정보수집과 차이의 분석	국가단위최초실시 1992, 5년주기
문화 및 여가	시간활용조사	시간 활용에 대한 인구집단별 개별 인터뷰	인구집단별 시간 활용에 대한 정보수집과 차이의 분석	국가단위최초실시 1992, 5년주기
문화 및 여가	시간활용조사	일일 시간활용의 패턴	인구집단별 시간 활용에 대한 정보수집과 차이의 분석	국가단위최초실시 1992,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자원봉사자 수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자원봉사기관 수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자원봉사활동 관련 훈련의 필요성 여부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훈련내용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금전적 지출 발생여부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금전지출 발생시 보상여부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첫봉사활동로 부터 경과한 기간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자원봉사참여이유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한 이유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봉사활동을 통한 이점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조직적인 봉사활동 그룹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봉사활동 그룹의 설립기간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봉사활동 그룹의 주된 활동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조사	봉사활동 그룹의 활동 시간	봉사활동 현황과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파악	최초실시 1995년, 5년주기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성적, 물리적 폭력의 발생 시기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성적, 물리적 폭력에 의한 부상 여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폭력 가해자와의 관계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폭력의 유형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폭력 발생 장소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폭력에 대한 후속 조치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경찰 혹은 관련담당자와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폭력이 일상에 미친 영향 (일상생활 및 노동참여 등)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폭력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공포 발생 여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폭력과 알코올의 관련성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전, 현)파트너에 의한 물리적, 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현재 파트너에 의한 물리적, 성적, 정서적 폭력 경험 여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전, 현) 파트너의 폭력 행사 빈도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전, 현) 파트너의 폭력 행사시 아동 목격 여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전, 현) 파트너의 임신중, 별거중 폭력 발생 여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별거의 유형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폭력과 관련해 느끼는 삶에서의 공포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경험한 스토킹의 유형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스토킹 시작 시기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스토킹 종료 여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스토킹 관련 경찰과의 접촉 여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스토킹과 관련하여 경찰과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스토킹이 일상 및 노동참여에 미친 영향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주관적 안전감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성적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여부 (음란전화 등)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정서적 학대에 관한 경험 여부 (모욕, 방기 등)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여성	여성안전조사(WSS)	아동학대 경험여부 (15세 이전 성적, 물리적 폭력경험여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안전 현황에 대한 파악	1996
건강	아동 면역 및 건강환경 조사	0~6세 아동의 백신접종 상황	인구집단별 아동의 면역 및 건강검진 상황 파악	1983, 1989, 1995 등 비정기적
건강	아동 면역 및 건강환경 조사	0~6세 아동의 백신 미접종 사유	인구집단별 아동의 면역 및 건강검진 상황 파악	1983, 1989, 1995 등 비정기적
건강	아동 면역 및 건강환경 조사	0~3세 아동의 유아건강센터 활용 정도	인구집단별 아동의 면역 및 건강검진 상황 파악	1983, 1989, 1995 등 비정기적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건강	아동 면역 및 건강환황 조사	0~14세 아동의 시각, 청각 검사 및 치과 진찰 여부	인구집단별 아동의 면역 및 건강검진 상황 파악	1983, 1989, 1995 등 비정기적
건강	아동 면역 및 건강환황 조사	0~14세 아동의 최근 검진 사유	인구집단별 아동의 면역 및 건강검진 상황 파악	1983, 1989, 1995 등 비정기적
건강	아동 면역 및 건강환황 조사	0~3세 아동의 건강 검진 여부	인구집단별 아동의 면역 및 건강검진 상황 파악	1983, 1989, 1995 등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15~59세 여성의 출산율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거주지 이동 현황 (15세 이상)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가족 및 가구 구성의 변동 (15세 이상)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가족의 니드 및 책임 (15세 이상)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노동참여 현황 (15세 이상)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노인 가구원의 수급 현황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구원 현황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0~11세 아동의 공식적/ 비공식적 수급 현황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아동 양육과 일의 균형 정도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가족간 지원 제공 상태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가족	호주가족조사	가족 관련 추가정보 (인종구성, 교육지출,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을 위한 이동장비 등)	국제가족의 해'의 목표를 반영한 가족사회의 현황이해	~1982까지, 비정기적
소득 및 재산	교육훈련조사(SET)	가구 소득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 실시 1989, 4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소득 및 재산	교육훈련조사(SET)	개인 소득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소득 및 재산	교육훈련조사(SET)	개인 소득의 주요 항목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문화 및 여가	교육훈련조사(SET)	가정에서의 컴퓨터 접근도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문화 및 여가	교육훈련조사(SET)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도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교육훈련조사(SET)	노동력 상태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교육훈련조사(SET)	고용기간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교육훈련조사(SET)	고용유형 (전일제, 파트타임)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교육훈련조사(SET)	노동시간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교육훈련조사(SET)	종사 직업 및 산업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교육훈련조사(SET)	노동조합 가입 여부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교육훈련조사(SET)	이직 사유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교육훈련조사(SET)	직업 훈련 상황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교육훈련조사(SET)	실업 기간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최종 학력 현황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최종 교육 경력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교육과정 수료여부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교육과정 단계 및 영역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교육과정 제공자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교육과정 수료연도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훈련 참가 혹은 수료 여부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완료한 훈련 코스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훈련 참가 비용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훈련 참가 개인비용 보전 여부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훈련 참가에 의한 결과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훈련 제공 방식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훈련 영역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훈련과정의 소요 시간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교육	교육훈련조사(SET)	훈련 지속 및 중단 사유	교육 및 훈련 참가의 현황과 경향에 관한 모니터링	최초실시 1989, 4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노동시간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근로유형 (고용주, 임금급로, 자영자 등)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고용유형 (전일제, 파트타임)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종사 영역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가장 최근의 전일제 근무 시기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최근의 전일제 근무를 종료한 이유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추가 노동시간 할애 희망 여부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추가적 노동시간 할애를 원하지 않는 이유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추가적 노동시간 할애에 장애가 되는 사유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추가 희망 노동시간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주당15시간이상근로자) 다른 전일제/파트타임 직장 탐색 여부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실업자) 실업기간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실업자) 구직활동의 어려움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실업자) 이전 직장 관련 정보(전일제 여부, 근로유형, 산업 및 종사 부문, 실직사유 등)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비경활자) 임금근로 희망 여부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비경활자) 전일제 혹은 파트타임에 대한 근로유형 선호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비경활자) 장기고용에 대한 선호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비경활자) 단기입시직 제공시 수락 여부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비경활자) 조사 시점 기준 노동 가능 여부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비경활자) 노동가능시기로부터의 경과 시간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비경활자) 비노동참여의 사유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비경활자) 비노동참여와 자녀양육간의 관계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노동참여의 장애 및 유인 조사	(비경활자)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활동의 어려움	노동 참여, 이탈, 지속의 이유와 노동참여 패턴 파악	최초실시 2004, 2년주기
노동	직업경력조사	임금근로자의 특징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현재 직업의 변화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현재 직업의 지속 계획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전일제 임금근로 경력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파트타임 임금근로 경력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 종사자) 지난 12개월 간의 직업내 변화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 종사자) 현재 직장에서의 지위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노동	직업경력조사	(현재 직장에서 1년이상 종사자) 연령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공식 훈련/교육 과정의 참여 여부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전일제 혹은 파트타임 근로의 선택 사유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지난 12개월간 교육훈련 경험자) 현 고용주와의 관계형성 기간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지난 12개월간 교육훈련 경험자) 현 직장에서의 지위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지난 12개월간 교육훈련 경험자) 교육훈련에 대한 고용주의 지원 여부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현 고용주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12세 이하의 자녀 부양 여부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현 고용주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휴직 이후 현고용주와 함께한 기간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직업경력조사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출산 당시 휴직한 근로자) 출산/양육 휴가 실시와 관련한 세부 사항	고용유연성, 경력개발의 장애, 일과 가정 양립 현황 분석	최초실시 1993, 비정기적
노동	고용 및 실업 패턴 조사(SEUP)	(구직자/근로집단/노동시장프로그램참여집단) 각 집단의 3년간 직업관련 활동	노동시장의ダイナ믹 및 관련 지원정책의 영향 분석	1995, 1996, 1997 실시, 비정기적
노동	고용 및 실업 패턴 조사(SEUP)	(구직자/근로집단/노동시장프로그램참여집단) 각 집단의 코호트효과 및 환경변화 관련 항목	노동시장의ダイナ믹 및 관련 지원정책의 영향 분석	1995, 1996, 1997 실시, 비정기적
노동	고용 및 실업 패턴 조사(SEUP)	(구직자/근로집단/노동시장프로그램참여집단)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활동 차이 관련 항목	노동시장의ダイナ믹 및 관련 지원정책의 영향 분석	1995, 1996, 1997 실시, 비정기적
노동	고용 및 실업 패턴 조사(SEUP)	(구직자/근로집단/노동시장프로그램참여집단) 노동시장 지원책, 소득지원 혜택 여부	노동시장의ダイナ믹 및 관련 지원정책의 영향 분석	1995, 1996, 1997 실시, 비정기적
노동	고용 및 실업 패턴 조사(SEUP)	노동시장의 환경의 변화 파악과 관련한 항목	노동시장의ダイナ믹 및 관련 지원정책의 영향 분석	1995, 1996, 1997 실시, 비정기적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자/취업후 1년 이내 근로자) 지난 12개월간 취업횟수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자/취업후 1년 이내 근로자) 구직 및 취업 활동과 관련한 추진 단계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자/취업후 1년 이내 근로자) 전일제 혹은 파트타임 근로 여부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자/취업후 1년 이내 근로자) 근로시간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자/취업후 1년 이내 근로자) 실업기간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자/취업후 1년 이내 근로자) 센터링크에 구직자 등록여부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자/취업후 1년 이내 근로자) 구직을 위한 활동 단계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자/취업후 1년 이내 근로자) 직업네트워크를 통한 구직활동 단계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자/취업후 1년 이내 근로자) 현재 실업기간동안 일자리 알선 횟수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구직 활동과 관련한 장애 요소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구직활동의 주요 어려움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지난 12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기간의 횟수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지난 12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총 시간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지난 직업에서의 고용지위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종사한 직업의 산업부문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첫 직장의 지속 여부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고용주에 대한 구직자의 접촉여부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취업자리의 사전 정보 확보 여부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취직에 있어 직업네트워크의 역할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근로를 시작한 달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직업 알선을 받기 전 구직기간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현 직장에서의 직무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현 직장에서의 전일제/파트타임 근로 여부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노동	구직활동경험조사	노동시간의 추가적인 할애 희망 여부	노동시장 지원정책 및 실업수당의 영향 등 분석	최초실시 2002, 매년실시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희망 근로형태(전일제/파트타임)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 기간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전일제 직장을 위한 구직 활동 단계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구직을 위해 실제 수행한 활동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기간의 횟수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구직활동의 주요 어려움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교육참여의 주요 어려움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출생지와 구직활동 어려움간의 관계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연령과 구직활동 어려움간의 관계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연령과 관련하여 구직활동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가구 상황과 관련하여 구직활동의 어려움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실업 및 교육 참여 기간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실업자 구직활동경험조사	연령과 마지막 전일제 근로기간 간의 관계	실업수당,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초자료수집	1976~2000, 매년실시
노동	노동력조사(LFS)	성별, 고용지위별, 연령별, 거주주 및 출신주별, 취업 및 실업, 교육참여 등의 노동 관련 상황	노동시장 및 참여자의 현황의 시계열적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60, 매달실시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노동	직업이동조사	(조사연도 2월에 근무중인 근로자) 과거 직장에서 현재 직장으로의 이동 상황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과 노동참여의 역동성 분석	1972~1992, 2년주기
노동	직업이동조사	(조사연도 2월에 근무중인 근로자) 현 직장의 종사 기간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과 노동참여의 역동성 분석	1972~1992, 2년주기
노동	직업이동조사	(조사연도 2월에 근무중인 근로자) 직무와 직장 이동의 관계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과 노동참여의 역동성 분석	1972~1992, 2년주기
노동	직업이동조사	(조사연도 2월에 근무중인 근로자) 산업과 직장 이동의 관계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과 노동참여의 역동성 분석	1972~1992, 2년주기
노동	직업이동조사	(조사연도 2월에 근무중인 근로자) 종사상 지위와 직장 이동의 관계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과 노동참여의 역동성 분석	1972~1992, 2년주기
노동	직업이동조사	(조사연도 2월에 근무중인 근로자) 노동참여 및 상황의 변화와 관련한 항목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과 노동참여의 역동성 분석	1972~1992, 2년주기
노동	직업이동조사	조사연도 2월에 이직을 한 근로자의 노동참여 변화와 관련한 항목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과 노동참여의 역동성 분석	1972~1992, 2년주기
노동	직업이동조사	조사연도 2월에 실직을 한 근로자의 노동참여 변화와 관련한 항목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성과 노동참여의 역동성 분석	1972~1992, 2년주기
문화 및 여가	문화, 스포츠 행사 참여 조사	지역별, 연령별, 성별, 출신지별, 노동지위별 1년간 문화행사 참여 경험	문화, 레저 활동의 참여 현황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분석	최초실시 1991, 3년주기
건강	의료보험조사	보험 범위, 적용 범위 및 보장 수준의 변동 등과 같은 사적의료보험 현황과 관련한 변수	사적의료보험의 수준, 유형, 패턴과 가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1979~1998, 비정기적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주관적 건강 상태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건강 수준 변화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삶의 질 척도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스트레스에 대한 K10척도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천식, 당뇨, 동맥경화, 암에 중점을 둔 요개호 상태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부상 정도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건강관련 행위 (병원방문, 진찰경험, 의약품사용)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건강상 문제로 도움을 쓴 기간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건강상 문제로 활동의 제약을 받은 기간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건강 위해 관련 요소 (흡연,음주,식단,운동,체중,일광보호,모유수유, 면역)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원주민건강조사	원주민의 여성 관련 보조항목 (유방 및 경부암 검진여부, 피임여부, 호르몬치료, 모유수유)	호주원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원주민과의 비교	최초실시 1995, 6년주기
건강	유아수면자세조사	유아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수면 자세에 관한 조사 항목	유아들연사의 방지와 관련한 아동수면자세에 관한 자료수집	1992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사업 유형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수입원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지출항목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고용 특성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조직 규모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의료 관련 행위 수행율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성별, 연령별, 일반/전문의 등의 구분에 따른 의사 구성 및 활동 내용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성별, 연령별 구분에 따른 안계측사 구성 및 활동 내용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성별,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정신보건상담가의 구성 및 활동 내용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건강	합동의료산업조사	성별, 연령별 구분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구성 및 활동 내용	의료관련 산업 및 조직의 설립, 활동, 경제적 기여 등에 관한 자료 수집	최초실시 1997, 3년주기
주택	인구조사모니터(PSM)	인구학적 기본 정보 항목 (연령, 가구구성, 통학 자녀 등)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주택	인구조사모니터(PSM)	거주 형태(자가/임대/무상 등) 및 임대 경로 (공적기관/개인임대업자 등)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교육	인구조사모니터(PSM)	해외 출생여부 및 가정 내 통용언어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교육	인구조사모니터(PSM)	교육 수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노동	인구조사모니터(PSM)	노동시장 참여 형태, 노동시간 및 참여 유형별 참여 사유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노동	인구조사모니터(PSM)	직종 및 종사 산업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노동	인구조사모니터(PSM)	전일제/파트타임 구직활동 여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노동	인구조사모니터(PSM)	구직활동 경로 (신문, 전화문의, 알선 조직 등)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노동	인구조사모니터(PSM)	최근의 주요 시간 사용 영역 (가사, 공부, 근로, 자원활동 등)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의료	인구조사모니터(PSM)	근로 관련 건강 문제 및 직업적인 의료 보장 현황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소득 및 재산	인구조사모니터(PSM)	45~74세 응답자의 은퇴후 기대 수입 경로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소득 및 재산	인구조사모니터(PSM)	자원봉사활동 현황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소득 및 재산	인구조사모니터(PSM)	개인 및 가구 소득 현황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주택	인구조사모니터(PSM)	지난 1년간 이사 경험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주택	인구조사모니터(PSM)	주택 소유자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주택	인구조사모니터(PSM)	주택 혼잡도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주택	인구조사모니터(PSM)	주택 관련 비용 (집세, 대출금 등)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주택	인구조사모니터(PSM)	주택 구조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가구내 컴퓨터 설치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가구내 인터넷 설비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인터넷 환경과 관련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내용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컴퓨터 사용 시간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안전	인구조사모니터(PSM)	치안 서비스 만족도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안전	인구조사모니터(PSM)	경찰과의 접촉 수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안전	인구조사모니터(PSM)	안전 위협 요소의 순위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안전	인구조사모니터(PSM)	범죄 피해 여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1년간 스포츠 및 체육 활동 참여 여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아동의 체육 관련 클럽, 조직 참여 여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스포츠 관람 경험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사회참여	인구조사모니터(PSM)	1년간 개인적 기부 경험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소득 및 재산	인구조사모니터(PSM)	특정 물품에 대한 가구의 소비 현황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안전	인구조사모니터(PSM)	화재 안전 보장 현황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안전	인구조사모니터(PSM)	주택내 안전장치 설비 현황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소득 및 재산	인구조사모니터(PSM)	주요 에너지원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건강	인구조사모니터(PSM)	흡연 습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건강	인구조사모니터(PSM)	일반적인 건강상 문제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건강	인구조사모니터(PSM)	섭식 습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건강	인구조사모니터(PSM)	호흡기 문제 여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분류	조사명 등	항목	목적 등	생산현황
건강	인구조사모니터(PSM)	개인 면역 관련 현황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건강	인구조사모니터(PSM)	조사시점 1주간 음주 소비량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정원 조성 여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지난 3개월간 예술 및 공예품 구입 경험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지난 12개월간 예술행사 참여 여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 여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예술에 대한 주관적 태도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독서 습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문화 및 예술 활동의 직접 참여 여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도박 습관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문화 및 여가	인구조사모니터(PSM)	환경문제 대한 인식	가구 및 개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여 각급정부에 정보제공	최초실시 1993(Aug), 분기별조사

**[부록 10] 새로운 복지지표분류체계에 따른 복지지표현황(기존지표 및 신규지표)**

\* 밑줄 그은 이탤릭체 표기는 신규지표를 뜻함

\* 신규지표는 '향후 생산 필요성이 있는 지표'와 '기 생산 미공개 지표중 공개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포함

**1. 사회적 맥락**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연령계급별, 지역별 총인구</li> <li>▶인구성장률</li> <li>▶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li> <li>▶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li> <li>▶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li> <li>▶출생 시 기대여명 및 출생성비</li> <li>▶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li> <li>▶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li> <li>▶성별, 연령별 사망률</li> <li>▶영아사망률, 연령별 모성 사망비</li> <li>▶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li> <li>▶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li> <li>▶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li> <li>▶가족의 형태별 분포</li> <li>▶여성가구주 가구 비율</li> <li>▶한부모 가구 비율</li> <li>▶성/국적별 외국인 국제이동</li> <li>▶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li> <li>▶국적/성/연령/직업/교육정도별 외국인 등록인구</li> <li>▶결혼이민자 현황</li> <li>▶난민 통계 현황</li> <li>▶외국 국적동포 현황</li> <li>▶국내총생산</li> <li>▶국민총소득</li> <li>▶국내 주요 물가지수(소비자 물가지수 등)</li> </ul>

**2. 자립**

		지표명
핵심 복지지표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고용동향(경제활동인구비율, 취업률, 실업률)</li> <li>▶비정규직 고용동향</li> <li>▶장애인 고용률</li> <li>▶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장애인 의무고용률)</li> </ul>

		지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장애인 월평균 소득</li> <li>▶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li> <li>▶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li> <li>▶아동양육의 어려운 집</li> <li>▶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li> <li>▶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취업률</li> <li>▶UNDP 인간개발지수(HDI) 순위</li> <li>▶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li> </ul>
	복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시설수 및 입소인원)</li> <li>▶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수</li> <li>▶국가인적자원개발 재정투자 현황</li> </ul>
생애주기별 복지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아동 현황</li> <li>▶영유아 연령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li> <li>▶모 취업형태별/아동 구분별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li> <li>▶취학률 및 진학률</li> <li>▶OECD 학업성취도(PISA) 순위</li> <li>▶IEA 학업성취도(TIMSS) 순위</li> <li>▶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li> <li>▶<u>학업 중단 비율</u></li> <li>▶<u>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율</u></li> <li>▶<u>아동청소년 근로율</u></li> <li>▶<u>저소득 빈곤가구(수급가구+차상위가구)아동의 학업성취도</u></li> </ul>
		복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li> <li>▶보육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li> <li>▶보육료 지원 현황</li> <li>▶특수보육시설(영아전담시설) 현황</li> <li>▶아동발달계좌(디딤 씨앗통장)개설현황</li> <li>▶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수</li> <li>▶아동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이용만족도</li> <li>▶아동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양육시설 수</li> <li>▶학생1인당 공교육비</li> <li>▶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li> <li>▶학교급식 실시현황</li> <li>▶중고등학교 장학금, 학비감면 수혜현황</li> <li>▶학자금 대출 현황</li> <li>▶<u>GDP 대비 아동·청소년 복지재정 비율</u></li> <li>▶<u>전일제 보육의 순보육비용</u></li> <li>▶<u>아동의 방과 후 보육 이용비율</u></li> <li>▶<u>아동양육수당 수혜가구 수 및 비율</u></li> <li>▶<u>아동보육시설 이용 바우처 지원 수혜 아동 수및 평균 지원금액</u></li> </ul>

			지표명	
성인기 (25-64세)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u></li> <li>▶ <u>드림스타트 지원 아동 수</u></li> <li>▶ <u>드림스타트 사업 지출 총액</u></li> <li>▶ <u>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 현황</u></li> </ul>	
			복지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고용동향</li> <li>▶ 성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실업율</li> <li>▶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특성</li> <li>▶ 평생학습 참여율</li> <li>▶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li> <li>▶ <u>만 15세 이하 어린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 별 모의 고용비율</u></li> <li>▶ <u>장기실업자 비율</u></li> <li>▶ <u>청년실업자 비율</u></li> <li>▶ <u>실업자의 평균 실업기간</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출현황</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li> <li>▶ 자활사업 참여자 수</li> <li>▶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li> <li>▶ <u>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비율</u></li> <li>▶ <u>직업훈련 참가비용</u></li> <li>▶ <u>청년인턴, 노동부 인턴 등의 참여자수</u></li> <li>▶ <u>GDP 대비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출 비율</u></li> <li>▶ <u>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비율</u></li> <li>▶ <u>사업 유형별 자활근로 참가자 수</u></li> </ul>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고용동향(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li> <li>▶ 노인 취업률 현황</li> <li>▶ 산업 및 종사상 지위별 고령자 비율</li> <li>▶ 노인 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li> <li>▶ 노인의 생활비 원천, 생활비 마련방법</li> <li>▶ 만65세 이상 노인의 의존 소득원</li> <li>▶ 노인 가구 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li> <li>▶ <u>노인복지사업 욕구 인식</u></li> <li>▶ <u>노후생활지원 대한 인식</u></li> <li>▶ <u>노후준비방법</u></li> </ul>	
			복지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취업알선 실적,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수</li> <li>▶ 공적연금 수급률</li> <li>▶ <u>GDP 대비 노인복지예산 및 지출</u></li> <li>▶ <u>노인돌보미 서비스 수급현황</u></li> <li>▶ <u>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지출 현황</u></li> <li>▶ <u>노후소득보장현황</u></li> <li>▶ <u>GDP 대비 연금지출</u></li> <li>▶ <u>평균 연금액</u></li> <li>▶ <u>노령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u></li> </ul>

3. 형평성

		지표명	
핵심 복지지표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분배(Gini 계수)</li> <li>▶ 상대적 빈곤율</li> <li>▶ 소득 5분위 배율</li> <li>▶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li> <li>▶ 학력별 임금격차 및 교육투자 수익률</li> <li>▶ 남녀임금격차(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li> <li>▶ <u>이전(transfer) 전·후 빈곤율</u></li> <li>▶ <u>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u></li> <li>▶ <u>장애인 빈곤율</u></li> <li>▶ <u>지속 빈곤율</u></li> <li>▶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동태적 현황</u></li> <li>▶ <u>주택 소유에 따른 빈곤율</u></li> <li>▶ <u>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인식</u></li> <li>▶ <u>소득재분배에 대한 태도, 인식</u></li> <li>▶ <u>계층별 세금부담에 대한 평가, 인식</u></li> <li>▶ <u>결혼이민자 가정 빈곤율</u></li> </ul>
		복지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지출규모</li> <li>▶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지역별, 연령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출 현황</li> <li>▶ 긴급복지지원 건수 및 지원액</li> <li>▶ 공공연금 가입자 수, 수급권자 수, 총 급여비</li> </ul>
생애 주기 별 복지 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연령대별 아동 빈곤율</u></li> <li>▶ <u>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u></li> <li>▶ <u>한부모 가정 아동 빈곤율</u></li> </ul>
		복지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의 수</u></li> </ul>
	성인기 (25-64 세)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근로계층(만 19세 - 65세) 빈곤율</u></li> <li>▶ <u>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규모</u></li> <li>▶ <u>빈곤갭(Poverty Gap)</u></li> <li>▶ <u>빈곤 지속기간</u></li> <li>▶ <u>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u></li> <li>▶ <u>남녀 노동자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u></li> <li>▶ <u>가구 유형별 빈곤율</u></li> <li>▶ <u>가구 유형별 주거상황</u></li> <li>▶ <u>주거빈곤 현황(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의 비율)</u></li> <li>▶ <u>근로자의 임금소득 분배 (Gini coefficient, 5분위 · 10분위 배율)</u></li> <li>▶ <u>유연노동시간 실시 사업장</u></li> <li>▶ <u>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u></li> <li>▶ <u>남녀의 유급노동, 무급노동시간 격차</u></li> <li>▶ <u>남녀의 가사노동, 돌봄(care) 노동 참여시간의 차이</u></li> </ul>

		지표명	
		복지노력	
노년기 (65세 이상)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노인 빈곤율</u></li> <li>▶ <u>연금 수급자의 빈곤율</u></li> <li>▶ <u>노령인구 빈곤갭</u></li> <li>▶ <u>주택소유여부에 따른 노령인구의 빈곤 발생</u></li> <li>▶ <u>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수 및 이들에 대한 지출 현황</u></li> </ul>
	복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li> <li>▶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li> </ul>

4. 건강

		지표명	
핵심복지지표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률</li> <li>▶만성질환 현황</li> <li>▶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지역별, 연령별, 월별)</li> <li>▶성별 암 발생률, 10대 암 발생률 및 5년 상대 생존률</li> <li>▶정신질환 유병률</li> <li>▶주관적 개인의 건강평가(15세 이상)</li> <li>▶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li> <li>▶비만도 및 규칙적 중등도 운동실천율(19세 이상)</li> <li>▶성별 흡연률</li> <li>▶음주인구 비율과 음주량(20세 이상)</li> <li>▶하루 평균 수면시간(19세 이상)</li> <li>▶휴식 충분도(19세 이상)</li> <li>▶등록 장애인 수 및 장애인 출현율</li> <li>▶성별, 연령별 시각장애 출현율</li> <li>▶산업재해 발생현황, 도수율, 강도율</li> <li>▶<u>건강 기대수명</u></li> <li>▶<u>정신보건서비스 이용건수</u></li> <li>▶<u>건강보험 사각지대 인구</u></li> </ul>
		복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li> <li>▶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li> <li>▶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li> <li>▶건강보험 적용인구(직역별, 시도별)</li> <li>▶건강보험 급여율, 급여 현황(급여종류별)</li> <li>▶건강보험 부담액 및 요양급여의 급여액</li> <li>▶건강검진율</li> <li>▶의료급여 수급자수 및 수급률</li> <li>▶의료서비스 이용률(15세 이상)</li> <li>▶의료인력 및 병상 수 추이</li> <li>▶의료인 총수 및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 수</li> <li>▶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li> <li>▶정신요양시설 수 및 입소자 수</li> <li>▶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현황</li> <li>▶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시설급여/재가서비스)</li> <li>▶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li> <li>▶산재보험 급여지급 건수와 액수</li> <li>▶<u>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건수</u></li> </ul>
생애주기별	아동 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모성 사망률</li> <li>▶학생체격 및 체력검사 현황(학교, 연령, 성별)</li> <li>▶남녀 청소년(중고생) 흡연율</li> <li>▶학생표본 신체검사 현황</li> <li>▶학생체격현황</li> <li>▶초, 중등학생 체격검사 현황</li> </ul>

			지표명
복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학생표본 신체(키) 검사 현황</li> <li>▶ <u>비만 아동/청소년의 수 및 비율</u></li> <li>▶ <u>저체중아 출산율</u></li> <li>▶ <u>소아 암 발생율</u></li> <li>▶ <u>질병 및 장애 아동수</u></li> <li>▶ <u>추정장애아동 대비 등록장애아동 비율</u></li> </ul>
		복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아동에 대한 장애검진비 지출</u></li> <li>▶ <u>질병·장애아동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현황</u></li> </ul>
	성인기 (25-64세)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노년기 (65세 이상)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의 운동실천 여부, 주된 운동종목</li> <li>▶ 치매노인수 및 치매유병률</li> <li>▶ <u>연령대별 치매 유병률</u></li> <li>▶ <u>만성질환 발생률</u></li> <li>▶ <u>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u></li> </ul>
	복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1인당 진료비(월 평균)</li> <li>▶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li> <li>▶ <u>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수</u></li> <li>▶ <u>건강보험 노인성질환 지출 현황</u></li> <li>▶ <u>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현황</u></li> </ul>	

5. 사회응집

			지표명
핵심복지지표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li> <li>▶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li> <li>▶ 다문화(혼혈인) 가구원을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할 사항</li> </ul>
		복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수당 수급자 수</li> <li>▶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li> <li>▶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업 현황(종류별)</li> </ul>
생애주기별 복지 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약물경험 실태</li> <li>▶ 청소년 가출실태</li> <li>▶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li> <li>▶ 청소년 여가시간, TV시청시간, 인터넷 이용시간</li> <li>▶ <u>다문화 아동 수</u></li> <li>▶ <u>다문화 아동 학교 진학률</u></li> <li>▶ <u>다문화 아동 학업성취도</u></li> <li>▶ <u>청소년 자살률</u></li> <li>▶ <u>학교폭력 발생건수 및 신고건수</u></li> <li>▶ <u>학교 내 집단따돌림 혹은 왕따 피해아동 현황</u></li> <li>▶ <u>아동·청소년의 범죄율</u></li> </ul>

		지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아동 학대 발생 건수</u></li> <li>▶ <u>아동에 대한 성폭력 발생 건수</u></li> </ul>
		복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li> <li>▶ 전국 청소년 상담내용 및 대상현황</li> <li>▶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li> <li>▶ 청소년 쉼터 시설 수 및 보호 청소년 현황</li> <li>▶ 청소년 동아리활동 현황</li> <li>▶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현황</li> <li>▶ <u>수급가구 내 장애아동수당 수급가구 수</u></li> <li>▶ <u>다문화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u></li> <li>▶ <u>다문화 아동에 대한 복지비 지출</u></li> <li>▶ <u>학대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 건수</u></li> <li>▶ <u>학생인권 조례현황</u></li> <li>▶ <u>가정보호사업 실적</u></li> </ul>
	성인기 (25-64세)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참여율(성인)</li> <li>▶ <u>범죄율</u></li> <li>▶ <u>자살율</u></li> <li>▶ <u>삶에 대한 만족도</u></li> <li>▶ <u>일에 대한 만족도</u></li> <li>▶ <u>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u></li> <li>▶ <u>결혼이민자 가정 가정폭력 발생 및 신고건수</u></li> <li>▶ <u>투표율</u></li> <li>▶ <u>수감자 수</u></li> </ul>
		복지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련 지출</u></li> <li>▶ <u>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관련 지출 비중</u></li> </ul>
	노년기 (65세 이상)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노인자살률</u></li> <li>▶ <u>노인학대 발생률</u></li> <li>▶ <u>노인 투표율</u></li> <li>▶ <u>노인 대상 범죄율</u></li> <li>▶ <u>노인의 우울증 발병률</u></li> <li>▶ <u>노인의 삶의 만족도</u></li> </ul>
		복지노력	

6. 지속가능성

		지표명
--	--	-----

		지표명
핵심복지지표	사회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계출산율</li> <li>▶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li> <li>▶ 인구성장률</li> <li>▶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li> <li>▶ 여성경제활동 참가율</li> <li>▶ 노동생산성</li> <li>▶ <u>주요한 노동시장 이탈 연령</u></li> </ul>
	복지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재정(기금조성 및 운용)현황</li> <li>▶ 연기금 투자폴 수탁규모, 수익률</li> <li>▶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li> </ul>



[부록 11] 새로운 복지지표분류체계에 따른 통계연보 지표 현황(복지지표 중심)

◆ 새로운 복지지표분석틀

		정책목표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응집	지속가능성
핵심 복지지표		사회적 맥락	표1				
		사회적 상황	표2	표8	표11		
		복지노력	표3	표9	표12	표15	표18
생애주기별 복지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사회적 상황	표4		표13	표16	
		복지노력	표5			표17	
	성인기 (25-64세)	사회적 상황					
		복지노력	표6				
	노년기 (65세 이상)	사회적 상황			표14		
		복지노력	표7	표10			

◆ 새로운 복지지표분석틀(분류체계)에 따른 지표 현황

1)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지표

		분류기준	지표
<b>핵심 복지지표 (표1)</b>	인구	총 인구	5세 연령 계급별 성별추세, 시도별 인구 총인구성비 및 인구성장률추이 인구 연령구조 및 부양비추이 7대 도시 및 수도권 인구추이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출생·사 망	출생,사망 및 자연인구 증가율 출생시 기대여명 및 출생성비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15-44세 유배우부인 피임실천율 사망률-성별,연령별 영아사망률-지역별, 모성사망비-연령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간이생명표(전체)-연령별 간이생명표(남자)-연령별 간이생명표(여자)-연령별 화장률 현황-시도별
		결혼·이 혼	조혼인율, 조이혼율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평균초혼,이혼 및 재혼 연령 이혼사유별 구성비 국제결혼 건수 독거노인 수 일반가구 수 - 주택종류별 일반가구 수 - 주거부대시설별 일반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별 백분율 분포 핵가족및직계가족가구 등 백분율 분포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백분율 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의 세대구성별 백분율 분포
		이주	여성결혼이민자의출신국별체류현황
	국민경제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국내 주요 물가지수(소비자 물가지수 등)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농가가구 연평균 가계지출

2) 5가지 정책목표별 사회적 상황 & 복지노력 지표

① 자립 *Self-sufficiency*

자립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지표
--	----

		지표
핵심 복지 지표 (표2)		취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수, 취업자 수 및 실업자수
		장애인생활시설수및입소현황
생애주기 별 복지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표4)	보육 아동 현황
		보육 아동 현황-연령별
		요보호아동 발생 내용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립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지표
핵심 복지 지표 (표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시설수 및 입소인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현황
		장애인생활시설 유형별 입소현황-시설종류별, 시도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모자보호 생활시설 수 및 생활 현황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
		사회복지생활시설수 생활인원 및 종사자 수
		부랑인 생활시설 수 및 생활인원 현황
		아동상담소 수 및 상담실적
		아동상담 고민사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 수

		지표
생애주기별 복지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표5)	보육아동 현황 보육시설 현황 특수보육시설 및 아동 수 아동발달계좌(디딤 씨앗통장)개설현황 아동양육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직장보육시설 현황 아동 입양기관 수 및 입양 아동 수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아동일시보호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요보호아동 보호 내용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아동복지교사 현황
	성인기 (25-64세) (표6)	모성보호휴가 실시 현황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실적
	노년기 (65세 이상) (표7)	노인취업알선 실적

② 형평성 *Equity*

형평성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표8)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 추이 연도별 최저생계비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소년소녀가정 현황 공설묘지 이용현황 법인묘지 이용현황 화장장 및 봉안당 이용현황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및 근로일수

형평성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표9)	보건복지가족부 예산현황 보건복지가족 부문 예산관련지표

		지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지역별, 연령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 기초생활급여별집행실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집행실적 공공연금가입자수,수급권자수,총급여비(연금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수(가입형태별,지역별,산업별,가입형태 별연령별/사업장규모별,지역별) 국민연금적용사업장수 국민연금급여실적,수급자현황 사회복지관 수 저소득층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실적 산재보험적용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 의료급여 사업실적-보호종류별,시도별 1종 의료급여 사업실적-보호종류별, 시도별 2종 의료급여 사업실적-보호종류별, 시도별 의료급여대상자현황,1종,2종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산업 및 시도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종사인원 규모 및 산업
생애주 기별 복지지 표	노년기 (65세 이상) (표1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실적(지역별)

③ 건강 *Health*

건강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표11)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 출현율 변화 추이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장애종별 산업재해 발생상황,도수율,강도율 재가장애인 수-성별,연령별
생애주기 별 복지지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표13)	영아사망률-지역별 모성사망비-연령별
	노년기 (65세 이상) (표14)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및인정현황-지역별 노인장기요양기관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계약현황

건강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표12)		건강보험적용인구 건강보험보험급여실적 건강보험부담액및요양급여급여액 건강보험요양급여실적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산재보험급여지급건수

④ 사회응집 *Social cohesion*

사회응집 관련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지표

		지표
생애주 기별 복지지 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표16)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현황 1388 청소년 전화접수 현황

사회응집 관련 복지노력(welfare effort) 지표

		지표
--	--	----

		지표
핵심 복지지표 (표15)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수 및 이용자 현황
생애주 기별 복지지 표	아동 청소년기 (0-24세) (표17)	청소년상담지원현황-대상별,내용별 방과후아카데미운영현황 청소년쉼터시설수및보호청소년현황 청소년동아리지원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 문화존 운영 현황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수

### 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관련 사회적 상황과 복지노력 지표

		지표
핵심 복지지표	복지노력 (표18)	국민연금기금조성현황, 기금운용현황 건강보험재정수지현황